

ISSN 2586-6206 eISSN 2713-7155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

Multi-cultural Society and Education Studies

제 12집
2022. 11

부산외국어대학교 다문화연구소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학회

이 학술지는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발간되었음(NRF-2022-2022S1A8A8095133)

This journal was supported by
the NRF(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funded by
the MOE(Ministry of Education)(NRF-2022-2022S1A8A8095133)

목 차

지역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이탈 문제에 관한 질적 연구
- 부산지역 K대학교 베트남 어학연수생을 중심으로 -
| 구지은 · 박형준 01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의 필요성과
가족동반이주의 문제점 및 효과
| 김미경 31

적대와 환대를 넘어서는 무관심의 포용, 쿨다
| 김준표 51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프랑스 난민 신청(인정)자 대상 특수목적언어교육
(FOS)의 변화와 의의
- Thot학교, JRS, Accueil et Avenir(환대와 미래) 다문화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
| 장나나 71

우즈베키스탄인 한국어 학습자에 대한 연구 동향 분석
| 장미선 · 이숙진 · 남은영 · 박혜란 89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생활적응과정에 관한 모형
- 베트남 이주여성을 중심으로 -
| 전해경 107

아시아공동체론과 세계시민 교육을 통한 대학생들의 의식변화 연구
| 정기영 · 히라나카 유카리 · 조희주 143

한 아세안 교류 증가에 따른 국제친화형 다문화 인재 양성 특성화 방안
| 황미혜 167

한중 문화무역 비교분석 및 중국 문화무역 발전을 위한 대책
| 심뢰 187

부록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 12집 휘보 / 217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학회 회칙 / 222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 편집위원회 운영규칙 / 227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 연구윤리규정 / 229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 논문투고규정 / 233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학회 회원 명단 / 236

Contents

A Qualitative Research on the Issue of Foreign Students' Dropout of Local Collage Ji-eun Gu · Hyung-jun Park	01
The Necessity of Extending the Sojourn Period for Foreign Workers under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and the Problems and Effects of Family Immigration Mi-kyung Kim	31
CUMDA, Embracing Indifference beyond Hostility and Hospitality Jun-pyo Kim	51
A Study of the Significance and Change of Special Purpose Language Education(FOS) for French Asylum Seekers(Acknowledgement) in the Post-Corona Era Ni-na Chang	71
The Analysis of Research Trends for Uzbekistan Korean Learners Mi-seon Jang · Sook-jin Lee · Eun-young Nam · Hye-ran Park	89
A Model Study on the Adaptation Process of Married Migrant Women to Korean Life - Focusing on Vietnamese Migrant Women - Hye-kyung Jeon	107

A Study on the Change of University Students' Consciousness through Asian Community Theory and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Gi-young Jung · Hiranaka Yukari · Hee-ju Jo	143
A Study on the Specialized Marriage Immigrant Womenpower Training System for Global-friendly Multicultural Tallent of Korea-ASEAN on Exchange Increase Mi-hye Hwang	167
A Comparative Analysis of Cultural Trade in Korea and China and Countermeasures for China's Cultural Trade Development Shen Lei	187

지역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이탈 문제에 관한 질적 연구*

-부산지역 K대학교 베트남 어학연수생을 중심으로-

구지은 · 박형준**

(신언중학교 · 부산외국어대학교)

1. 서론
2. 외국인 유학생 이탈 문제 분석을 위한 이론적 배경
 - 2.1. 외국인 유학생의 이탈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
 - 2.2. 외국인 유학생의 이탈 원인 이해를 위한 질적 접근
3. 외국인 유학생 이탈에 관한 당사자 심층면담과 분석
 - 3.1. 심층면담 설계와 절차
 - 3.2. 심층면담 분석 결과
4. 외국인 유학생 이탈 문제 개선을 위한 시사점
 - 4.1. 유학원 평가 기준 개선과 체계적 관리
 - 4.2. 학문 목적의 교육 환경 조성 and 현실적인 노동 정책
 - 4.3. 외국인 유학생의 관리와 보호를 위한 정책 개발 필요
5. 결론

* 이 논문은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학회 2021년도 제4차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원고를 제 1저자와 교신저자가 공동으로 수정 · 보완한 글임.

** 제 1저자 : 구지은, 교신저자 : 박형준

Ⅰ 국문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질적 연구방법에 기초하여 외국인 유학생 중도이탈 문제를 ‘유학생 당사자’의 관점에서 고찰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국내 4년제 대학을 비롯하여 전문대학까지 대부분의 고등교육기관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여 대학의 정원과 재정을 충당해 오고 있다. 특히 지방 대학들은 베트남 유학생들을 집중적으로 유치하여 한국어교육센터와 대학의 학부를 운영해 나가고 있는데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외국인 유학생들의 중도이탈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원인과 해결 방향을 진단하기 위해 부산의 한 사립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베트남 유학생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기존 연구는 당사자의 관점이 반영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이 연구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학업과 노동을 병행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중도이탈 문제의 당사자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중도이탈’이라는 현상과 문제를 당사자의 관점에서 고찰하고자 했다. 심층면담 결과, ‘중도이탈’과 ‘불법체류’에 대한 인식은 한국 유학 과정과 경제적 비용에 대한 인식, 유학생으로서의 노동에 대한 인식, 어학연수생의 중도이탈에 대한 인식, 한국어 학습에 대한 인식 등 네 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었다.

|주제어| 외국인 유학생, 중도이탈, 질적 연구, 베트남 유학생

1. 서론

이 논문의 목적은 질적 연구 방법에 기초하여 부산지역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중도이탈 문제를 당사자의 관점에서 고찰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잠시 주춤하기는 했으나, 최근 10년간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는 꾸준히 증가해 왔다. 2021년 국내 고등교육기관 통계에 따르면,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은 152,281명에 이르며 국적도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교육부, 2021.4.1. 기준 집계). 중국 유학생은 2017년 68,184명에서 2021년 67,348명으로 다소 감소하였다. 이에 비해 베트남 유학생은 2017년 14,614명에서 2021년

35,843명으로 급격히 증가하여 전체 유학생의 23.5%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

부산지역의 외국인 유학생은 아직 중국이 4,541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어 베트남(2,617명), 우즈베키스탄(558명), 몽골(259명), 일본(213명) 순으로 나타나 아시아 국가에 편중되어 있으며, 중국과 베트남 두 국가가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강은영 2021: 19). 특히,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지방 4년제 사립대학 혹은 2, 3년제 전문대학에 집중되어 있다.²⁾

외국인 유학생의 증가 현상이 가속화되는 이유는 많은 수의 지역 대학이 학생 정원과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유학생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기 때문이다.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해 국내 대학 입학자원이 크게 줄었고, 이는 지역 대학의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민경(2012: 182)은 이러한 사회 변화와 대학의 위기 대응 전략이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수도권 바깥에 거점을 두고 있는 지역 대학들은 베트남 유학생을 집중적으로 유치하여 한국어연수과정과 대학의 학부 교육과정을 운영해가는 곳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는 지역 대학 내부의 국제화를 견인하는 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역으로 외국인 유학생 관리의 어려움과 이탈 문제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³⁾ 그래서 중소도시 지역의 일부 대학은 유학생들의 '불법체류'⁴⁾를 양산하는 곳이라는 인식

1) 강은영·정재연·채준원(2021: 19)에 따르면, 전국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수는 중국 국적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었으나, 중국은 감소하고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및 몽골 등의 외국인 유학생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 2021년 고등교육기관 대학별 외국인 유학생 현황(출처: 교육부, 2021)

3) 법무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1년 6월 불법체류외국인은 391,471명으로 전체 체류외국인의 19.8%에 이르고 있다. 2011년의 12.0%에 비하면 짧은 기간 급격한 증가율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탄희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별 유학생 및 어학연수 비자 불법체류자' 자료에 따르면 2020년 6월 기준 유학생·어학연수 비자로 국내에 들어온 불법체류자는 2만 3,631명으로 2015년 대비 4배 증가했다. 특히 같은 기간 베트남 유학생은 15배 증가했다. 국정감사(2020)에서 발표된 국가별 유학생 및 어학 비자 불법체류 통계에서 베트남 국적이 전체 국적에서 가장 높았다(출처: 서울시정일보 <http://www.msnews.co.kr>).

4) 국내 실정법을 위반한 외국인노동자를 부르는 용어는 불법체류자, 미등록외국인, 미

을 주기도 한다.

지역 대학은 외국인 유학생의 중도이탈과 불법체류 비율이 높아질 경우 이중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것은 크게 네 가지이다. 첫째, 외국인 유학생의 안전과 학사관리에 문제가 발생한다. 둘째, 학문 목적으로 유학하는 학생들의 학업 분위기 조성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셋째, 교육부가 주관하는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을 받지 못해 새로운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불가능해진다. 넷째, 지역 대학은 학령인구 감소와 유학생 유치의 어려움으로 인해 질 높은 교육 기회 제공, 안정적인 학사관리와 재원 확보에 큰 타격을 받게 된다(최용선 2019: 1).

외국인 유학생 중에서도 ‘중도이탈’과 ‘불법체류’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유형은 ‘어학연수생’이며,⁵⁾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는 유학생 군(群)은 베트남 어학연수생이다. 언론보도와 정부기관 보고서에 따르면,⁶⁾ 코로나19로 인해 아르바이트 자리가 줄자 주변 농촌이나 공장 등으로 돈을 벌기 위해 이탈한 것으로 추정될 뿐 ‘유학생 당사자’의 처지와 입장에 주목한 취재나 연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김은재 · 최현미 2016: 146).

이와 같은 이유로, 이 논문에서는 지역의 사립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의 중도이탈과 불법체류의 근본 원인을 ‘유학생 당사자의 관점’에서 고찰하고, 이에 대한 문제 해결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⁷⁾ 이

등록체류자, 불법이민자 등과 같이 다양하다. 이 논문에서는 용어의 혼선을 피하기 위해 정부의 공식적인 자료에서 사용되고 있는 ‘불법체류(외국인)’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 5) 외국인 유학생은 학사, 석사, 박사 등 대학교의 정규 과정의 유학생(D-2)과 대학 부설 어학당 한국어연수 과정 유학생(D-4)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논문의 심층면담 대상으로 삼은 유학생, 즉 어학연수생은 D-4 과정의 한국어연수과정 유학생을 말한다.
- 6) 경복일보(2021-10-19), 조선일보(2022-9-28), 한국대학신문(2022-9-28) 보도와 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 의원(무소속)이 교육부와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연도별 외국인 유학생 중도포기 및 불법체류자 현황(2018~2021)’에 따르면, 2021년 말 유학을 중도 포기한 불법체류외국인은 6,947명이다. 2018년 대비 지난해는 5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국가별로는 베트남 출신이 가장 많았다. 지난해 불법체류 외국인 중 베트남 국적자는 4,531명으로 전체의 65.2%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우즈베키스탄이 1,001명(14.4%), 몽골 488명(7.02%), 중국은 292명(4.2%) 순이다.
- 7) 박형준(2021: 57-58)은 다문화 연구에서도 당사자 관점에 입각한 연구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다문화 연구에서 당사자 관점 연구가 필요한 이유는 “다문화 당사자

연구는 질적 연구 방법 중에서도 당사자 연구의 보편적인 방법으로 채택되고 있는 심층면담 기법을 활용하여 유학생 당사자의 경험과 입장을 청취하고 정리하여 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인터뷰 대상자는 부산지역에 거점을 두고 있는 K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베트남 어학연수생으로 한정했다. 그 이유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지역 대학의 베트남 어학연수생의 중도이탈률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를 통해 지역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베트남 어학연수생들의 입국 동기, 경비 문제, 학업 상황, 중도이탈, 불법체류 등에 대한 당사자들의 경험과 입장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이 질적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베트남 유학생의 이탈률을 낮추고 안정적인 학업 환경을 조성하는 기초 자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외국인 유학생 이탈 문제 분석을 위한 이론적 배경

2.1. 외국인 유학생의 이탈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

이 장에서는 외국인 유학생 이탈 문제를 당사자의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해서 최근의 관련 연구 성과를 검토하고, 외국인 유학생 중도이탈 문제에 대한 질적 연구의 필요성과 접근 방안을 제시하도록 할 것이다. 먼저, 외국인 유학생과 관련한 기존 연구를 정리하면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외국인 유학생의 대학 생활과 학업 적응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김원영·안현선(2021)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국내 학술지에 발표된 외국인 유학생의 학업 적응 관련 연구 67편을 연구자의 전공, 학회지, 연구주제 및 방법을 기준으로 분석하여 최근 10년간 외국인 유학생의 학업 적응 관련 연구의 흐름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 이 논문은 외국인 유학생의 대학 생활 연구의 방

들이 자신의 입장을 표현하고, 각자에게 부여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참여/결정 과정”을 보장해주기 때문이다.

향과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윤새은임(2019)은 심층면담을 통해 수도권 P대학에 재학 중인 베트남 유학생의 한국 유학 동기와 현재 대학 생활의 의미를 분석했다. 베트남 유학생들이 취업과 사회적 성공을 위한 ‘스펙 쌓기’를 목적으로 한국의 대학에서 공부하며 학위 취득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 베트남 유학생들의 한국 유학 목적과 동기 분석에 필요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연구라 할 수 있겠다.

둘째, 유학생 노동의 불법성과 불법체류 문제를 분석한 연구 성과이다.

대표적으로 바트췁게르 투맹템베렐 · 김도혜(2020)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 연구는 유학생의 불법노동을 줄이려는 일련의 정책적 시도에도 불구하고 미허가 노동이 만연한 현실을 이해하기 위해 유학생의 불법노동이 지속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한국의 대학에 재학 중인 몽골과 베트남 출신 유학생에 대한 면담을 통해 실제 유학생들이 미허가 상태에서 노동을 행하는 경험을 고찰하고 있다. 특히, 유학 비자를 불법노동에 악용하려는 의도를 가진 행위로 바라보는 시각을 비판하고, 불법의 영역에 놓인 유학생 이주자들이 노동자로서 제대로 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외국인 유학생의 이탈 방지 대책에 관한 연구로는 최용선(2019)의 논문을 참조할 수 있다. 경남 진해 지역의 경우 베트남 유학생의 이탈률이 높아 학업 분위기 조성이 어려우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학생에 대한 입학 기준과 유학원에 대한 평가 방법 등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대학 평가 및 검증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외국인 유학생의 이탈률을 줄이기 위한 실험적 프로젝트를 시행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보고서라 할 수 있다.

외국인 유학생과 관련한 연구는 대부분 첫 번째 검토한 대학 생활 적응과 학업에 관한 연구가 다수였다. 반면 두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연구, 즉 외국인 유학생의 노동, 권리, 이탈, 불법체류 등과 관련한 연구는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지역 대학

에서 외국인 유학생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와 관련한 연구 역시 지속적, 다층적으로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다음 절에서는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접근/연구 방안에 대해 살펴볼도록 할 것이다.

2.2. 외국인 유학생의 이탈 원인 이해를 위한 질적 접근

외국인 유학생, 이주여성, 이주노동자, 중도입국자녀 등 다문화 현장을 이해하고 그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대표적인 조사 방법으로 양적 연구가 있다. 다문화 현장의 실태를 계량적 자료로 수치화하고 유형화하는 조사 연구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장을 이해하는 자료를 제공해 준다는 측면에서 충분히 의미가 있다. 다만, 양적 접근 방식은 피조사자의 일상 경험과 가치관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부분이 꾸준히 지적되어 왔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현지 조사를 기반으로 하는 질적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박형준 2021: 59).

실제로 최근 다문화 혹은 다문화교육 현장 연구에서도 질적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박윤경·박선운(2021)은 2000년부터 2013년까지 특수교육 관련 다문화교육 연구 동향을 분석한 연구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유아 관련 다문화교육 연구물을 분석한 연구에서 질적 연구가 전체 연구물의 약 1/3 또는 1/4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 질적 연구가 다문화 현장의 대표적인 연구 방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다문화교육 연구에서 질적 연구의 중요성은 다양한 측면에서 부각되고 있다. 박윤경·박선운(2021: 43)에 따르면, 틸만은 ‘문화적으로 민감한 연구(culturally sensitive research, CSR)’라는 새로운 연구 방법론을 소개하면서 소수자 집단과 관련된 교육 현상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집단 구성원들의 삶과 관점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특히 질적 연구가 이에 적합한 방법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는 다양한 문화 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정치, 경제, 교육적 요인들에 대한 종합적이고 맥락적인 상황을 탐색하고 연

구하는 데 있어서 질적 연구 방법이 유의미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질적 연구 방법은 해석학적 입장에 근간하고 있는데, 이때 ‘해석’은 텍스트를 생성해 낸 저자의 정신적 과정을 체험적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참여자의 이야기가 연구자의 질문과 연구주제에 따라서 자신의 경험을 구성하는 서술 과정이라면 참여자의 경험이 본질적으로 어떤 성격의 것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해석의 과정인 것이다(유기웅 외 2012: 28-29).

Creswell(2013)은 전통적인 질적 연구 방법으로 문화기술지, 근거이론, 사례연구, 내러티브 연구, 현상학적 연구 등의 다섯 가지 유형을 제시하고 있는데(유기웅 외 2012: 48), 이 중에서 현상학적 연구는 말 그대로 ‘있는 현상’에 대한 연구이다. 현상학적 연구 방법의 가장 큰 특징은 연구 참여자의 경험을 하나의 현상으로 간주한다는 점이다. ‘현상’을 강조한다는 것은 당사자의 의식 속에 가장 직접적으로 주어지는 직관적인 체험에 주목한다는 뜻한다(유기웅 외 2012: 60).

기존의 현상학적 분석 절차에 따르면, 경험과 인식 당사자의 의식이 지향하는 바를 식별하고 그 의미를 분석 및 기술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구체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현상학적 연구 방법으로 면담, 인터뷰, 참여관찰 등을 들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현상학적 연구 방법의 세부 기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심층면담’을 통해 베트남 어학연수생의 중도이탈 문제를 고찰하고 분석해 볼 것이다.⁸⁾

김중수(2021: 77-78)에 따르면, 심층면담은 질적 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단순히 연구 참여자의 기억 속에 있던 어떤 사실을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며, 그들의 기억과 경험은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의 면담 속에서 재구성될 때에 그 의미가 만들어진다고 보았다. 그는 심층면담에 입각한 현상학적 분석 절차를 다음과 같이 여섯 단계로 체계화해서 정리했다.

8) 이 논고의 제1저자는 한국어교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10년 이상의 경력을 갖고 있다. 부족하지만,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시대적 상황에 따라 유학생들의 변화를 경험해 오기도 했다. 최근 몇 년간 베트남 유학생의 입장, 태도, 중도이탈 과정 등에 주목하게 되었고, 질적 연구 방법인 심층면담을 통해 ‘유학생의 중도이탈 문제’에 대한 프로토콜을 만들고 그 의미를 해석하고자 했다.

첫째, 현상에 대한 개인의 경험을 전체적으로 기술한다. 둘째, 의미 있는 진술을 나열하여 목록을 만든다. 셋째, 의미 있는 진술을 의미 단위 또는 주제로 범주화한다. 넷째, 의미 단위 또는 주제를 바탕으로 현상에 대한 경험을 문맥적으로 기술한다. 다섯째, 현상에 대한 경험이 어떻게 일어난 것인지에 대해 구조적으로 기술한다. 여섯째, 경험의 의미에 대해 조직적 기술과 구조적 기술을 종합하여 전반적으로 기술한다(김중수 2021: 77).

이 여섯 단계의 현상학적 분석 절차는 베트남 유학생의 심층면담 설계와 분석 과정에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기준이다. 이 논고에서는 김중수의 ‘현상학적 분석 단계’를 참고하여 이 연구의 대상과 내용에 맞게 ‘현상학적 분석 단계’를 일부 재구성하여 심층면담을 계획하고 실행했음을 밝혀둔다.

다음 장에서는 베트남 유학생의 심층면접 설계 방법과 절차, 분석 결과를 차례대로 정리해서 제시할 것이며, 4장에서는 3장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외국인 유학생 이탈 문제에 대한 시사점을 기술할 것이다.

3. 외국인 유학생 이탈에 관한 당사자 심층면담과 분석

3.1. 심층면담 설계와 절차

이 연구는 부산지역 K사립대의 한국어교육센터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유학생들의 국적 분포도가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크게 이동하면서 나타나는 ‘새로운 현상’을 발견하면서 시작되었다. 부산지역 K대학의 한국어연수과정에 베트남 어학연수생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게 되더니, 점차 강의 출석률이 현저하게 낮아졌다. 이후, 유학생의 중도이탈과 불법체류도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

한국어 수업에서 학생들과 대화하면서 그들 사이에서 ‘이탈’이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는 ‘도망간다’ 혹은 ‘여행간다’라는 은어로 표현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베트남 어학연수 학생들은 이러한 현상을 자연

스럽게 받아들여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교수자나 외부자의 관점에서 관찰하기보다 내부자 혹은 당사자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연구해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유학 당사자들과의 심층면담 방법을 채택한 것이다.

지역 대학에 소속되어 있는 베트남 어학연수생의 중도이탈과 불법체류의 문제를 심층면담을 통해 재구성하고 그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 이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핵심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베트남 유학생들은 중도이탈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연구문제 2] 베트남 유학생들의 중도이탈에 대한 인식을 이해함으로써 학생들의 이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연구 문제 1]을 통해 베트남 유학생들의 이탈 실태를 당사자의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연구 문제 2]를 통해 지역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학사지원 및 체류 관리의 개선에 필요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연구의 참여자 선정 과정과 근거는 세 가지이다. 첫째, 심층면담 대상자는 한국에 입국하여 1년 이상 생활해 온 베트남 유학생 5명을 선정하였다. 이는 한국 사회의 정도 적응 정도를 고려한 것이다. 1년 이상 거주와 학업을 지속했다는 사실을 통해 한국 사회 적응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었다고 판단해 볼 수 있다. 또한 1년간의 유학 생활을 바탕으로 베트남 유학생 집단의 특징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내부자적 관점에서 풀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한국어로 자신의 의사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학생들을 면담 대상으로 선정하여 통역 없이 어느 정도 자유롭게 본인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대학의 한국어연수과정에서 ‘중도이탈’하지 않고 남아서 성실하게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들을 면담 대상으로 선정했다. 그 이유는 한국에 입국한 동기와 목적(학문 목적 또는 노동 목적)에 따라 중도이탈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이다.

심층면담 때 거부감이 없도록 연구자가 지도했던 학생이거나 가르치고 있는 학생 중 본인의 ‘참여 의사’가 있는 유학생을 선정하고자 했으

며, 면담 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5명은 어느 정도의 친밀감과 신뢰 관계가 이루어져 ‘교사-학생’, ‘학생-학생’의 라포 형성이 되어 있는 학생들이었다. 연구 참여자 정보를 요약해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연구 참여자 정보

학생	성별	한국어 수준 (교육원 분반 기준)	유학 기간 ⁹⁾
A	여	5급	1년 4개월
B	여	5급	1년 4개월
C	여	4급	1년 4개월
D	남	5급	1년 4개월
E	남	4급	1년

본 연구의 과정은 첫째, 연구의 주제를 정하고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본 연구에 적합한 대상자 기준을 선정하여 사전 면담을 실시하였다. 사전 면담 시 간단히 연구의 주제와 목적을 설명하고 면담에 자발적으로 응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 연구윤리를 준수하고자 했다. 둘째, 면담을 위해 연구 대상자 설명서와 연구 대상자 동의서를 준비하였으며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셋째, 면담 시작 전 참여자에게 연구 대상자 설명서를 통해 면담의 목적을 알리고, 개인정보 보호와 비밀을 보장할 것에 대해 설명하였다. 참여자 모두 자발적으로 면담에 참여한다는 의사를 최종 확인하고 연구 대상자 동의서에 서명을 받은 후 구체적인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은 2021년 11월 26일에 진행하였으며, 5명 모두 수업이 끝난 후 강의실에서 1시간 정도 진행되었다. 면담 후 녹음 자료를 전사하였고, 추가 질문을 준비하여 2차 면담을 실시하였다. 2차 면담은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이루어졌고 짧게는 10분 길게는 30분 정도 진행하였다. 넷째, 전사한 자료를 유형화하여 분류한 후 유의미한 내용을 도출해 분석하였다.

9) 참여자와의 면담이 이루어진 시기는 2021년 11월 기준이다.

3.2. 심층면담 분석 결과

2.2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 연구의 심층면담 절차는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여섯 단계의 현상학적 분석 절차를 재구성하여 이루어졌다.

첫 번째, 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심층면담을 진행하고 녹음된 음성 파일 전체를 전사하였다. 두 번째,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주어진 진술의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 전사자료를 여러 차례 읽으며 심층면담에 참여한 학생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세 번째, 전사한 자료는 기초적인 분석 절차를 거쳐 의미 있는 진술을 묶어 유형화하였다. 네 번째, 연구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 의미 단위의 구분을 진행하기 위해 전사된 내용 전체에서 유의미한 단어와 문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찾아 세밀하게 점검하여 주제에 맞는 의미 단위로 도출하였다. 다섯 번째, 참여자의 일상 표현을 연구 중인 현상에 중점을 둔 학문적 언어로 변형하였다. 여섯 번째, 참여자들로부터 도출된 의미 단위를 범주화하고 구조적, 종합적으로 기술하였다.

그 결과 유학 비용과 지역, 노동, 중도이탈, 대학 생활과 한국어 공부 등 네 가지 범주로 유학생 이탈에 대한 인식과 현상을 구분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도출된 의미를 바탕으로 심층면담 참여자의 인식과 경험을 하나의 '현상'으로 정리할 수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연구자는 참여자의 인식과 경험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었다. 정리하자면, 베트남 유학생에 대한 심층면담과 분석 결과, 부산지역 K대학교의 한국어연수과정 당사자들의 '중도이탈'과 '불법체류'에 대한 인식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정리하자면, 첫째, 한국 유학의 과정(지역 선택)과 경제적 비용에 대한 인식, 둘째, 유학생으로서의 노동에 대한 인식, 셋째, 어학연수생의 중도이탈에 대한 인식, 넷째, 거주 대학과 한국어 학습에 대한 인식 등 네 가지 유형으로 정리되었다. 또한 이 연구에 참여한 베트남 어학연수생의 면담 자료 네 가지 유형마다 세부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그 결과를 <표 2>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한국에서의 유학 경험과 ‘중도이탈’에 대한 경험과 인식

1. 유학 비용의 부담과 지역 선택의 비자발성	한국에 오기 위해 들인 학비 및 비용
	부산지역 선택의 비자발성
2. 학생 신분 노동의 불법성과 필요성	한국 생활을 위한 노동의 부득이함
	노동이 이루어지는 장소
	한국 생활과 노동에 대한 만족도
3. 중도이탈의 경계에 놓여 있는 어학연수생	이탈한 주변 학생들과의 관계
	이탈하는 이유
	남아있는 학생들의 이탈 가능성
	불법체류에 대한 인식
4. 한국어 학습의 중도이탈 영향	한국어 학습의 중도이탈 영향

베트남 유학생의 한국 유학 경험과 중도이탈에 대한 인식은 크게 〈표 2〉와 같이 정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을 유형별로 나누어서 기술 및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3.2.1. 유학 비용의 부담과 지역 선택의 비자발성

심층면담 결과, 베트남 유학생의 중도이탈 원인으로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것이 유학을 준비하면서 들인 비용과 경제적인 이유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베트남 유학생은 한국에 오기 위해 학비 외에 많은 비용을 감당하여야 한다. 이는 베트남 유학생의 중도이탈이 발생하는 핵심 사유 중 하나가 된다. 특히 유학센터에 들어가는 비용이 적지 않아 돈을 빌려서 오는 경우가 많다. 아래의 심층면담 전사자료를 보자.

연구자) 한국에 오게 된 과정(경로)은 어때요? 우리 대학교는 어떻게 알고 왔어요?

학생A) 유학센터에서 소개해 줘서 알았어요. 하노이에 있는 유학센터를 통해서 왔어요. **유학센터라고.

연구자) 유학센터에 돈을 냈어요?

학생A) 한국에 오기 위한 서류 준비 비용을 내야 돼요. 천오백만 원? 천 만 원 정도 들어요. 학비하고 서류 준비 비용이고, 그 외에도 통장 잔고 증명도 해야 돼요.

연구자) 그 돈은 어떻게 준비했어요?

학생A) 집에서 부모님이 주셨어요.(다 같이 동의)

연구자) 부모님이 부담이 많이 되시겠네요?

학생A) 그래서 도망가는 학생이 많아요. 어떤 학생은 빌려서 왔기 때문에 돈이 갚아야 해서 도망가요. 유학센터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올 수 있지만 서류 준비가 힘들어서 대부분 유학센터를 통해서 와요.

한국으로 유학을 오기 위해 대출하였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어학당 입학 후 아르바이트를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아르바이트만으로 한국에서의 유학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고, 이런 이유가 베트남 유학생의 중도이탈을 가속화시키는 현상을 만들어낸다.

다음으로, 베트남 유학생 자신이 한국어연수를 하는 ‘지역’을 스스로 선택하지 못한 것도 ‘중도이탈’이 발생하는 원인이 된다.

연구자) 다른 지역도 많은데 왜 부산에 왔어요?

학생E) 원래는 유학센터에 따라서 지역이 정해지고 개인적으로 선택할 수 없어요. 빨리 가야하니까 어느 지역이니까 상관없어요.

베트남 유학생의 경우 본인이 원하는 지역을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유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미 이탈의 문제를 내장하고 있는 셈이다. 부산지역을 선택하게 된 것은 본인의 의지와 관계 없는 경우가 많다. 부산이나 다른 지역으로 오게 된 이유가 본인 선택일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 유학센터가 지정해 주는 지역의 학교에 오게 된다고 한다.

심층면담 과정에서 베트남 유학생들에게 어학연수를 받는 지역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이유는 한국에 최대한 빨리 입국하는 것이 중요할 뿐, 지역 자체는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는 그 지역에서 학문 목적 어학연수를 이어가지 않고, 아르바이트와 취업 등을 위해 지역을 변경해 이탈하는

요인이 된다.

3.2.2. 학생 신분 노동의 불법성과 필요성

베트남 유학생의 중도이탈을 가속화시키는 두 번째 핵심 원인은 학생 신분의 ‘노동’문제와 결부되어 있다. 다수의 유학생들이 불법 노동의 상황에 처해 있다.¹⁰⁾ 이 경우 다시 세 가지 세부 요인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베트남 유학생은 대부분 법적 제약과 한계를 넘어서 ‘노동’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중도이탈을 하지 않은 유학생의 경우 대부분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점이다. 셋째, 공부하며 노동하는 현실이 힘들지만 만족한다는 모순적 인식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아래의 심층면담 프로토콜을 보자.

연구자) 보통 몇 시간 일해요?

학생C) 저는 5시간, 학생B) 6시간, 학생A) 저는 4~6시간, 학생D) 7시간, 학생E) 평일에 7시간, 주말에 10시간 해요. 유학생들은 일주일에 20시간이지만 대부분 불법이에요. 신청도 안 하고 일해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생활할 수 없어요.

외국인 유학생에게 법적으로 허용된 근로 시간은 1주일에 20시간이다. 하지만 다수의 유학생은 그 이상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유학 생활을 지속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베트남 유학생의 경우 더욱 심각한데, 이런 유학 환경과 노동 조건이 중도이탈을 하게 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연구자) 지금 어디에서 일해요?

학생C) 저는 치킨 피자 가게,

학생B) 배달 떡볶이

학생A) 불고기 식당

10) 임석준(2010: 8)은 외국인의 유학 생활이 전형적인 저소득-고소비 구조라고 지적하면서, 중국의 경우 부모들의 기본 연봉이 아직까지 한국보다 낮은 경우가 많아서 유학생이 공부에만 전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았다. 중국 유학생들은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노동 혹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학생D) ○○치킨

학생E) ○○식당(돼지고기)

연구자) 보통 학생들은 어디서 알바해요?

학생B) 가까운 곳에서 알바해요.

학생A) 방학 때는 시골에서 알바해요. 처음에 왔을 때는 한국어를 잘 모르니까 시골에서 일해요. 지금은 그 일은 안 해요. 너무 힘들어서 지금은 안 해요.

심층면담 결과, 유학생들이 일을 하는 곳은 대체로 식당이 많으며, 아예 중도이탈을 한 경우에는 대부분 공장에 취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학생 신분이지만 더 많은 노동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또 한국에 처음 오게 되면 한국어를 못하기 때문에 시골의 농사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한국어를 어느 정도 배우게 되면 농촌에서는 일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런데 베트남 유학생들은 이런 한국 생활에 만족한다는 모순적인 답을 내놓았다. 이것은 '당사자의 관점'이 아니면 확인하기 어려운 현상이다.

연구자) 한국생활은 만족해요?

모두) 만족해요.

학생A) 베트남에서도 아르바이트하면서 공부해요. 근데 큰돈을 받을 수 없어요. 큰 도시에서는 방값만 해도 비싸요. 힘들지 않아요.

전사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베트남 유학생들의 한국 생활은 결코 편안하지 않다. 하지만 유학생들은 한국 생활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면서도 지금 유학 생활에 만족한다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¹¹⁾ 이런 문제에 대하여 바트챙게르 투맹뎀베렐 · 김도혜 (2020: 30)는 최근 학생 이주의 방향이 다변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기

11) 노동에 대한 인식과 한국 생활에 대한 질문에서, 일하고 학교에 오면 힘들지 않는다는 질문에 대해 대부분 힘들다고 대답하였다.

존의 유학생 노동 및 취업을 바라보는 시각 역시 다변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¹²⁾ 외국인 유학생이 학업과 노동을 병행해야 하는 상황을 한국 정부에서도 고려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3.2.3. 중도이탈의 경계에 놓여 있는 어학연수생

베트남 유학생의 중도이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관점에서 유학생 중도이탈 상황을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하는 현상이 있다.

첫째, 유학생 '당사자'의 관점에서 볼 때 유학생의 중도이탈 현상은 매우 일상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다. 아래의 심층면담 결과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연구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학생들 중에 도망간 친구가 있어요?

학생C) 선생님, 거의 대부분 친구들이 도망갔어요.

학생A) 저는 두 친구하고 여기 같이 온 친구는 두 명 갔어요. 한 명은 벌써 갔고 한 명은 대학교에 갔는데 도망갈 예정이에요. 친구도 공부하기 힘들어서 도망가려고 해요.

학생B) 2명 있어요. 같이 사는 친구가 도망갔어요.

연구자) 연락해요?

학생B) 지금은 연락 안 해요. 학생A) 저는 연락해요. 베트남에서 같이 공부하고 있어서 가끔 연락하고 있어요. 자주는 아니지만 연락하고 있어요.

연구자) 도망간 친구 중에 연락하고 있는 학생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어요?

학생A) 네, 알고 있어요. 자세한 건 모르지만 대충 어디인지 알아요. 만날 수 있으면 만나고 싶어요. 근데 너무 바빠서 만날 수 없을 거 같아요.

베트남 어학연수생들 역시 자기 친구들의 중도이탈이 크게 증가한 것을 체감하고 있다. 어학당에서 함께 공부하고 있던 학생들 중 많은 수가 학교를 이탈했으며, 지금도 이탈을 생각하고 있는 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학교에서 이탈하지 않은 학생은 어학당에서 중도

12) 바트첵게르 투맹렘베렐·김도혜(2020: 30)는 일본의 중국인 유학생 노동 경험 및 사례를 이야기하며 “교육으로 증개된 노동 이주”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

이탈한 친구와 연락할 수 있으며, 그 친구가 어디에서 일하고 있는지 대강 파악하고 있다.

둘째, 베트남 유학생의 이탈 요인이 꼭 경제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위의 자료에는 흥미로운 면담 결과가 있다. 베트남 유학생들이 이탈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와 관련이 있지만, 그 외에도 여학생의 경우 남자친구가 이탈하면 어쩔 수 없이 같이 이탈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이다.

연구자) 도망간 친구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학생A) 저는 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베트남 경제와 관련된 이유, 두 번째는 남자친구예요. 남자친구가 있으면 같이 도망가요. 처음부터 도망갈 예정이 있던 친구가 있는데 처음에는 도망갈 예정이 없던 친구들이 남자친구가 도망가면 같이 가요.

(…중략…)

연구자) 학생들이 도망가면 분위기가 어때요?

학생A) 친한 친구들하고 같은 반이 아니면 괜찮은 거 같아요.

학생B) 상관없어요.

학생A) 좋은 친구들인데 도망가면 영향 좀 받아요. 자주 반이 바뀌어서 좋아요. 학생E) 저는 오랫동안 같이 공부하면 좋겠어요.

학생C) 친구가 도망가면 마음이 흔들려요. 나도 돈이 없는데 도망갈까 생각이 들기도 해요.

학생A) 제 생각에 알바 경제적으로 괜찮으면 알바를 잘 찾으면 괜찮아요. 상황이 너무 힘들면 도망가고 싶어요.

학생A) ○○은 정말 가까운 학생이에요. 진짜 공부도 잘하는 학생이에요. 학생B) ○○은 상상도 못했어요. 남자친구와 같이 도망갔어요.

이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는 현상은 어학당에서 중도이탈할 생각이 없었던 여학생도 남자친구가 학교를 이탈하면 같이 이탈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유학생들은 중도이탈에 대해 서로 직접적인 이야기를 나누지는 않지만 대부분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의 심층면담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듯, 베트남 유학생의 중도이탈은 학생과 학생 사이의 관계에 따라 상당히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은

알 수 있다. 베트남 유학생이 학교를 이탈해도 학습 분위기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가까이 지내던 이성 친구가 이탈하는 경우에는 심리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다.

셋째, 문제는 입국 전부터 대학에서 중도이탈할 계획으로 한국에 입국하는 학생들이 많으며, 실제로 코로나 격리가 끝나고 바로 이탈하거나 공항에 내리자마자 다른 국가로 넘어가는 학생도 있다는 사실이다.

연구자) 처음부터 도망갈 생각하고 오는 학생들은 많아요?

학생C, 학생A) 네, 많아요. 코로나 격리가 끝나자마자 도망가는 학생도 있어요.

학생E) 공항에 내리자마자 도망가는 학생도 있어요. 바로 다른 나라로 가는 학생도 봤어요.

연구자) 그런 학생들이 많아요?

학생A) 네, 많아요. 한 40% 정도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30% 정도…….

학생E) 선생님, 우리 학교는 적은 편이에요. **대학교는 너무 도망 많이 가서 베트남 학생을 받지 않아요.

유학생 당사자의 입장에서 볼 때, 지역 대학의 어학연수과정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30~40%가 중도이탈을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더 이상 지역 대학에서도 베트남 학생들을 받아들여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대학본부와 유학생들 스스로도 하고 있다. 그래서 어학연수생 역시 입학 면접 후 선별해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대학 사정이 그렇게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유학생들도 인지하고 있었다.

넷째, 면담 대상자들은 베트남 어학연수생의 한국 유학의 동기와 목적이 학문 목적이라 하더라도 언제든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다.

연구자) 혹시 흔들렸던 적이 있어요?

학생A) 저는 있어요. 학생B) 저는 없어요. 학생C) 저는 있었어요.

학생D) 저는 많이 흔들렸어요. 힘든 일이 많이 생겼을 때 도망을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연구자) 보통 언제 도망 많이 가고 싶어요?

학생D) 일이 끝난 후에 도망가고 싶어요. 퇴근한 후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연구자) 도망가면 안 힘들어요?

학생A) 힘들지만 공부하지 않아도 되니까 일하고 자고, 일하고 자고만 하면 돼요. 퇴근하고 숙제도 하고 학교에 가고…….

학생E) 매일 학교에 갈까 말까 생각해요.

위의 면담 결과에서 보듯, 처음부터 이탈할 계획을 가지고 입국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고된 노동과 공부를 병행하기 힘들어지면 언제든 베트남 유학생은 이탈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문제적인 것은, 어느 순간부터 어학당에서 중도이탈한 유학생과 이탈하지 않은 유학생의 신분 혹은 경계가 아주 모호해진다는 점이다. 항상 중도이탈의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베트남 유학생들이 부산지역에서 중도이탈해 불법체류를 하게 되면 대부분 대전과 대구 등의 공장 지대에 취업하게 되며 농사일보다 공장에서의 노동을 더 선호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학교에서 공장으로의 중도이탈로 인한 ‘위험 요소’에 대해서는 크게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연구자) 도망간 학생들은 어디에 있는지 알아요?

학생B) 공장에 많이 있어요. 대전, 대구, 공장 많은 곳에 있어요. 농사 일은 너무 힘들어서 공장에 많이 가요. 공장을 더 많이 좋아해요.

(…중략…)

연구자) 한국에서 도망가는 것은 위험하지 않아요?

학생A) 일본보다 위험하지 않아요. 좀 괜찮아요. 도망간 친구들이 오히려 편안해 보여요.

학생C) 괜찮아요. 안전해요. 길에 다녀도 경찰도 잡지 않아요. 그냥 다녀도 상관없어요.

학생A) 위험하다면 2% 정도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도망간 친구는 편해요.

학생D) 오히려 아는 사람 소개해 주고 좋은 일자리 소개해 주고 좋아요.

연구자) 그럼 베트남에 돌아갈 때 어떻게 돌아가요?

학생A) 벌금을 내고 돌아가요. 벌금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마지막 구술자료에서 보듯, 한국에서는 베트남 유학생들이 이탈을 하더라도, 경찰과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단속 위험이나 안전에 대한 위협은 크게 없다고 인식하고 있다. 오히려 한국 사회는 치안이 아주 안전하며 더 자유롭게 일할 수 있어서 좋으며, 향후 출국할 때는 벌금을 내거나 벌금을 내지 않아도 출국할 수 있어서 중도이탈에 관한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 베트남 유학생 당사자들은 중도이탈의 문제를 심각하거나 위험한 일로 인지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현재는 어학연수생이지만 언젠든 불법 중도이탈 노동자가 될 수 있는 경계에 놓여 있는 셈이다.

3.2.4. 한국어 공부의 중도이탈 영향

베트남 어학연수생들이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느끼는 어려움이 중도이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심층면담에 참여한 유학생들은 한국어 학습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학생C) 우리는 모두 공부하고 싶어서 왔어요.

연구자) 학교에서는 어떻게 하면 도망가는 학생들을 줄일 수 있을까?

학생B) 관상을 봐야 해요. 하하하. 의지가 있는 학생을 뽑아야 하는데 어려워요.

학생A) 이거 정말 어렵네요. 사람 마음은 모르기 때문에 사람 마음은 달라서 방법이 없어요.

연구자) 남아 있는 학생들이 좋은 분위기에서 피해를 안 보고 공부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학생A) 잘하는 학생들은 같은 반이면 좋겠어요. 너무 잘하는 학생과 너무 안 하는 학생이 있으면 너무 차이가 나요.

학생B) 공부하기 어려운 학생들이 같이 공부하고 잘하는 학생끼리 있으면 서로 경쟁하면서 더 열심히 하고요. 그러면 안 가고 싶을 거 같아요.

하지만 한국 생활과 유학 상황이 어려워지게 되면 한국어 학습 의지가 중도이탈의 욕망을 이기기는 어려워 보인다. 한국어 학습에 대한 의지는 존재하지만, 중도이탈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베트남 유학생의 중도이탈과 관련한 유학생 당사자의 인식은 매우 일상화되어 있으며, 상식과는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 사회와 지역 대학이 당사자의 관점에서 중도이탈 문제를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이다. 베트남 어학연수생들의 중도이탈과 불법체류에 대한 면담 결과에서도 나타나듯이, 현재 지역의 대학 혹은 어학당을 중도이탈하지 않고 남아있는 학생들도 중도이탈에 대해 고민과 갈등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을 고려할 때, 교육부와 지역 대학은 외국인 유학생 이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심층면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외국인 유학생 중도이탈 문제 개선을 위한 [연구문제 2]의 시사점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4. 외국인 유학생 이탈 문제 개선을 위한 시사점

4.1. 유학원 평가 기준 개선과 체계적 관리

지방 사립대에 입학하는 유학생들은 대부분 유학원을 통해 들어오고 있다. 현지 유학원들은 대부분 수입을 목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학문 목적의 유학생인지 노동 목적의 유학생인지에 관계없이 모집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구분 없이 입학하였을 때 외국인 유학생 중도이탈자가 많아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유학생 선정 기준과 유학원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최용선(2019: 20-21)은 유학생 이탈 방지를 위해 유학원 평가 항목을 안정성 평가, 모집관리, 만족도, 업무협조 등 4개의 항목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경우 유학생의 이탈률과 출석률이 현저하게 향상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대학마다 외국인 유학생 및 유학원 선정 시 선발 기준을 재정립하여 이탈률을 줄여야 하는 과제가 있다.

연구자) 학교에서는 어떻게 하면 도망가는 학생들을 줄일 수 있을까?
우리 학교는 면접을 까다롭게 하는데도 도망가는 학생들이 많아요.
학생) 도망가는 이유는 가족들 이유거나 경제적인 이유예요. 한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다 좋은데 상관없어요.

그러나 위의 심층면담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 대학에서 면접과 평가를 까다롭게 한다고 해서 외국인 유학생 중도이탈이 줄어드는 것만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지역 대학이 안정적으로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불법체류 비율을 4~6% 미만으로 유지해야 한다. 그래야만 교육부에서 인증하는 교육국제화역량 지위를 상실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인증대학 지위를 유지하지 못하면 유학생 비자 발급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당장 유학생 수가 급감할 수 있다.

바트첵게르 투맹템베렐·김도혜(2020: 38-39)에 따르면, 이런 상황에서 지역 대학은 학생들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대학이 앞장서서 학생이 ‘사라지지 않도록’ “불법”취업을 알선하는 부작용을 낳게 되기도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유학생 선발을 책임지고 있는 유학원 평가 기준을 정비하고 실제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유학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역 대학, 지자체, 정부의 노력이 경주될 필요성이 있다.

4.2. 학문 목적의 교육 환경 조성 and 현실적인 노동 정책

한국 정부와 지자체는 한국에 유학을 오는 학생들 대부분이 학업과 노동을 동시에 해야 하는 이중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학생들과의 심층면담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한국에 입국하는 유학생들의 목적과 학업 과정에 따라 안정적인 유학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연구자) 여러분은 모두 공부하고 싶어서 한국에 왔어요?

학생) 우리는 모두 공부하고 싶어서 왔어요. 하지만 지금은 공부 안하고 싶어요. 매일 계속 공부하면 역량이 떨어져요.

한국에서 일하기 위해 처음부터 이탈 계획을 가지고 입국한 학생들이 아니라, 학문을 목적으로 하되 노동을 해야 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배려가 필요한 것이다. 노동과 학업을 동시에 하면서도 한국어 학습에 대해 애정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많은데 이러한 학생들을 위해 정부와 대학에서는 이탈의 유혹을 배제할 수 있는 학업 분위기 조성 및 현실적인 일자리 정책이 필요하다.

외국인 유학생들이 자신의 미래를 위해 한국을 선택하여 학업에 임하는 만큼 포기하지 않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도 한국에 유입되는 외국인 유학생들 중 대부분은 학업과 노동을 함께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과 현실을 인정하고 직시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에 따른 정책 개발과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4.3. 외국인 유학생의 관리와 보호를 위한 정책 개발 필요

학생들과의 심층면담에서 나타나듯이, 외국인 유학생들은 한국에서 중도이탈하는 것은 큰 위험이 따르지 않는다고 본다. 이탈한 후에도 위험하거나 불이익이 없어 성실하게 학업에 임하는 학생들도 언제든 이탈의 유혹을 느끼고 있으며 이탈할 수 있다.¹³⁾ 처음부터 노동을 목적으로 입국한 유학생이 아니라 하더라도 쉽게 대학에서 중도이탈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정부의 관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연구자) 한국에서 도망가는 것은 위험하지 않아요?

학생A) 일본보다 위험하지 않아요. 좀 괜찮아요. 도망간 친구들이 오히려 편안해 보여요.

학생B) 괜찮아요.

남기범(2018: 237-244)은 한국의 불법체류 관리가 일본에 비해 적

13) 법무부에서는 2020년 1월 20일부터 새로운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 시행하였다. 자진 출국 시 범칙금을 부과하며 미납 시 입국 금지, 범칙금 납부 시 입국금지 면제해 주는 정책이다.

극성 측면에서 차이를 난다고 말한다. 그 이유는 일본 직원 1명이 불법체류 외국인 69명을 담당하고 있는 데 반해 한국은 1명이 1,353명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출입국관리사무소 당국 내부에서도 ‘효과적인 단속이 불가능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미 당국에서도 인지하고 있는 바이다. 가장 기본적인 대안으로는 정부의 해당 부처에서 인력 충원을 하여 효과적으로 외국인 유학생 관리를 하는 것이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그러므로 이 문제와 관련한 전문가, 정부 해당 부처의 진지한 고민과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에 대한 정책은 단순히 관리 차원의 수준이 아니라 국내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범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이탈한 유학생들이 인권의 사각지대에 직면하게 되는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한 외국인 유학생 중도이탈 방지를 위한 정책적인 부분은 차후 연구 과제로 남겨 둔다.

5. 결론

지금까지 베트남 유학생들과의 심층면담을 통해 ‘유학생 당사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중도이탈 문제를 고찰해 보았다. 이 논문에서는 지역의 K사립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의 중도이탈과 불법체류의 근본원인을 ‘유학생 당사자의 관점’에서 고찰하고, 이에 대한 문제 해결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이 연구는 질적 연구 방법 중에서도 당사자 연구의 보편적인 방법으로 채택되고 있는 심층면담 기법을 활용하여 유학생 당사자의 경험과 입장을 청취하고 정리하여 분석했다. 인터뷰 대상자는 부산지역 K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베트남 어학연수생을 중심으로 하였다. 심층면담과 분석 결과를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첫 번째 연구 문제로 베트남 유학생들이 중도이탈의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 결과는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분

류할 수 있었다.

첫째, 한국에 올 때 학비 외에 드는 비용이 많아 그 비용을 단순 아르바이트로 감당하지 못할 경우 이탈하게 된다. 둘째, 한국에 오게 된 동기 자체가 처음부터 노동을 위한 이탈 목적인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셋째, 학문 목적의 학습 동기가 있는 학생의 경우에도 경제적으로 힘들거나 친구들이 이탈할 경우 언제든지 대학을 중도이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다. 즉, 처음부터 이탈을 목적으로 입국한 학생과 학문 목적의 동기를 가진 학생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이탈한 학생들이 불법체류 외국인의 신분이 되는 것에 대해 두려움이나 큰 위협을 느끼지 못한다는 점이다.

두 번째 연구 문제로, 베트남 유학생들의 당사자 심층면담 결과를 참조하여 유학생의 중도이탈을 줄일 수 있는 개선 방향을 제시하면,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각 대학에서 유학원 선정 시 평가 항목을 정비하고 재정립해야 한다. 이를 통해 노동의 목적과 학문 목적의 학생들을 어느 정도 구별하여 선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 학문 목적의 동기를 가진 어학연수생들이 이탈하지 않도록 학업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며, 안정적인 유학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정부에서 불법체류 외국인 유학생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 연구 결과는 심층면담 대상자를 5명으로 제한했다는 점에서 외국인 유학생 이탈 문제를 일반화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하지만 유학생 중도이탈의 문제를 당사자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분석함으로써 개선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찾았다는 점에서 작은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향후 국가 정책연구의 측면에서 외국인 유학생 중도이탈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은영 · 정재연 · 채준원(2021). 부산지역 외국인 유학생 현황 및 정책제언, <산업& 혁신 브리프> 10호, 19쪽.
- 김미영 · 이유아(2019). 베트남 유학생들의 진로스트레스와 진로탐색활동에 관한 질적연구, <동아연구> 38호 (1), 41쪽~72쪽.
- 김은재 · 최현미(2016). 다문화 가정 자녀 관련 연구 동향과 향후 과제, <현대사회와 다문화>, 11호 (1), 1쪽~24쪽.
- 김원영 · 안현선(2021). 외국인 유학생의 학업적응에 대한 국내 연구동향 분석(2011~2020), <다문화교육연구>, 14호 (2), 55쪽~71쪽.
- 김중수(2021). 부산지역 중학교 한국어 학급 담당 국어 교사의 교육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56호 (2), 77쪽
- 남기범(2018). 일본 불법체류관리의 정책수단에 관한 연구, 성결대학교 다문화평화연구소, <다문화와 평화>, 12호 (3), 237~244쪽.
- 바트첵게르 투맹텨베렐 · 김도혜(2020). 유학생 노동의 불법성 연구: 한국 지방대학의 몽골과 베트남 유학생의 노동경험을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다문화>, 10호 (2), 25쪽~52쪽.
- 박윤경 · 박선운(2021). 다문화교육 질적 연구의 동향과 과제. <교육인류학연구>, 24호 (1), 39쪽~63쪽.
- 박형준(2021). 당사자 관점에 입각한 다문화 연구의 필요성과 방향 고찰,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 9호, 49쪽~73쪽.
- 안진우 · 이재원(2017).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베트남 유학생의 대학 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28호 (3), 157쪽~177쪽.
- 유기웅 외(2012). 질적연구방법의 이해, 박영스토리, 28쪽, 29쪽, 48쪽, 60쪽.
- 윤새은임(2019). 수도권대학 베트남 유학생의 유학동기: 경기도 P대학을 중심으로, 다문화아동청소년연구원. <다문화아동청소년연구> 4호 (1).
- 이민경(2012). 지방대학 외국인 유학생들의 유학동기: A대학 아시아 유학생들의 한국유학 선택과 그 의미를 중심으로. <한국교육학연구> 18호 (2), 182쪽.
- 이선미 · 김영순(2021).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생활 경험에 대한 질적연구 동향 분석. <현대사회와다문화>, 11호 (1), 25쪽~60쪽.
- 임석준(2010). 외국인노동자인가 유학생인가?, <21세기정치학회보>, 20호 (3), 55쪽~77쪽.
- 최승은(2020)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열린교육연구> 28호(1), 143쪽~167쪽.
- 최용선(2019). 외국인 유학생 이탈 방지책에 관한 연구, 호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쪽, 20쪽, 21쪽.

필자 소개

성 명 구지은

소 속 울산 신언중학교

주 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방천9길 19 [우편번호]44945

전자우편 kje9176@hanmail.net

성 명 박형준

소 속 부산외국어대학교 한국어교육학과

주 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샘로485길 65 [우편번호]46234

전자우편 corea@bufs.ac.kr

| Abstract

A Qualitative Research on the Issue of Foreign Students' Dropout of Local Collage

Gu, jie-un · Park, hyung-jun

(Sineon Middle School ·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al the problem of foreign students dropping out based on a qualitative research metho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foreign student' and to suggest a solution. Most of the local colleges have been covering university's quota and finances. In particular, local universities are intensively attracting Vietnamese students and are operating Korean language education centers and university faculties. As a side effect of this, there are problems of foreign students' dropout of local universities. In order to diagnose the causes and solutions of these problems,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Vietnamese students studying at a private university in Busan in this study. In this study, paying attention to the fact that foreign students are studying and working at the same time, we examined the dropout problem from an insider's point of view. As a result of an in-depth interview, it was confirmed that the perceptions of 'dropout' and 'illegal stay' among those involved in the Korean language training course can be broadly classified into four categories. The summary of contents is as follows: the process of the study abroad and the perception of the economic cost, labor as an international student, the dropout of language trainees, and Korean language learning.

|Key words| foreign student, drop-out, qualitative studies, Vietnamese students

투고일 2022. 10. 16 / 심사일 2022. 10. 27 / 심사완료일 2022. 11. 9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의 필요성과 가족동반이주의 문제점 및 효과

김미경
(동아대학교)

1. 서론
2. 고용허가제의 주요 내용
 - 2.1. 고용허가제의 의의
 - 2.2. 고용허가제의 특성
3.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자격과 체류 현황
 - 3.1.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자격
 - 3.2.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현황
 - 3.3.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 연장의 필요성
4. 외국인 근로자의 가족 동반 이주 문제점과 효과
 - 4.1. 외국인 근로자의 가족 동반 이주 문제점
 - 4.2. 외국인 근로자의 가족 동반 이주 효과
5. 결론

국문초록

이 연구는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체류 기간 연장의 필요성과 그들의 가족을 국내로 동반 이주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을 고찰해보고, 외국인 근로자 개인 및 사회적으로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한국은 해외의 저임금노동력을 합법적인 방법으로 국내에 받아들여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

조업이나 저임금의 단순노동 분야의 부족한 일자리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고용허가제'라는 제도를 시행해왔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단기 순환교체 직군이다. 그러나 단기 순환으로 인한 불편으로 사업주와 현장의 꾸준한 개선 요구가 있었고 현재는 단기 순환교체의 의미가 퇴색해진 실정에까지 이르렀다. 이에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자격과 체류 현황을 통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의 장기화로 인한 가족 이주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문제점 및 효과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한국은 현재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섰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처우도 선진국 수준에 걸맞게 개선되어야 한다. 이에 한국은 외국인 근로자의 실질적인 체류 상황을 고려한 가족 이민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외국인 근로자를 산업발전의 수단과 도구로만 인식할 것이 아니라 다문화 통합 대상으로 받아들여 그들과 함께하는 사회로의 변모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외국인 근로자에게 인간답게 살 권리와 가족들과 함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자유를 부여하여야 한다.

|주제에 외국인 근로자, 이주노동자, 가족 재결합, 가족 이민, 고용허가제

1. 서론

국내로 유입되는 외국인 근로자의 수가 늘어나는 만큼 불법체류자의 수도 지속적인 증가를 하고 있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의 정주를 방지하는 것이 한국 외국인 근로자 정책의 기본원칙 중의 하나인 이유로 한국의 외국인 근로자는 비숙련공이 양산되어왔다. 이와 더불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기본권 침해 논란과 같은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지속적인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해왔다.

2004년에 시행된 고용허가제¹⁾는 외국인 근로자를 단기 순환교체 대상으로 받아들였고 이 기본원칙은 여전히 적용되고 있지만, 사업주들

1)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하여 인력난을 겪고 있는 사업장에 일정한 요건의 충족을 전제로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고용노동부 2019).

의 고충과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여 정책이 수정되면서 기존 3년의 근로기간이 현재는 최장 9년 8개월까지 보장되고 있어 단기 순환교체 원칙의 의미가 점차 퇴색된 실정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10년 가까이 늘어남에 따라 한국에 더 오래 머물면서 계속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외국인도 늘어나고 있다.

고용허가제의 원칙 중에는 보충성의 원칙이 있는데 이것은 외국인 근로자가 내국인의 일자리를 잠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내국 인력의 보충적인 인력으로 보는 것이다. 이 연구는 한 직장에서 10년 가까이 근무한 외국인을 계약기간의 만료라는 이유로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내국인의 취업환경 보호를 위한 보충성의 원칙에 과연 부합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에서 출발하였다. 이에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 연장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의 배우자와 미성년자녀와의 가족 동반 이주나 가족 방문의 허용 문제 등이 이 연구의 논의 대상이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의 가족 동반 이주로 인한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을 고찰하고 정책적인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연구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범위는 고용허가제 중에서 ‘일반고용허가제²⁾’로 한국에 입국한 비전문취업비자(E-9)³⁾의 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를 주요 대상으로 한다. 방문취업비자(H-2)⁴⁾는 근로기간과 취업 절차 등이 비전문취업비자(E-9)를 가진 외국인 근로자보다 제약이 많지 않기 때문에 비교 대상으로 기술하고 논의에서는 제외하겠다.

-
- 2) 고용허가제는 일반 고용허가제와 특례 고용허가제로 나뉜다. 일반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인은 E-9 비자, 특례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인은 H-2 비자를 부여받게 된다.
 - 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의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단기취업(C-4),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홍행(E-6),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C-10),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 이렇게 15가지가 있다.
 - 4) 방문취업비자(H-2)는 특례 고용허가제로 입국하여 부여받은 비자로 중국·구소련국적의 동포에 관한 것이다.

2. 고용허가제의 주요 내용⁵⁾

2.1. 고용허가제의 의의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하여 인력난을 겪고 있는 사업장에 일정한 요건의 충족을 전제로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고용노동부 2019).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는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인력의 구인난에 처해 있는 제조업이나 3D업종⁶⁾ 분야의 기업들을 위해 해외의 저임금노동력을 제공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이다. 따라서 고용허가제는 합법적이고 투명한 고용관리 체계를 통하여 외국 인력을 국내로 받아들여 국내 산업의 부족한 인력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고용허가제는 일반 고용허가제와 특례 고용허가제로 구분이 된다. 일반 고용허가제는 일반 외국인노동자(E-9 비자)에 대한 것이고, 특례 고용허가제는 주로 ‘방문취업제’로 불리며 중국·구소련 국적의 동포(H-2 비자)에 관한 것이다.

일반 고용허가제는 입국일로부터 3년간 취업 활동 기간을 부여하고, 사업주에게 재고용되어 취업 활동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로 1년 10개월간 근무 기간의 연장이 가능하여 총 4년 10개월간 근무를 할 수 있다(고용노동부 2019). 또한, 한 사업장에서 4년 10개월의 근무를 하고 나면 ‘성실 근로자’의 조건으로 4년 10개월의 취업 기간이 추가로 더 주어져서 외국인 근로자는 최장 9년 8개월 동안 국내에서 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일반 고용허가제의 도입국가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16개국⁷⁾이고

5) 고용노동부. “19년 알기 쉬운 고용허가제”,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www.eps.go.kr)의 내용 재구성.

6) 3D는 ‘Difficult, Dirty, Dangerous’의 머리글자인 D자를 줄여서 만든 용어로 ‘힘들고, 더럽고, 위험한’ 업종을 일컬으며, 주로 제조업·광업·건축업이 이에 속한다.

7) 필리핀, 몽골, 스리랑카,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네팔, 키르기스스탄, 미얀마, 동티모르, 라오스(MOU 체결 순)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고용 허용업종으로는 중소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일부 서비스업이다. 제조업은 연중 분산하여 배정하고, 농축산업 등 소수 업종은 연중 2~3회에 걸쳐 시기별로 배정계획을 분산하여 배정한다.

2.2. 고용허가제의 특성

고용허가제는 5가지의 주요 원칙을 가진 특성이 있는데 이것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에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첫 번째, 시장수요 존중의 원칙이다. 고용허가제는 매년 국내의 경제 상황과 노동시장의 동향을 파악하고 불법체류의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송출국을 선정한다. 또한, 적정한 수준의 외국 인력이 국내에 입국할 수 있도록 그 수를 조절하여 국내의 노동시장 환경의 수요를 존중한다.

두 번째, 보충성의 원칙이다. 고용허가제는 그 절차상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사업장에 외국인의 고용을 허가한다. 이것은 외국인 근로자에 의한 내국인의 일자리를 잠식하는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외국 인력을 내국인의 보충적인 인력으로 보아 보충성의 원칙이라 한다.

세 번째, 투명성의 원칙이다.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인력송출의 비리가 없도록 공공 부분이 직접 관리한다. 공공 부분이 입국 과정에서부터 관리하기 때문에 입국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리 등의 각종 부작용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어 투명성의 원칙을 지닌다.

네 번째, 정주화 방지의 원칙이다. 외국인고용법 제18조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 활동 기간은 3년의 범위 이내로 정함으로써 취업 활동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외국인의 본국으로 귀국하여야 하고, E-9 비자는 가족의 동반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이것은 단순노무직에 근무하는 외국 인력이 한국 사회에 장기 체류함으로써 발생하는 국내 노동시

장의 교란이나 결혼, 출산, 자녀교육 등의 사회적 비용 증대 초래를 방지하기 위한 취업 기간의 단기순환 원칙을 말한다(김용환 2010).

다섯 번째, 차별금지의 원칙이다. 외국인고용법 제22조에는 “외국인 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는 내국인 근로자와 동등하게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법 적용을 받고 있어 이에 차별금지의 원칙을 지닌다 할 수 있다.

3.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자격과 체류 현황

3.1.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자격

외국인의 체류자격에는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과 취업 활동을 할 수 없는 체류자격이 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취업하기 위해서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부여받아야 한다(「출입국관리법」제18조 제1항). 취업 활동이 허가되지 않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취업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출입국관리법」제94조 제8호). 또한 취업 활동을 할 수 없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알선 또는 권유를 한 자에게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출입국관리법」제94조 제9호 및 제10호).

출입국관리법 제23조 ‘외국인의 취업과 체류자격’에 따라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은 15가지⁸⁾가 있으며 외국인의 취업은 이 사증을 소지한 자에게 허용된다. 고용허가제를 통하여 국내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E-9’이나 ‘H-2’ 비자를 부여받게 된다.

8) 단기취업(C-4),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홍행(E-6),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 내용 재구성).

3.2.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현황

2022년 7월 말 현재 체류 외국인⁹⁾은 2,081,350명이다. 체류 외국인 중에서 등록외국인은 1,116,395명, 외국국적동포의 국내 거소 신고자 488,603명, 단기 체류 외국인은 476,352명이다. 외국국적동포는 780,253명으로 전체 체류 외국인(2,081,350명)의 37.5%를 차지하고 있다.

〈표 1〉의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연도별 인구 대비 체류 외국인의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인구에 대비해서 체류 외국인의 비율은 2017년 4.21%에서 2019년 4.87%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고 2021년에는 3.79%로 감소하였다. 2020년부터 2021년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국제적인 이동에 제약이 있는 등의 특수한 상황으로 체류 외국인이 감소하였다.

〈표 1〉 연도별 인구 대비 체류 외국인현황

(단위: 명)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전체 인구	51,778,544	51,826,059	51,849,861	51,829,023	51,638,809
체류 외국인	2,180,498	2,367,607	2,524,656	2,036,075	1,956,781

출처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통계정보 2021년 기준 자료를 인용하여 연구자 재정리

또한, 체류 외국인 중에서 전문인력과 단순 기능인력의 현황을 아래의 〈표 2〉를 통해서 살펴보면, 2021년 말 기준으로 취업 자격 체류 외국인은 406,669명으로 전년도와 대비하여 10.1% 감소하였다. 2020년부터 2021년은 코로나19의 특수한 상황임으로 논의로 하고 2019년

9) 출입국관리법 제31조의 규정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할 목적으로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자 및 90일 미만 체류할 목적의 단기 체류 외국인을 포함한 총 국내 체류 외국인을 의미함(출입국·외국인 정책 통계 월보).

도까지의 추이만 본다면 전문인력과 단순 기능인력의 수는 큰 변동은 없지만, 소폭으로 감소하는 경향은 있다.

〈표 2〉 연도별 취업 자격 외국인(전문인력+단순 기능인력) 현황
(단위: 명)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전문인력	47,404	46,851	46,581	43,258	45,143
단순 기능인력	534,076	548,140	520,680	409,039	361,526

출처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2021년 통계 연보를 인용하여 연구자 재정리

2020년부터 2021년은 코로나19의 특수성으로 인해 통계 수치가 일반적이지 않기에 2019년 기준으로 전문인력과 단순 기능인력의 체류 자격별 체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하겠다. 법무부 통계자료를 통해 살펴보면, 2019년 12월 말의 체류 외국인은 2,524,656명으로 체류 외국인 중에서 외국인 등록자는 1,271,807명, 외국국적동포의 국내 거소 신고자 459,996명, 단기 체류 중인 외국인은 792,853명이다. 그중에서도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비전문취업(E-9)은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276,755명, 방문취업(H-2)은 226,322명으로 단순 기능인력 취업 자격 체류 외국인의 총인원 수 520,680명 대비 각각 53.15%, 43.46%를 차지한다.

〈표 3〉 취업 자격 체류 외국인(전문인력) 현황
(2019.12.31. 기준, 단위: 명)

계	단기 취업 (C-4)	교수 (E-1)	회화 지도 (E-2)	연구 (E-3)	기술 지도 (E-4)	전문 직업 (E-5)	예술 흥행 (E-6)	특정 활동 (E-7)
46,581	1,645	2,187	13,910	3,132	220	624	3,549	21,314

출처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2019년 12월 출입국외국인 정책 통계 월보를 인용하여 연구자 재정리

〈표 4〉 취업 자격 체류 외국인(단순기능인력) 현황
(2019.12.31. 기준, 단위: 명)

계	비전문취업 (E-9)	선원취업 (E-10)	방문취업 (H-2)
520,680	276,755	17,603	226,322

출처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2019년 12월 출입국외국인 정책 통계 월보를 인용하여 연구자 재정리

〈표 5〉의 연도별 불법체류 외국인현황을 보면, 불법 체류율은 2020년 19.3%에서 2021년에는 19.9%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외국국적동포 중에서 국내의 불법체류 외국인은 2021년 말 9,856명으로 전체 불법체류 외국인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표 6〉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표 5〉 연도별 불법체류외국인(등록+단기+거소) 현황
(단위: 명)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등록	82,837	90,067	95,815	108,665	125,022
단기	167,140	264,044	293,150	281,857	262,251
거소	1,064	1,015	1,316	1,674	1,427

출처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2021년 기준 자료를 인용하여 연구자 재정리

〈표 6〉 연도별 외국국적동포 불법체류 현황
(단위: 명)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인원	7,768	7,805	8,087	9,640	9,856

출처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2021년 기준 자료를 인용하여 연구자 재정리

〈표 1〉에서 〈표 6〉을 통하여 연도별 인구 대비 체류 외국인현황과 연도별 취업 자격 외국인을 전문인력, 단순 기능인력 현황으로 세분화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연도별 불법체류 외국인현황과 연도별 외국국

적동포 불법체류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 자료를 통하여 2019년 12월 말 체류 외국인 2,524,656명 중 비전문취업(E-9) 276,755명이 체류 외국인의 10.96%를 차지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불법체류 외국인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는 동향을 확인하였다. 2019년 12월 말 체류 외국인 중 불법체류 외국인은 390,281명으로 체류 외국인의 15.45%의 비중을 차지하여 E-9 비자 외국인 근로자보다도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불법체류 외국인의 양산을 줄이는 차원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체류 기간의 합리적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3.3.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 연장의 필요성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은 비전문취업과 방문취업(H-2)비자로 국내에 입국하게 되는데 이 중에서도 E-9 비자는 취업 활동에 여러 가지 제약을 받는다. 이들이 흔히 말하는 ‘외국인노동자’이다. 이들은 업종 간 이동이 불가능하고, 사업장 간 이동은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이 경우에 최초 입국 후 3년간 3회 가능하며 재고용은 1년 10개월 간 2회 가능하다. 단, 휴업·폐업 등 사업주의 귀책 사유는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E-9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이하,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 기간은 3년으로 제한하고, 1년 10개월의 근로기간이 추가로 한번 주어진다. 외국인 근로자가 한 사업장에서 총 4년 10개월을 근무하였다면 ‘성실 근로자’의 조건이 되어 추가로 최장 4년 10개월의 근로기간이 주어져서 국내에 9년 8개월까지 체류 허용이 된다.

현행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근로자의 정주화를 방지하기 위해 단기순환 정책을 기본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주들은 사업장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여 숙련공으로 성장한 외국인 근로자를 본국으로 떠나 보내기가 아쉬운 상황이고 외국인 근로자 또한 국내에서 계속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통계청의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에서도 확인이 되는데, 2020년 기준 고용허가제 체류 기간 만료로 출국 후 재입국하는 경우가 36.7%, 고용허가제로 처음 입국하는

경우가 63.3%이다. 또한, 2021년 체류 기간 만료 후에도 한국에 계속 체류하기를 희망하는 여부를 조사한 결과에서는 비전문취업(E-9)의 81.3%가 계속 체류하기를 원한다고 응답하였고, 체류 기간 연장을 원한다는 응답이 71.3%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본국에 있는 가족들과 함께 한국에 머물기를 희망한다. 한국의 이주 네트워크가 잘 형성되어 있는 사람들일수록 많은 정보를 활용하여 배우자를 한국에 데려오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정기선·변주수 2015). 하지만 현재 고용허가제 제도는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정주화 금지 원칙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의 가족을 국내로 초청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는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을 통하여 배우자와 자녀를 입국시켜 함께 살기도 한다. 외국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불법체류 외국인들도 그러하다.

정부는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관계의 유지를 원하는 사업주들의 요구에 따라 숙련기능인력 점수제(E-7-4)를 도입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장기 체류를 가능하게 해주는 방법을 만들었지만, 그에 부합하는 조건이 까다롭고 선발 인원을 쿼터제로 제한을 두고 있어 비자 변경이 쉽지 않다.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체류 기간 장기화로 인하여 가족 결합에 관한 요구의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고 정주화 금지의 원칙을 고수하는 외국인고용법 자체의 전면 수정까지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이연옥 2019).

4. 외국인 근로자의 가족 동반 이주 문제점과 효과

4.1. 외국인 근로자의 가족 동반 이주 문제점

외국인 근로자의 가족 동반 이주의 문제 제기는 고용허가제 단기순환 원칙의 예외 사항 허용에서 기인한다. 최초 3년의 근로계약 기간에서 고용관계 내용의 수정 보완으로 특례 적용을 하여 외국인 근로자는 현재 최장 9년 8개월, 약 10년의 기간 동안 한국에 체류하여 근로할

동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10년이라는 기간은 가족이 분리되어 생활하기에는 긴 시간이고, 한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본국에 있는 가족들도 본국보다는 더 나은 생활환경에서 함께 지내고픈 것이 당연할 것이다. 본국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가족들을 한국으로 데리고 와서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적법한 방법이 사실상 없기에 음성적인 방법으로 국내에 가족들을 입국시켜서 생활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는 없다(김이선·정해숙·이진숙 2015).

외국인 근로자들 간 결혼을 한 경우나,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결혼이나 만남 자체는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들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고 어느 한쪽의 체류 기간이 끝나서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면, 온전한 부부관계도 유지되기 어렵고 아이의 양육에도 문제가 생긴다. 한국은 속인주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어 외국인 근로자의 아동은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도 없다.

한국은 UN아동권리협약의 가입 당사국으로 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한다. 그렇기에 외국인 근로자와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녀에게도 거주 사실이 입증되면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의 교육과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학교에 다니던 아이의 부모가 체류 기간이 끝나거나 불법체류 단속의 대상이 된 경우에 아동의 교육은 더 이상 이어지기가 힘든 것이 사실이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불법체류자의 자녀가 만 18세 이하면 학교에 다닐 수 있고, 아이가 학업을 마칠 때까지 부모에게 임시 체류 허가증을 발급하여 합법적인 거주가 가능하도록 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있다(이연옥 2017). 불법체류자에게 아이가 있다는 것만으로 그 아이의 교육권을 국내 체류 수단으로 이용할 가능성도 적지는 않지만, 출생의 선택권이 없는 아이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나 미래의 국가 자산이 될 아이를 위해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가족 동반 이주는 그 가족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 가족들이 국내로 들어오는 순간 한국사회의 일원이 되는 동시에 한국 사회가 그만큼의 사회적·경제적 부담을 떠안게 되는 것이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결혼생활이 안정된 상태로 잘 유지되면 큰 문제가 없겠으나 가정의 불화로 인하여 가족이 해체되거나, 기존에 정착하여 생활

한 외국인 근로자보다 늦게 국내로 입국한 가족들의 사회 적응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 보아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가 가족과 함께 국내로 이주하여 바람직한 가정으로 정착을 하게 되면 문제가 없지만, 부부관계가 지속되지 못하는 상황으로 변하게 되거나 부모와 자식 간의 마찰로 인하여 가족이 와해 되는 경우 등의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의 배우자도 국내에서 일자리를 원하게 되면 내국인의 일자리 보호에 위협을 받을 수 있는 문제점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어느 정책이든지 명암이 있기 마련이기에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는 특히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4.2. 외국인 근로자의 가족 동반 이주 효과

독일은 혈통에 기반을 둔 이민정책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과 아주 유사하다. 1950~1960년대에 이주노동자를 받아들이면서 계약이 만료되면 새로운 인력과 계약하여 인력을 수급하는 교체순환 원칙으로 이민정책을 운영하였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들의 장기 체류는 늘어나기만 했고 결국 이주노동자와 가족을 독일 사회로 받아들이는 정책을 펼치게 되었다(김석호·이병하·송영훈 2014). 이후, 전통적으로 계절노동자들을 받아들였던 나라인 독일은 국적법의 개정으로 혈통주의에 속지주의를 결합하여 외국인 자녀의 국적취득을 허용해 가족차원의 삶을 보장하는 국가로 변화하게 되었다. 독일 이민정책에서 가족 재결합을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몇 가지 있는데, 가족 이민자는 기초적인 독일어 실력을 갖추어야 하고, 초청자는 가족 이민자들을 위한 기본적인 생계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런 조건은 고숙련 이민자나 난민 등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김석호·이병하·송영훈 2014).

또한, 미국은 전통적인 이민 수용국으로 가족 이민정책에 있어 교육 수준, 기술 능력, 언어능력의 전제 조건이 없다. 이러한 이유로 25세에서 55세의 노동인구가 확보되고, 이러한 이민정책은 미국 경제의 노동시장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으며 가족 이민이 이민자들에게 심리적,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여 이민자들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긍정

정적인 영향이 크다고 한다(김석호 · 이병하 · 송영훈 2014).

프랑스는 가족 재결합권을 최우선으로 적용하는 국가이다. 제국주의 국가였던 프랑스는 과거 식민 통치를 했던 지역이 독립 국가가 된 후에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았던 국가들의 국민을 노동력으로 활용하여 경제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족 결합권을 명시하였다. 프랑스는 불법체류자의 자녀가 학업을 마칠 때까지 부모에게 임시로 체류 허가를 해준다는 점에서 이민자의 가족 결합에 있어서 가장 선진화된 정책을 마련해두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한국도 독일, 미국, 프랑스 등의 선진이민국의 정책을 참고하여 저숙련 이주근로자에게 가족 결합에 관한 법 적용의 완화를 통하여 가족과 함께 장기간 체류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한국의 외국인 근로자 중에서도 '성실 근로자'에 대해서 가족 동반 이주에 대한 허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족 동반 이주의 허용에 있어서 그 전제 조건이 기존보다 완화되는 정책이 있다면 그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우선, 한 사업장에서 최장 9년 8개월을 근무한 경험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어느 정도 그 직장에 대한 만족도가 있으며 회사의 업무 수행도 아주 원활하다. 이들은 이미 한국의 직장에 만족감이 높은 상태이고 1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한국에서 근무하여 한국사회의 적응도 상당 수준 이루어진 상태이다.

이런 성실 근로자의 가족들이 한국에 함께 체류할 수 있게 되면, 성실 근로자들 각자의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가족과 함께 하는 일상으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얻게 된다. 그런 심리적 안정감은 직장 생활에도 영향을 미쳐 주어진 업무를 더 책임감 있고 적극적으로 수행하게 되는 원동력이 된다. 배우자가 한국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한국 생활의 어려움으로 외로움을 지적하는 비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낮은 편이다(정기선 · 변주수 2015). 그리고 가족과 함께 이주하여 살아가는 외국인이 그렇지 못한 외국인보다 훨씬 더 사회에 통합되었다(Lingl 2018; Steege Frauke Katharina 2020). 가족과 함께 지내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의무감을 더 크게 느끼겠지만 혼자 외로이 타국에서 생활할 때와는 다른 활력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차원에서도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된 업무 수행으로 인해서 노동생산성이 향상되어 기업의 이윤에 긍정적인 영향이 미치게 된다. 또한, 사업주는 외국인 근로자의 가족 동반 이주로 인해 숙련공으로 성장한 외국인 근로자와의 고용관계가 만료되는 것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나게 된다.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저출산·고령화의 현상이 뚜렷한 한국 사회에 외국인 근로자의 가족들이 입국하게 됨으로써 인구 구조의 변화에 도움을 주게 된다. 그리고 특히나 그들의 자녀가 부모 나라의 언어와 한국어를 동시에 익히게 된다면 한국에서 부모의 나라와 한국을 잇는 가교역할을 하는 인재로 성장하게 된다.

5. 결론

기존 외국인 근로자의 가족동반이주에 관한 연구는 가족 결합권에 대한 법적인 권리해석을 중심으로 그 정당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외국인 근로자 가족의 결합으로 인한 실질적인 문제점과 긍정적인 효과를 고찰하는 것으로 기존의 연구와 차별을 두고 있다. 이것은 향후 고용허가제뿐만 아니라 이민정책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행정·입법 기관 등에 시사점을 줄 것이다.

고용허가제의 기본원칙 중의 하나인 정주화 금지의 원칙은 외국인 근로자의 정주를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국내 노동시장을 안정적으로 유지되게 하며, 국가의 경제 발전 측면에서 본다면 아직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를 다문화 사회통합의 대상으로 포함을 시키고 그들과 함께하는 사회로의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개인적인 삶을 깊게 들여다보고, 포용해 줄 부분은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우리 사회가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단기 순환제라는 명목상의 이유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가족 결합권의 제한을 정당화하기보다는 실질적인 체류 상황을 고려한 가족 이민제도의 개선이 필

요하고, 이주민은 단순히 노동력이나 국가이익으로만 환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인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김지혜 2020).

이에 적어도 성실 근로 외국인에게 가족과의 결합을 수용한다면 다문화 사회통합에 기여될 것이다. 성실 근로 외국인에게 가족 동반 이주를 가능케 하는 비자 변경의 조건을 완화하여 가족 동반 허용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이 장기화가 되면 될수록 가족 이주의 필요성도 증대되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 연장과 그들 가족의 국내 이주는 필연적인 관계가 있다. 합법적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체류하는 외국인보다 국내 체류에 있어서 제약을 덜 받는 정책적, 사회적 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외국인 근로자의 가족 동반 이주로 인한 실질적인 문제점과 효과에 대한 고찰과 함께 성실 근로 외국인의 가족 결합에 관한 검토와 방안을 제시하였다,

참고문헌

- 김미경(2020). 고용허가제의 현황과 문제점 : 해외사례 분석을 통한 정책시사점,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1쪽-17쪽.
- 김석호·이병하·송영훈(2014). 가족 이민제도 해외사례 및 도입방안연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66쪽-76쪽.
- 김용환(2010). 이주근로자의 고용허가제 정착을 위한 관련법제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9-43쪽.
- 김이선·정해숙·이진숙(2015). 이주자의 가족 형성 양상과 정책 접근 방향, 한국어 성정책연구원. 43쪽.
- 김지혜(2020). 가족이민제도의 계층적 구조와 이주노동자의 가족결합권 제한 비판, 〈법제연구〉 58호, 한국법제연구원. 26쪽.
- 이연옥(2017). 외국인고용법의 원칙과 제도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99쪽-108쪽.
- 정기선·변주수(2015). 저숙련 이주노동자의 가족생활, 〈가족과 문화〉 27호, 한국

가족학회. 9쪽-16쪽.

조성혜(2019). 외국인고용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 : 규제와 보호를 중심으로, 〈서울 법학〉 27호,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69쪽-272쪽.

조은석(2016). 외국인근로자의 가족에 관한 권리 : 가족결합권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58쪽-60쪽.

최원주(2020). 국제규약에 근거한 국내 저숙련 외국인근로자들의 가족재결합권리에 관한 고찰, 〈인문사회21〉 6호, 사단법인 아시아문화학술원. 2135쪽-2136쪽.

최원주(2021). 국내 이주노동자의 가족초청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61쪽-76쪽.

최홍엽(2013). 외국인근로자의 장기간 고용과 법적쟁점, 〈노동법학〉 48호, 한국노동법학회. 445쪽-447쪽.

Ansary, Tugrul(1991). *The new UN Convention in light of the German and Turkish experience,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 Winter 1991, 25. pp.831-847.*

Arslan, Mehmet(2019). *Educational and Integration Problems of Immigrant Turkish Youth in Germany, International Journal of Curriculum and Instruction, 11(1). pp.89-100.*

Lingl, Wolfgang.(2018). *Der Familiennachzug in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Eine sozioethische Untersuchung aus migrationssoziologischer Perspektive. Springer VS. Wiesbaden. pp.37-42.*

OECD(2009). *The Labour Market Integration of The Children of Immigrants, Improving The Education Outcomes of The Children of Immigrats : A Review of Policy Options and Their Effectiveness, OECD Publishing. Paris. PP.204.*

Scott, Sam · Cartledge, Kim H(2009). *Migrant Assimilation in Europe : A transnational Family Affair,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 Spring 2009, 43(1). pp60-89.*

Steege Frauke Katharina(2020). 독일과 한국의 노동이민정책 비교 : 저숙련 노동이민자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54-55쪽.

〈웹사이트〉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https://www.immigration.go.kr/>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https://www.eps.go.kr/>

통계청(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https://kostat.go.kr/>

필자 소개

성 명 김미경

소 속 동아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국제학과 글로벌다문화전공

주 소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268, 302-2304 [우편번호] 46536

전자우편 mik6662@nate.com

Abstract

The Necessity of Extending the Sojourn Period for Foreign Workers under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and the Problems and Effects of Family Immigration

Kim, mi-kyung
(Dong-A University)

This study presents necessity of extending the period of stay through the status of sojourn and current state of foreign workers, and analyzes the necessity of family migration due to the long-term stay of foreign workers and the problems and effects associated with it. Foreign workers entering the country under “Employment Permit System” are short-term rotational replacement workers who have to return to their home countries after a short period of time. In the present, the meaning of short-term cycle replacement has faded. It is time to improve “Family Immigration System” considering the actual status of stay of foreign workers.

[Key words] Foreign workers, Migrant worker, Family reunification, Family immigration, Employment Permit system

투고일 2022. 10. 16 / 심사일 2022. 10. 27 / 심사완료일 2022. 11. 9

적대와 환대를 넘어서는 무관심의 포용, 콤다*

김준표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1. 들어서는 글
2. 적대와 환대, 타자에 대한 즉각적·적극적 관심
3. 무관심, 관심의 유예
4. 드르쌍 내부러사 콤어지는 콤다의 실천
5. 나가는 글

국문초록

이 글의 목적은 예멘 난민에 대한 다문화 한국 사회의 적대와 환대를 타인에 대한 인식과 포용이라는 측면에서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것이다. 제주의 콤다문화에서 적대와 환대의 대립을 넘어 포용의 가능성을 짚어볼 것이다. 콤다문화는 포용의 전제로 무관심을 수행한다. 이 글은 적대와 환대를 넘어 무관심이라는 배려로써 타자 인식에 선행하는 판단중지를 호소한다.

적대와 환대는 타자에 대한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관심의 표명이다. 우리는 우리가 직면했던 난민과의 만남에서 적대와 환대를 표출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제 3의 반응이 존재한다. 무관심이다. 적대와 환대는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관심의 표명이지만 무관심은 관심의 유예이다. 유엔난민기구(UNHCR 2020)에 따르면 2018년 6월 난민수용에 대한 입장을 묻는 설문에 22%가 잘 모르므로 입장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5C2A02083627).

표명이 불가하다고 하였다. 제주도민의 경우, 난민법에 맡겨두면 될일 39.6%, 잘 모르므로 입장 표명 불가 21.8%였다(전영준·김준표 2021). 이 응답들은 관심의 유예, 무관심을 나타낸다.

제주 사람들은 낯선 타자에게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드르쌍 내불라는 제주의 콧다문화에서 비롯된 것이다. 콧다문화는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스스로 자리를 잡을 수 있게 기다려야 대등한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다고 믿는 제주의 생활양식이다.

|주제에 콧다, 난민, 다문화, 적대, 환대, 무관심

1. 들어서는 글

2018년의 집단적 타자, 예멘 난민의 제주 입도는 난민 수용에 대한 찬반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적대와 환대라는 상반된 반응이 나타난 것이다. 그로부터 3년 후인 2021년에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아프가니스탄 난민에 대해서는 적대 감정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예멘 난민과 아프가니스탄 난민에 대한 한국사회의 반응 차이는 타자 인식에 대한 주체의 선이해와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예멘 난민이 말레이시아로부터 제주공항에 도착하여 집단적으로 난민 신청을 하였을 때는 급작스러운 타자의 등장이었던 탓에 이들에 대한 선이해는 예멘 출신, 말레이시아 출발, 무슬림 종교 정도에 불과하였다. 대상에 대한 주체의 무지 상태에서 맞닥뜨린 예멘 난민 집단에 대한 이해는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이었다. 삶의 터전을 잃고 삶의 뿌리가 뽑힌 채 죽음의 공포를 피해 삶을 이어나가보겠다는 살기 위해 들어온 이들을 두려운 존재로 인식하는 것이 가당치 않다는 점을 주체들도 알고 있었다. 두려움과 불안감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주체의 타자 인식은 오해(가짜 뉴스)를 생산하였다. 이들의 정체성을 가짜난민으로 규정하고 무슬림 종교 전파자로 표상한 것이다. 적대적 반응은 그 대립쌍인 환대적 반응을 오히려 촉진시키기도 하였다.

아프가니스탄 난민이 인천공항에 착륙하였을 때는 아프가니스탄을 떠나기 전부터 이들에 대한 설명이 시도되었다. 아프가니스탄 현지에서 한국 정부 활동을 지원하였던 이들이라는 점에서 타자가 아니라 우리편이라는 연대의식을 형성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우리편을 챙긴다는 의미에서 난민이 아닌 특별기여자라는 별칭이 주어졌다. 울산, 인천 등지에 정착한 이들에게는 난민 지위와 같은 장기체류자격이 보장되었다. 지역의 일부 학부모들이 우려와 염려를 제기하기도 하였지만, 이들에 대한 한국사회의 반응은 대체로 포용하는 분위기였으며 적대적 입장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예멘 난민과 아프가니스탄 난민에 대한 한국사회의 상반된 반응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예멘 난민에 대한 오해와 아프가니스탄 난민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우리편이라는 인식과 아직 우리편인지 아닌지 모른다는 인식이 타자에 대한 환대와 적대를 결정지었던 것일까? 이러한 고민이 이 글의 시작점이다. 하지만, 난민에 대한 적대적 반응과 환대적 반응 중 어느 것이 옳은 선택인가에 대한 이성적 판단을 내리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은 아니다.¹⁾ 적대의 선택이든 환대의 선택이든 나름의 근거가 있을 것이고 또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주장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2022년 6월을 기준으로 현재까지의 북한이탈주민이 33,834여명이고,²⁾ 2021년말 기준으로 결혼이민자가 168,611명, 체류외국인이 1,956,781명이며,³⁾ 1994년 이후 2020년까지 누적 난민 신청 건수는 총 71,042건이다.⁴⁾ 제주도 인구의 세 배가 넘는, 전라남도의 인구를

- 1) 이성욱(2018)은 예멘 난민 수용 반대 여론에 대하여 아우구스티누스의 사랑의 원리로 비판하였고, 신용식(2022)은 고향을 상실한 난민의 상태를 하이데거의 현존재의 해석학을 통해 재조명하며 데리다의 절대적 환대보다 하버마스의 상대적 관용이 보다 적절하다고 주장하였다. 이 외의 논문들에서도 적대 반응이어야 한다는 주장은 학술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적대 반응에 대한 비판적 성찰의 틀로 특정 이론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논지를 전개되고 있다.
- 2)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최근현황 <https://unikorea.go.kr/unikorea/business/NKDefectorsPolicy/status/latest/> (검색일: 2022년 11월 19일)
- 3)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1&tblId=DT_1B040A16&vw_cd=MT_ZTITLE&list_id=A8&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 (검색일: 2022년 11월 19일)

웃도는 대략 220만명 이상이 다문화 인구인 셈이다. 2020년 출생아의 6%가 다문화가정 출생아라는⁵⁾ 점까지 감안한다면, 한국사회는 실질적인 다문화사회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에서 다문화사회의 가치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한국사회의 단일민족 신화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한국사회의 단일민족 신화를 탈신화화하면서 사실은 한국사회가 역사적으로 다문화사회였음을 주장하면서 다문화(한국)사회의 난민 포용을 촉구하려는 것도 이 글의 목적이 아니다.⁶⁾

이 글의 목적은 예멘 난민에 대한 (다문화)한국사회의 적대와 환대를 타자 인식과 포용이라는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것이다. 적대와 환대라는 대립각을 넘어서는 포용의 가능성을 제주의 콤다문화에서 짚어보려는 것이다. 제주의 콤다문화는 포용의 전단계로 무관심을 수행한다.⁷⁾ 이 글은 적대와 환대를 넘어서는 무관심의 배려, 타자 인식 이전의 판단중지를 호소하려고 한다. 무관심은 관심 이전의 상태이며, 판단중지는 적대 또는 환대라는 정치적 행위에 선행하는 것이다.

2. 적대와 환대, 타자에 대한 즉각적·적극적 관심

학술데이터베이스 디비피아(DBpia)의 난민 키워드 검색결과에 따르면, 1979년 이후 난민 관련 연구논문들이 발표되기 시작한다. 1975년

-
- 4) 법무부, 연도별 난민신청 현황 https://www.moj.go.kr/moj/2417/sub_view.do (검색일: 2022년 11월 19일)
 - 5) 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 <2021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 2022년 11월 3일 12시 보도자료.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421620
 - 6) 한국사회의 단일민족 신화와 다문화 전통에 대한 글은 전영준(2009; 2021a; 2021b), 김준표(2021a; 2021b)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7) 제주어 '콤다'는 '폼다'를 의미한다. '콤다'의 대립어는 '짜다(내치다)'이며, '짜다'의 일반적인 용례는 '드르쌍 내볼라'이다. '저만큼 내쳐두고 가만 내버려두라'는 뜻이다. 제주의 콤다문화는 상대를 폼어 안는 콤다 이전에 상대에게 관심을 두지 않고 내버려두는 무관심의 방임을 전제로 하는 무관심의 배려를 통한 포용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준표(2020)에서 살펴볼 수 있다.

베트남에서 온 난민들을 위한 난민보호소가 부산에 설치되면서 한국전쟁의 피난민 경험으로 세계 난민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노상학(1979)은 한국으로 들어온 난민들의 오늘과 내일을 진단하고 주택, 교육, 취업 문제를 해결과제로 제시하면서 국민적인 이해를 호소한 바 있다. 1979년 이후 유엔난민기구가 6월 20일을 세계난민의 날로 선언한 2000년까지 53건의 난민 관련 학술자료가 검색되었고, 2001년부터 난민법이 제정된 2011년까지 300건, 난민법 제정(2011년 12월 29일) 이후인 2012년부터 2022년 6월까지 1,181건의 학술연구자료가 검색되었다.⁸⁾ 디비피아에서 난민을 키워드로 1,534건의 학술자료가 검색되지만, 이 중 677건이 2018년 이후의 논문들이다. 예멘 난민 제주 입도 이후 4년 동안 전체기간 44년 학술자료의 44%에 해당하는 논문이 발표된 것이다. 예멘 난민에 대한 학계의 관심이 즉각적이고 적극적이었음을 보여준다.

한국사회에서 난민신청자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한 해 300명 이상, 2011년과 2012년에 각각 1,000여명, 2013년도 1,574명, 2014년도 2,896명, 2015년도 5,711명, 2016년도 7,542명, 2017년도 9,942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다.⁹⁾ 2018년도 난민신청자는 예멘 난민을 포함하여 16,173명이다. 늘 있어왔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예멘 난민들의 난민신청에 직면하여 한국사회는 난민 수용 반대와 찬성의 담론 충돌을 일으켰다. 집단적 출현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집단적 출현이었기에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관심이 표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실 적대와 환대라는 반응은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관심의 두 방향이며, 동전의 양면과 같다.

난민에 대한 적대 반응은 낮선 타자에 대한 혐오와 두려움에 기반한다. 예멘 난민의 갑작스러운 출현을 통해서 우리는 낮선 것, 다른 것에 대한 혐오가 인류역사상 어느 시대보다 더 공고함을 절감하게 되었다

8) 난민을 키워드로 검색된 학술자료에는 사실상 난민을 주제로 다루지 않았던 논문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정확한 통계수치로 인정될 수는 없다. 예컨대 1979년에서 2000년까지의 53건 중 3건이 난민을 주제로 한 논문이 아니었다.

9) 법무부, 연도별 난민신청 현황 https://www.moj.go.kr/moj/2417/sub_view.do (검색일: 2022년 11월 19일)

(김치완 2020: 43). 서영표(2020)는 혐오의 사회적 조건이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강요된 시장맹신주의에 있다고 지적한다. 개별주체의 취약함과 불안정성은 타자와의 연대, 연대를 통한 서로 간의 인정에 의해서 완화될 수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시장맹신주의 사회가 연대와 상호인정 그리고 그것을 통해 만들어지는 자기존중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으며, 이렇게 봉쇄된 연대와 상호인정이 종교적 광신과 극단적인 정치적 열망을 통해서 왜곡된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이다(바우만 2016: 34; 서영표 2020: 145에서 재인용). 이것이 바로 극우적 포퓰리즘과 혐오의 정치가 오히려 나올 수 있는 토양이다(서영표 2020: 145).

난민에 대한 제주도민의 인식조사에 따르면, 자신의 경제 상황이 양호하다고 생각하는 계층이 난민 유입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하고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었다(전영준·김준표 2021: 146). 경제적 수준이 상대적으로 중상 이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신자유주의 시장 경쟁에 본격적으로 진입한 상태라는 점에서, 연대와 상호인정이 타자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왜곡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예멘 난민에 대한 적대 반응의 중심에 개신교 기독교인들이 자리하고 있었다(김준표 2020: 209)는 점도 마찬가지로 왜곡된 형태의 연대로 해석할 수 있다. 난민 반대 목소리의 논쟁에서 핵심은 국민과 난민의 대립이었지만 특히, 무슬림에 대한 편견과 혐오가 크게 작용하면서 난민을 낯선 타자로서 단지 불안과 두려움을 조장하는 존재로 인식했다는 점에서(김진선 2020: 25) 그러하다.

난민에 대한 환대 반응이 보편규범으로서의 인권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인권이라는 개념이 근대국민국가의 틀 안에서 국가 경계 내부의 국민과 법률적 인정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국가 경계 외부로부터 들어온 난민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윅글: 26). 법률적 인정을 위한 심사가 진행되어야 하고 심사는 선택과 배제를 동반하게 되어 있다. 난민은 오히려 국민국가의 원리를 근본적으로 흔들고 범주상의 혁신을 위한 터를 닦아주는 한계 개념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조르조 아감벤 2008: 259-260; 김진선 2020: 27에서 재인용).

경계를 넘나드는 상상력, 경계를 넘나들었던 타자 경험을 통해 자기를 인식하는 주체의 성찰이 난민에 대한 환대를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난민으로서의 자신의 자리가 바로 경계의 틈새이기에 그 틈새를 한껏 활용하고 경계를 그어놓는 금을 자유로이 넘나들고자 했던 경험이(김동운 2020: 96) 틈새를 통해 들어온 난민을 환대하고 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¹⁰⁾

난민에 대한 환대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 하나는 주체의 주인의식으로 손님을 맞이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타자로서 또 다른 타자를 만나는 것이다. 주체의 손님 맞이는 주인과 손님이라는 상대적 권력관계를 설정하고 있어서, 손님의 자리와 집 안에서의 규칙을 주인이 정한다. 손님은 주인의 배려에 감동할 수도 있고 섭섭한 감정을 품을 수도 있다. 타자로서 타자를 만나는 환대는 주인의식을 가지지 못했거나 가질 수 없었던 내부의 배제자 또는 내부적 난민이 외부로부터 들어온 같은 처지의 난민을 만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자본주의 시장 경쟁을 의식하며 경쟁자로 인식할 경우 환대가 아닌 적대를 표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주체와 타자의 만남, 타자와 타자의 만남 이외에도 주체와 주체의 만남이 가정될 수 있다. 김진혁(2021)에 따르면, 먼저 손님으로 초청 받았다가 환대의 식탁에서 자신을 주인으로 드러냄으로써 관계의 역전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한다.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초청하여 환대를 베풀었는데, 환대의 식탁에서 나그네는 자신이 하나님임을 드러낸다(창세기 18장 1-19절). 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언제부터인가 함께 동행하게 된 길동무를 초청하고 환대를 베풀었는데, 환대의 식탁에서 나그네 길동무가 부활하신 예수님임을 알아보게 된다(누가복음 24장 13-35절). 초청 당사자였던 성서의 인물들은 초청의 권리를 내려놓고 손님으로 환영받는 경험을 함으로써 주인과 손님의 관계는 역전되고

10) 이것이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이 예멘 난민의 제주 입도 직후 2019년부터 “콤다’로 푸는 제주 섬의 역사와 난민”연구를 수행하게 된 배경이기도 하다. 탐라 천 년 제주 천 년의 역사 속에서, 국가 경계 안에 포섭되면서 동시에 타자화되었던 제주 섬의 역사와 국가의 경계를 넘나들며 자신의 위치를 성찰했던 제주 사람들의 역사 속에서, 타자 경험이 배태한 제주의 콤다 문화가 난민을 환대하고 포용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로 제공될 수 있으리라 기대했기 때문이다.

베푸는 자와 받는자 사이에 내재된 권력 관계가 상대화된다고(김진혁 2021: 102). 주체의 타자화와 타자의 주체화가 발생한 것이다. 주체와 주체의 만남이 가능한 지점이기도 하다.

환대와 권력 사이의 계속된 충돌이 불가피하기에 무조건적 혹은 절대적 환대는 불가능하다(자크 데리다 1997; 김진혁 2021: 102에서 재인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리다는 이방인에게 무조건적으로 자신의 집을 내어주는 행위가 타자수용의 원리라고 강조하며, 하버마스는 주인과 이방인 사이의 만남과 긴장 사이에서 이방인을 조건적으로 환대하는 주인의 결단적 행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신용식 2022: 130). 난민과의 만남에서, 난민을 비롯한 경계 외부로부터 들어온 이방인과의 만남에서, 그렇게 국가경계의 틈새를 뚫고 월경의 상상력이 실천되는 현장에서, 난민에 대한 반응은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는가?

난민은 국가를 상실한 국민국가의 법률적 보호에서 배제된, 생존의 뿌리가 뽑힌 채 월경하는 이들이다. 보호의 울타리가 없는 난민들이기에 상대적으로 권력의 우위를 점한 상태에서 난민들을 인식하게 된다. 우리가 처한 현실 속에서 난민과의 만남은 적대와 환대라는 두 가지 상반된 반응으로 나타나며, 적대와 환대는 두 진영으로 나뉘어 충돌을 일으키기도 한다. 하지만 난민과의 만남을 적대와 환대라는 대립쌍으로만 이해할 필요는 없으며, 실제로 제 3의 반응이 존재한다. 무관심이다. 적대와 환대는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관심의 표명이지만, 무관심은 관심의 유예상태이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무관심은 유예해 두었던 관심을 표명하고 적대와 환대 어느 한편으로 기울어지게 될 것이다.

3. 무관심, 관심의 유예

유엔난민기구(UNHCR 2021)에 따르면, 난민 수용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는 2018년 6월과 2020년 11월의 시점을 기준으로 잘모름(입장 없음)이 22%에서 14%로 달라졌다. 예멘 난민의 급작스러운 출현 직후인 2018년 6월을 기준으로 난민 수용에 대하여 반대하는 편은 50%,

찬성하는 편은 29%였다. 잘 모르겠다며 찬성과 반대의 입장이 없다는 응답은 22%였다.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한 사람들이 79%에 달하지만, 즉각적인 관심 표명을 주저한 사람들도 22%나 있었다. 22%는 어느 대통령의 지지율에 버금갈 정도로 무시할 수 없는 수치이다. 이 22%의 무관심, 관심의 유예는 2년후인 2020년 11월에 14%로 줄었으며, 반대하는 편이 3%p 상승했고 찬성하는 편이 4%p 상승했다. 우리는 이 22% 무관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무관심은 종종 현실 속에서 실천을 불가능하게 하는 병적인 것으로 진단되기도 한다(손봉호 1988; 유봉인 2000; 김한승 2002; 임현영 2010; 송영훈 2015). 하지만 외부에서 들어온 소수자인 난민에 대한 무관심은 배려될 수가 있다. 물론 무관심이 무관심으로 끝나고 관계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무관심은 배려가 될 수 없을 것이다. 관심이 동반되거나 관심으로 나아가기 전 단계로서 무관심은 포용과정의 첫 단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난민과의 만남 첫 단계에서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관심으로 적대나 환대를 표명하기보다 무관심으로 일정 시간 같은 공간에서 지내볼 필요가 있다.

다문화사회에서 소수자¹¹⁾들은 눈에 잘 띄게 마련이다. 다수의 시선은 소수자에게 부담일 수 있다. 시선을 거둔 무관심이 소수자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소수자들이 그들만의 문화를 형성하지 못하고 개별 소수자로 살아가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소수자에 대한 배려는 '차이에 대한 전략적 무관심'(김대균 2011: 196)이어야 할 필요가 있다.

무관심에 대하여 칸트는 관심의 소멸이 아니라 관심에 대한 일시적인 판단 중지로 이해하였다(양지형 2019: 95). 칸트의 무관심은 무감각이나 무감정이 아니라, 공감에 의해 과잉된 인간 사랑을 억제하거나 통제하는 적절한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도덕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윌글: 99). 무관심은 감정의 동요를 나타내지 않는 일종의 냉정함이다(윌글: 99). 가라타니 고진은 인식적이고 도덕적인 관심을 팔호에 넣

11) 여기에서 소수자는 숫적으로 소수인 집단을 의미한다. 숫적인 소수가 다수보다 눈에 잘 띄인다는 것은 다수의 일반성에 비해 두드러지는 특수성에 기인한다. 하지만 시선의 무관심은 사회적 약자(minority)에게도 부담을 줄여주는 배려될 수 있다.

는 무관심이 관심을 괄호에 넣고 차이를 새롭게 발견하게 한다고 말한다(윗글: 100). 훗설의 형상학적 환원(괄호치기, 판단중지)처럼 우리가 알고 있다고 보통 생각하는 것을 유보해야 알 수 있기 때문이다(크레이브 1991: 126). 무관심은 관심의 유보이고 유예이다.

난민 수용에 대한 찬반 입장과 관련하여, 제주지역에서도 인식조사가 수행된 바 있다. 유엔난민기구의 보고서(2021)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조사 결과를 보여준 것인데, 한국리서치의 조사에서 제주지역은 별도의 표본으로 추출되지 못하고 강원지역과 함께 묶여 있었다.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에서 2020년 11월에 실시한 제주지역 난민 인식 조사 결과를 전국조사와 비교하면 <표 1>과 같다(전영준·김준표 2021: 152).

<표 1> 난민 유입에 대한 찬성과 반대

(%)

전국 (UNHCR, 2021: 15:33)			제주	
선택지	2018.06	2020.11	선택지	2020.11
잘모름 입장 없음	22	14	잘모름 입장표명어려움	21.8
반대하는 편	50	53	난민법 있어도 반대	25.4
찬성하는 편	29	33	난민법 없어도 찬성	12.8
			난민법 존중 준수	39.6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주지역의 경우 난민법 존중 준수가 39.6%, 잘모름 입장표명 어려움이 21.8%, 난민법 있어도 반대가 25.4%, 난민법 없어도 찬성이 12.8%로 나타났다. 난민법을 존중하고 준수하면 될 일이라는 응답이 39.6%로 가장 많다는 점에서, 제주도민 다수의 입장은 법률적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라면 그에 맡겨두면 될 일 아니냐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잘모르므로 입장을 표명할 수 없다는 응답 2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국 조사의 2018년 6월 22%, 2020년 11월 14%에 비해 그 비율이 줄어들지 않았다. 법률적 절차에 맡겨두자는 39.6%와 입장 표명

을 하지 않는 21.8%를 합한 61.4%는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대다수의 제주도민이 제주도에 급작스럽게 들어온 예멘 난민에 대하여 사실상 무관심을 표명한 것이다. 제주도민의 무관심이 예멘 난민들에게는 오히려 평화가 아니었을까?

4. 드르쌍 내부러사 콤어지는 콤다의 실천

제주도민의 무관심은 제주 사람들의 배타성으로 비판되기도 한다. 제주 섬 바깥에서 제주지역으로 들어와 살고있는 육지 사람들에게 제주 사람들의 특징을 물어보면 제주 사람들이 배타적이라는 말을 자주 한다. 육지 사람들이 이해한 제주 사람들의 배타성은 제주 사람들의 무관심을 가리킨다. 제주 사람들은 외부에서 들어온 타자에 대해서 즉각적인 관심을 표명하지 않고 무관심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 제주어의 ‘콤다, 드르콤다’와 ‘짜다, 드르짜다’를 비교하는 것에서부터 제주 사람들의 무관심한 태도에 대한 이해를 시도할 수 있다.

콤다와 짜다는 반대되는 뜻의 대립어이다. 콤다는 품 안으로 끌어안는 것이고, 짜다는 몸 밖으로 품 밖으로 내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제주어 콤다는 품다를 의미하고, 짜다는 내치다, 짜다를 의미한다. 몸 안으로 콤(품은) 것은 몸 밖으로 짜게 마련이다. 그런데 제주 사람들은 품 밖으로 내치면서 품어안는다. 품 밖으로 내치라는 말을 품 안으로 끌어안으라는 말보다 더 많이 사용한다. 이런 연유로 제주어 콤다는 제주어 사전에서만 찾아볼 수 있고 일상생활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게 된 반면에, 짜다는 ‘드르쌍 내볼라’는 말로 일상생활 중에 허다하게 사용된다.

‘드르쌍 내볼라’는 ‘저만큼 내쳐서 내버려 두라’는 의미이다. 신경 쓰지 말고 관심 두지 말고 내버려 두라는 말이다. 대개 이 말은 다음과 같은 용례로 사용된다.

가족 중에 한 형제가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잔뜩 상기된 얼굴로 분을 삭이지 못하고 식식대고 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으며 관심을 표하는 형제더러 어머니가 ‘거시지 마랑 드르쌍 내불라’고 소리친다. ‘괜히 신경 건드리지 말고 모른 척 내버려두라’는 것이다. 세대 차이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자식이 하는 일들이 부모 입장에서 영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많다. 자식에게 ‘넌 왜 그 모양이냐’며 야단치는 아버지에게도 어머니는 ‘거시지 마랑 드르쌍 내불서’라고 한다. ‘가만히 내버려두고 지켜보면 알아서 잘 할 텐데 왜 야단치고 그러시느냐’는 것이다. ‘드르쌍 내불라’는 말은 ‘괜히 참견하지 말고 그냥 지켜보라’는 의미로 제주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것이 제주사람들의 ‘쿰’은 (품는) 방식이고, 제주의 쿰다 문화이다.

제주 사람들은 마을에 새로 들어온 외지인을 드르쌍 내분다. 행여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접근하여 이것 저것 호구조사를 하며 관심을 표명하려고 다가갈라치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거시지 마랑 내불라,’ ‘드르쌍 내불라’고 한다. 괜히 건드리지 말고 가만 두라, 관심 끄고 그냥 두라는 것이다. 무슨 사정으로 우리 마을에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괜히 관심이 쏠리는 것을 의식하며 마음 쓰게 하지 말자는 일종의 배려이다. 마을에 들어온 외지인에게 보이는 이 첫 반응은 외지인에 대한 배척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외지인이 새 터전에 자리 잡기까지 기다리는 마음이다. 관심으로 배려하지 않고 무관심으로 배려하는 방식이 제주의 드르쌍 내불명 쿰는 문화이다. (김준표 2020: 220-221)

드르쌍 내불라고 하는 어머니의 마음은 안타까움이다. 스스로 마음을 추스르고 거뜬히 일어설 것이라는 믿음이다. 마을 사람들은 드르쌍 내불라고 하면서도 사실은 거리를 두고 지켜보면서 쿰어사 헐(품어야 할) 사람인지 아닌지를 재어본다. 스스로 내쳐진 경험이 있기에, 스스로 홀로 서고서야 권력관계의 균형을 맞추며 동등하게 쿰어지는(품게 되는) 것을 경험하였기에, 제주 사람들의 쿰다 문화는 드르쌍 내부는 무관심을 포용의 전제로 삼는다. 내쳐진 경험과 자수성가하여 동등하게 한 품 안에 서게 되는 이야기는 제주의 신화 이야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제주의 당신본풀이(신화)는 당신(당의 신)이 자리 잡게 된 근본 경위

를 풀어서 말해준다. 그 중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의 궤네깃당본풀이에는 대등한 신으로 좌정한 부모와 자식들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금백주는 바다 건너 강남 천자국에서 바다에 버려졌고 제주에 표착하여 소소소천국을 만나 혼인을 한다. 둘 사이에 태어난 여섯째 아들 궤네깃또는 세 살 때 처음 만난 아버지의 수염을 잡아당기고 가슴을 짓누르며 놀다가 버릇없는 놈이라며 바다에 버려진다. 세월이 흘러 궤네깃또는 강남천자국에서 큰 장수가 되어 백만 군사를 거느리고 제주도로 돌아온다. 천하가 요동하는 소리에 놀란 아버지 소천국과 어머니 백주또가 하녀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니, 하녀는 세 살 적에 죽으라고 무쇠석함에 넣어 바다로 던졌던 여섯째 아들이 아버지를 치기 위해 오면서 내는 소리라고 대답한다. 아버지는 무서워서 아랫 송당 마을로 도망가다가 죽어서 아랫 송당 마을의 당신이 되고, 어머니도 긴 머리를 늘어뜨리고 윗 송당 마을로 도망가다가 죽어서 윗 송당 마을의 당신이 된다. 궤네깃또는 사냥한 고기로 아버지 제사를 차리고 흰시루떡으로 어머니 제사를 차린 후에 궤네깃당의 당신이 된다.(궤네깃당 본풀이)¹²⁾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제주의 당신본풀이 품 안에 나란히 자리한 궤네깃또는 “드르쌍 내불어사 콤어지는” (저만큼 내쳐지고 나서야 동등하게 하나가 되는) 제주 콧다 문화의 한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내쳐진 타자화의 경험은 신화에서 끝나지 않는다. 제주 섬의 역사는 육지 중앙정부의 지방으로 편입되면서 끊임없이 타자화를 경험하였다.¹³⁾

이와 같이 제주 사람들에게서 콧다, 포용의 실천은 무관심으로부터 시작하여 대등한 관계로 한 울타리 안에 서는 것에 이르는 것이다. 대등한 관계가 되고 나면 적대와 환대는 의미가 없다. 한 품 안에서 나누는 품앗이 주체들로서 수놓음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 때문이다. 제주

12)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문화/역사 제주설화 일반신화 백주또 참조 (<https://www.jeu.go.kr/culture/myth/mythInfo/generalMyth/general08.htm>). 금백조(백주또)의 출생지와 관련하여서는 이현정(2018)에서, 궤네깃또 당신본풀이와 관련하여서는 서순실 심방 본풀이(2015)와 양창보 심방 본풀이(2010)에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13) 제주 섬의 타자화 역사는 양정필(2021), 전영준(2021a; 2021b), 김치완(2020; 2021), 김동윤(2020; 2022), 고성만(2022)에서 그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다.

에 들어온 예멘 난민들도 무관심의 단계를 지나 품앗이 주체로 수놓음에 참여하였다. 제주 섬을 떠나지 못하도록 발이 묶여있던 예멘 난민들도 제주 섬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을 때 마을 사람들의 무관심을 경험하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수놓음에 참여할 수 있었다.

무릉공소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공소에는 관리책임자인 공소회장이 있어요. 처음에 제가 여섯 명이 머물거라고 했는데, 사람이 많아져서 9명이 들어가야 했어요. …… 그런데 일주일도 안됐는데 회장님 전화가 왔어요. “동네에서 어떤 사람이 세탁기를 바꾸는데 아직 쓸 만하네요. 세탁기 준다는데 받아도 되겠지요?” “아이고, 그럼 받아, 받아요!” 조금 지나니까 “이 사람들 법적으로 일하는 거 허가됐나요? 동네 사람들이 이 사람들 먹을 것도 없을 텐데, 일당 주고 일 시키고 싶다는데 일 시켜도 되겠지요?” “무릉지역은 해도 돼요! 단속하는 사람 없으니까요, 알아서 하세요.” 동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나선 거지요. 나중에는 동네 젊은 사람들이랑 아침에 가서 조기축구 하는 거예요. (김상훈 외 2021: 246)

제주 문화에서 수놓음은 육지부의 품앗이를 넘어선 생활 전반에 걸친 노동력 교환을 의미한다. 국가에서는 아직 예멘 난민들의 노동할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마을 사람들이 예멘 난민들에게 먼저 돕(품)을 청하였다. 무관심의 단계, 마을 공소에 들어온 예멘 난민들을 드르쌍 내부는 단계가 지난 후에 필요를 나누고 도움을 청하는 관계가 된 것이다. 돕을 청한다는 말은 일손을 도와달라는 의미이고, 나중에 필요한 일에 일손을 내어주겠다는 의미이다. 현대 사회에 이르면서 돕을 청하고 되갚아야 할 돕을 약속하던 것이 돕을 청하면 품값을 지불하는 것으로 바뀌었어도 돕을 청하는 이가 고용주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수놓음의 기본 정신을 유지하고 있다. 예멘 난민들의 경우에는 정착하지 못하고 떠나야 할 상황을 인지하기에 미래에 내가 도와주어야 할 빛인 나의 품, 나의 일손을 비용으로 환산하여 나누어주었던 것이다. 돕을 청하고 돕을 제공하고 일당을 받는 과정에서 날

품을 제공하게 되는 낯 일꾼은 단순한 피고용자가 아니다. 낯일을 한다는 것은 다음에 낯을 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수놓음 공동체의 구성원임이 인정되는 것이다.

5. 나가는 글

우리 사회는 이미 다문화사회이다. 예멘 난민들뿐만 아니라 미얀마, 방글라데시, 에티오피아, 파키스탄, 콩고DR,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온 난민들이 우리와 함께 살고 있다. 결혼이주여성들과 산업연수생, (체류경과) 외국인노동자들까지 우리는 여기 함께 살고 있다. 다문화사회의 윤리는 콤다의 실천으로 구현될 수도 있을 것이다. 적대나 환대 이전에 무관심으로 서로에게 평화로운 상태를 만들고, 그럼으로써 시간이 지나 대등하게 품을 나누는 수놓음 공동체의 일원으로 만나는 것이 콤다의 실천이기 때문이다.

주체와 타자가 아니라 무관심을 매개로 하는 타자와 타자의 관계를 거쳐 대등한 주체와 주체로 만나는 설정은 다문화사회의 윤리적 실천을 구상할 때 도움이 될 것이다. 주체와 주체의 만남을 상상할 때 필요한 것은 언어의 소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은 다문화사회 소통의 출발선에 해당하는 언어 문제에 대한 고민을 놓치고 있다. 이중정체성, 다중정체성을 인정하는 것이 단일민족신화의 잔상을 깨뜨리고 우리 사회가 다문화사회임을 확인하는 작업이 될 수 있는 것처럼(김준표 2020), 다문화사회에서 주체와 주체의 만남은 구체적으로 이중언어를 상황 맥락에 맞게 달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함윤주 2020: 165) 또한 언어 다양성의 가치를 인식하고 존중하며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윗글: 168)함으로써 가능하게 될 것이다. 상호문화주의를 기초로 문화교육과 언어교육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처럼(신용식 2019: 122), 다문화(한국)사회에서 이중언어교육이 상호문화적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해서 필요할(윗글: 142) 수도 있다. 이에 대한 고민을 보충하는 일은 관련 연구자들의 후속연구를

기대하는 선에서 논의를 미루어둘 수밖에 없다.

예멘 난민과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두고 한국사회가 보여준 상반된 반응에 대한 고민으로 시작한 이 글은 난민에 대한 적대와 환대가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관심 표명임을 확인한 후, 한국인의 난민인식 조사와 제주도민의 난민 인식 조사에서 나타난 무관심에 주목하여, 제주 사람들의 콧다 문화가 다문화사회 윤리적 실천의 한 예가 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적대와 환대, 무관심, 포용에 대한 개념의 역사와 이론을 보다 깊이있게 다루어야 했었는데 그러지 못하였다. 후속 연구의 과제로 남겨둔다.

참고문헌

- 고성만(2022). 영연방 점령군(BCOF) 사료를 통해 본 제주 사람들의 밀항과 4·3 경험, <제주도연구> 57, 제주학회. 49~70쪽.
- 김대군(2011). 다문화사회에서 소수자 배려윤리, <윤리교육연구> 24, 한국윤리교육학회. 185~198쪽.
- 김동윤(2020). 정치적 난민과 월경(越境)의 문학: 김시중의 경우, <탐라문화> 65,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75~105쪽.
- 김동윤(2022). 제주소설의 4·3 난민 형상화 양상과 그 한계, <영주어문> 50, 영주어문학회. 269~298쪽.
- 김상훈·김영순·이응범·송영심·신강협·모하메드 사이푸·최용찬·김진선·김준표(2021). 『제주인권활동가 이야기 사람과 사람 2』,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제주출장소,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집옥재.
- 김준표(2020). 다문화 사회의 정체성 트러블과 제주의 콧다 문화, <현상과인식> 44-4, 한국인문사회과학회. 207~227쪽.
- 김준표(2021a). 경계를 넘는 이동과 함께 산다는 것, <다문화콘텐츠연구> 38,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95~119쪽.
- 김준표(2021b). 여러 전통들과 초월의 재해석: 정재식, 『한국의 종교, 사회, 윤리의 전통』(송재룡/임영빈 옮김, 2020), <현상과인식> 45-4, 한국인문사회과학회. 193~228쪽.

- 김진선(2020). 한국사회에서의 난민 인식의 문제, <탐라문화> 65,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7~37쪽.
- 김진혁(2021). 환대와 선택: 환대의 신학을 위한 예정론의 재해석, <장신논단. 53-1,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사상과문화연구원. 95~125쪽.
- 김치완(2020). 난민의 출현과 대응에 대한 철학의 문제들, <탐라문화> 65,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39~74쪽.
- 김치완(2021). 제주(濟州)·유구(琉球) 표류 난민의 신분 위장과 경계인 의식, <열린 정신 인문학연구> 21-3, 원광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9~61쪽.
- 김한승(2002). 풍요와 결식, 그리고 무관심이라는 병, <월간 샘터> 33-2, 샘터사. 40~41쪽.
- 대한성서공회(2004). <성경전서> 개역개정판.
- 서영표(2020). 현대사회의 공포와 불안, 그리고 혐오: '난민'이 문제가 되는 사회, <탐라문화> 65,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137~174쪽.
- 손봉호(1988). 현실에 무관심한 철학, <철학과현실> 1, 철학문화연구소. 46~66쪽.
- 송영훈(2015). 국제난민 문제의 특징과 경향: 인도적 위기, 정치적 무관심, <월간 복지동향> 204,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5~10쪽.
- 신용식(2019). 상호문화적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이중언어교육,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 4,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학회. 119~149쪽.
- 신용식(2022). 타문화에 대한 관용인가, 환대인가? -상호문화적 만남의 한계선으로서의 고향세계-,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 11,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학회. 127~151쪽.
- 양정필(2021). 조선 성종-중종 대 제주도 출륙 포작인 정책과 난민적 성격 고찰, <탐라문화> 67,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201~234쪽.
- 양지형(2019). 칸트의 실천철학에서 조명한 정념과 무관심 -흡스와 루소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철학논총> 98, 새한철학회. 77~105쪽.
- 유봉인(2000). '의문사'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에 '의문'을 제기한다, <인물과사상> 31, 인물과사상사. 208~211쪽.
- 유엔난민기구 UNHCR(2021). 『난민에 대한 태도 및 인식변화 결과보고서』, 한국리서치.
- 이성욱(2018). 예멘 난민 수용 반대 여론과 정치적 결정에 대한 단상 -아우구스티누스의 사랑의 원리 위에서, <한국콘텐츠학회지> 18-10, 한국콘텐츠학회. 121~133쪽.
- 이현정(2018). 제주도 구비서사물에 나타난 해상타계의 변주 양상과 의미, <한국무속학> 36, 한국무속학회. 357~389쪽.
- 임현영(2010). 정치에 무관심한 세대를 위한 정치학, <역사비평> 91, 역사비평사. 9~19쪽.
- 전영준(2009). 신라사회에 유입된 서역 문물과 다문화적 요소의 검토, <신라사학보>

- 15, 신라사학회. 161~192쪽.
- 전영준(2021a). 10~12세기 고려의 발해난민 수용과 주변국 동화정책, <제주도연구> 55, 제주학회. 27~53쪽.
- 전영준(2021b). 고려시대 삼별초 전쟁난민과 피난처, <동국사학> 72, 동국역사문화연구소. 45~83쪽.
- 전영준·김준표(2021). 제주도민의 난민 인식, <탐라문화> 67,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129~159쪽.
-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2010). 『양창보 심방 본풀이』, 경인문화사.
-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2015). 『서순실 심방 본풀이』, 경인문화사.
- 크레이브, 이안(1991). 『현대사회이론의 조명 -파슨즈에서 하버마스까지』, 김동일 옮김, 문맥사.
- 함윤주(2020). 다문화교육 정책 개선 방안 연구 -이중언어교육 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 5,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학회. 161~184쪽.
- 국가통계포털 KOSIS (검색일: 2022년 11월 19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1&tblId=DT_1B040A16&vw_cd=MT_ZTITLE&list_id=A8&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
- 법무부 (검색일: 2022년 11월 19일) <https://www.moj.go.kr/moj/2417/subview.do>
- 제주특별자치도청, (검색일: 2022년 11월 19일) <https://www.jeju.go.kr/culture/myth/mythInfo/generalMyth/general08.htm>
- 통계청 (검색일: 2022년 11월 19일)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421620
- 통일부 (검색일: 2022년 11월 19일) <https://unikorea.go.kr/unikorea/business/NKDefectorsPolicy/status/lately/>

필자 소개

성 명 김준표

소 속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주 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탐라문화연구원 [우편번호] 63243

전자우편 cumda.identity@gmail.com

| Abstract

CUMDA, Embracing Indifference beyond Hostility and Hospitality

Kim, jun-pyo

(Research Institute for the Tamla Culture, Jeju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reflect critically on the hostility and hospitality of multicultural Korean society toward Yemeni refugees. I would like to point out the possibility of inclusion in Cumda culture of Jeju island. Cumda culture carries out indifference as a precursor to inclusion. This article appeals for the consideration of indifference beyond hostility and hospitality, and *εποχή*, the suspension of judgment, before the perception of others.

Hostility and hospitality are expressions of immediate and active interest in others. When we meet refugees we face, we usually present hostility or hospitality. However, There is actually a third reaction. Indifference. Hostility and hospitality are expressions of immediate and active concern, but indifference is a moratorium on attention. 22% of Koreans' positions on refugee acceptance were in unable-to-express-position in June 2018 (UNHCR, 2020). And 61.4% of Jeju islanders did not select the pros and cons (Jeon & Kim, 2021). This means moratorium on interest, that is indifference.

Jeju people would seem not to pay much attention to the new strangers. This originated from Jeju's CUMDA culture which has been said 'Dru-ssang Nae-bula'. It has been believed in Jeju to get to be a community by standing alone in indifference.

|Key words| cumda, refugee, multicultural, hostility, hospitality, indifference

투고일 2022. 10. 31 / 심사일 2022. 11. 2 / 심사완료일 2022. 11. 16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프랑스 난민 신청(인정)자 대상 특수목적언어교육(FOS)의 변화와 의의* -Thot학교, JRS, Accueil et Avenir(환대와 미래) 다문화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장나나

(부산외국어대학교)

1. 서론
2. 연구개요
 - 2.1 연구배경 및 목적
 - 2.2. 연구범위 및 방법
3. 다문화 교육기관에 대한 고찰
 - 3.1. Thot학교
 - 3.2. JRS
 - 3.3. Accueil et Avenir(환대와 미래)
4. 특수목적언어교육(FOS)의 변화와 의의
 - 4.1. FOS의 개념과 이해
 - 4.2.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변화
 - 4.3. 디지털 전환 대응 수업의 의의
5. 결론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0S1A5B5A16084267).

Ⅰ 국문초록

본 연구는 난민 신청(인정)자의 언어 학습 권리를 강화하고 프랑스 공화국 이념에 맞는 자유, 평등, 우애의 정신을 확립하기 위해 설립된 다른 유형의 세 다문화 교육기관을 소개함으로써 FOS 수업과 관련된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새로운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교육기관의 고찰로서 최근에 급증하는 일시적인 난민 신청(인정)자의 일상생활을 위한 기본 프랑스어 교육에 주력하는 Thot학교와 국제적인 연대 NGO 단체인 JRS 프랑스, “무조건적인 환대”를 이념으로 하는 Accueil et Avenir(환대와 미래. 이하 AA학교)의 개념과 이해를 중심으로 FOS 수업의 현황과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변화된 새로운 양상을 언급하며 그 결과 예컨대 대면 수업의 중단으로 인한 문제점, 온라인 수업 실시, 디지털 플랫폼 활용 등을 종합적으로 도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끝으로 본 연구의 결과로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다문화 교육기관에 대한 발전방향으로서 FOS 수업에서 학습자 중심의 맞춤형 수업이 가능해지는 디지털 전환 수업 운영과 교육방안을 고심하고, 학습자의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기관의 지원 등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주제에 특수목적교육, 다문화교육, CASNAV, 언어-문화 프로그램, Thot 학교, JRS 프랑스, 무조건적인 환대, 디지털 전환

1. 서론

프랑스의 다문화 교육 국가기관은 1975년에 설립된 CEFISEM을 시작으로 1990년에 ZEP가 추가된 후 2002년에 CASNAV로 발전되었다(장이나 2010: 104). 학교 내에서 이민자 자녀들의 사회통합을 목표로 프랑스 전역의 학구별 지역 특성을 고려한 언어-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¹⁾

1) “CASNAV의 세 가지 기능은 이민자 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인 교수연수, 상호문화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교육방안 및 교수법 연구, 제도적인 파트너로서 소통 기능으로 구분된다.”(pp.104-105)

본 연구에서는 이민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난민 신청(인정)자의 특수목적언어교육(FOS, 이하 FOS 수업으로 표기)²⁾을 담당하는 민간차원의 다문화 교육기관을 고찰해보면서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변화인 디지털 전환 대응 수업의 상황과 의의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이는 향후 지속가능한 학습자 중심 교수법의 방안으로서 이민자의 언어-문화 교육뿐만 아니라 관련 정책 실현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2. 연구개요

2.1. 연구배경 및 목적

프랑스는 다문화 교육정책에서 다양한 층위의 언어교육³⁾을 통한 양적 및 질적인 성장을 이루어왔으나 제도권 내의 교육에 한정적이라는 문제가 제기되어왔다. 특히 이민자의 범주가 난민 신청(인정)자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프랑스어 교육의 수혜 기준에 있어 실제 학습자와 교육기관에 등록요건간의 괴리가 발생하여 민간이 주도하는 다문화 교육기관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난민 신청(인정)자의 언어 학습 권리를 강화하고 프랑스 공화국 이념에 맞는 자유, 평등, 우애의 정신을 확립하기 위해 설립된 다른 유형의 세 다문화 교육기관을 소개함으로써 FOS 수업과 관련된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새로운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FOS 수업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설명 참조. Mangiante J.-M, Parpette Ch.(2004)

3) 외국어로서 프랑스어 교육(FLE), 제2언어로서의 프랑스어 교육(FLS), 모국어로서 프랑스어 교육(FLM), 특수목적프랑스어교육(FOS) 등이 있음. Porcher L.(1995: 42)

2.2. 연구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교육기관의 고찰로서 최근에 급증하는 일시적인 난민 신청(인정)자의 일상생활을 위한 기본 프랑스어 교육에 주력하는 Thot학교와 국제적인 연대 NGO 단체인 JRS 프랑스, “무조건적인 환대”를 이념으로 하는 Accueil et Avenir(환대와 미래. 이하 AA학교)의 개념과 이해를 중심으로 FOS 수업의 현황과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변화된 새로운 양상을 언급하며 그 결과 예컨대 대면 수업의 중단으로 인한 문제점, 온라인 수업 실시, 디지털 플랫폼 활용 등을 종합적으로 도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끝으로 본 연구의 결과로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다문화 교육기관에 대한 발전방향으로서 FOS 수업에서 학습자 중심의 맞춤형 수업이 가능해지는 디지털 전환 수업 운영과 교육방안을 고심하고, 학습자의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기관의 지원 등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3. 다문화 교육기관에 대한 고찰

3.1. Thot학교

비교적 최근인 2015년에 설립된 Thot⁴⁾학교는 파리지역 난민 캠프에서 발생한 난민 신청자들의 외침인 “우리는 어디에서 프랑스어를 배울 수 있는가?⁵⁾”에 대한 응답에서 출발하였다. 난민 신청자 뿐만 아니라 난민 인정자, 망명자를 대상으로 프랑스어를 교육하고 어학 국가자격증을 취득하게 하는 학교로서 이집트의 지식과 언어의 신인 Thot에

4) Transmettre un Horizon à Tous (모두에게 지평선을 전달하기). 공동 창립자는 엘로이즈 니오, 쥐디트 아키엥, 제니퍼 르블롱임. <https://thot-fle.fr/fr/>

5) https://www.maisondesrefugies.paris/THOT-Transmettre-un-horizon-a-tous_a334.html

서 학교명이 유래하였다. 학교는 지속적인 개인 및 단체의 후원을 받고 있으며 정부(내무부), 지자체(파리시), 학계(파리아카데미) 및 전 세계 프랑스어 교육기관인 알리앙스 프랑세즈(파리-일드프랑스) 등 여러 기관과 파트너십이 형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3.1.1. FOS 수업 프로그램 현황

본 학교의 수강생 자격은 학력, 국적, 인종, 종교, 성별과 무관하며 일드프랑스 지역에 거주자로 한정하고 있다. 주당 14시간의 수업료는 7유로⁶⁾로서 교재 및 학용품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충당된다.

FOS 수업의 어학 레벨은 입문인 알파벳 학급부터 CECRL(유럽공통참조기준:학습, 교육, 평가)지침에 따른 A1반(Introductif), A2반(Intermédiaire)을 기본 목표로 일상생활에서 전혀 문제가 없는 수준의 어학 실력 향상이 교육 목적이다. 물론 프랑스 국가 학위(중등, 고등, 대학)에 진학 또는 직업을 갖기 위한 레벨의 어학 실력을 갖추는 학급도 운영하고 있다. 본 학교의 교사는 외국어로서 프랑스어 교육(FLE)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로 최대 15명 내외의 반을 맡아 한 학기 160시간의 언어 수업을 수행한다. 수업 프로그램 중에 40시간의 예술 아틀리에 수업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다.

학급의 구성은 단기반, 집중반, 특별반을 중심으로 학기 말에 국가 공인 어학 자격증인 입문 프랑스어 자격(DILF)과 프랑스어 능력 자격(DELF) 시험센터에서 시험을 실시하여 수업의 최종 성과물로 삼고 있다. 현재 40여명의 자원봉사 교사의 지도하에 2016년 이후 813명 학생이 등록했으며 DILF/DELF 자격증 취득 비율은 87%로 높은 편이다.

다음으로 본 학교는 어학교육이외에도 직업센터를 갖추고 있으며 관련 전문가인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으로 심리, 사회, 법률 문의를 할 수 있는 고충센터를 활용하고 있다. Thot학교는 2014년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이 설립한 <라 프랑스 상가쥬>(La France s'engage)⁷⁾재단에서 수여하는 사회혁신 프로젝트에 선정되어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았다.

6) 상징적인 금액임.

7) 참여하는 프랑스 재단.

끝으로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하여 2020년에는 수업이 일시적으로 중지되어 학생들의 어려움이 가중된 적이 있었다. 그러나 프랑스는 비교적 빠른 엔데믹 선언으로 인해 2021년부터 대면 수업이 재개되어 FOS 수업과 행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3.1.2. Thot학교의 의의

Thot학교가 표방하는 가치는 평등, 존중, 연대, 직업 그리고 공유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좁은 의미의 평등은 학생, 팀원, 교사 등 학교 내 구성원 간의 상호 평등 관계를 존중의 틀 속에서 유지하는 것이고 넓은 의미에서는 성별, 종교, 문화 차이를 존중하는 것이다. 둘째, 존중은 다양한 지평선에서 온 학생들을 존중한다는 원칙 하에 학생들과 책임자들의 의견, 종교, 문화 차이를 존중하는 것이다. 특히 프랑스 공화국의 가치인 정교분리원칙에 따라 학교 내에서의 종교활동은 금지되나 밖에서의 종교활동은 자유롭다. 셋째, 연대를 통해 학교 내에서는 학생 개인의 성장을 돕고 학교 밖에서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며 프랑스 사회의 난민을 시민으로서 환대하는 데 있다. 넷째, 직업의 가치는 학생이 향후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프랑스어 교육을 FOS 수업으로 구성하고 직업 분야에서 선발된 자원봉사자의 도움으로 구체적인 직업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 다섯째, 공유의 가치란 Thot학교의 강점으로서 학교 전체 구성원을 위해 상호문화를 전달하고 인류애와 지식을 공유하는 데 있다.

3.2. JRS

〈예수회 난민봉사기구〉인 JRS⁸⁾는 보호와 도움을 구하는 자인 난민과 함께하는 단체로 〈유엔 난민기구〉(UNHCR) 및 여러 구호 단체들과 협력하고 있다. 이 NGO 기구의 목표는 난민의 문화적 뿌리와 인간 존엄을 수호하면서 교육과 문화 및 문화생활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국제적인 연대를 발판으로 전 지구적인 난민의 문제에 대한 정보를

8) Jesuit Refugee Service. <https://jrs.net/fr/pays/france/> (JRS 프랑스)

〈표 1〉 JRS 프랑스 프로그램

프로그램	목표	실천과제
JRS 웰컴	빚장 열기: 지붕 제공	연계 가정에서 생활
JRS 청년	상호성	평등한 공동 활동
JRS 프랑스어 학교	배우는 기쁨	사회, 직업, 문화 통합
JRS 일자리와 연수	교육, 연수 받기	사회 출발 수단 제공
JRS 법률 동행	방향 제시, 조언, 보호	법, 사회, 행정 문제 동행
JRS 옹호	권리와 의식 고양	로컬, 국가, 유럽차원 협력
JRS 시골살이	혁신적 시골 생활	로컬·글로벌 네트워크
JRS 건강	신체·정신 건강	난민 건강문제 해답

문서화하고 분쟁해결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 현재 56개국에 지부를 두고 분쟁지역, 외국인 보호소, 도시를 벗어난 취약지역, 외딴 국경지대 등에서 발견되는 난민과 고향을 떠난 이들을 보호하고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갖게 하는 것이 주된 임무이다. 그러나 단순한 보호의 차원을 넘어서 예컨대 〈2019-2023 계획〉에 따르면 난민에게 기회를 주고 참여하게 하는 것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구체적인 실천과제로서 난민과 함께 걷기, 정의로움을 장려하기, 심리적인 웰빙을 제공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2009년에 창설된 〈JRS France〉는 수도권인 일드프랑스지역을 시작으로 현재 프랑스 전역에 40개의 도시에 지국을 두고 활동하고 있다. 난민 신청(인정)자가 겪는 사회적 배제에 대해 신뢰와 형제애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직접적인 만남에서 상호문화이해를 바탕으로 한 환대와 보호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 적십자, 프랑스 카리스타스 등 국제적인 단체 및 각 지역의 지원과 후원을 받아 파트너십으로 운영되고 있다.

3.2.1. JRS 프랑스의 프로그램 현황

총 여덟 분야의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JRS 웰컴〉은 임시 숙소를 제공하는 캠프형 난민 사업⁹⁾이 아니라 가정에서 상호 만남의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프

랑스의 생활방식에 익숙해지고 향후 사회통합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 환대의 기간과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¹⁰⁾ 둘째, <JRS 청년>은 청년 난민 신청(인정)자를 대상으로 평등 정신 아래 난민의 문화적 권리와 상호문화 공유를 실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함께 행동하기”와 “위하는 행동하기”를 목표로 표현활동(연극, 댄스, 노래, 그림, 쓰기), 스포츠(축구, 배구, 야구, 요가, 댄스), 카페에서 토론, 종교활동, 친교활동을 포함하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특히 청년 난민의 이중언어교육을 위해 아랍어 입문 강의가 개설되고 여성 청년을 위한 모임, 저녁 파티와 바캉스 활동이 실시된다. 셋째, <JRS 프랑스어 학교>는 언어를 통해 사회, 직업, 문화적인 통합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Thot학교와의 차별성은 개별화된 교수방법을 활용하여 학습자 개인 맞춤형 소수 정예 수업을 지향하는 데 있다. 프랑스어와 함께 문화 습득을 중점으로 하는 수업방안으로 10명 미만의 소규모 학급은 주당 4회의 수업에서 어휘, 문법, 발음, 일상표현을 위주로 배우고 대화, 연습문제, 시와 노래를 통해 프랑스어를 활용한다. 어학 레벨은 A1에서 B2¹¹⁾까지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노래 아틀리에에서는 발음과 문장 속 리듬 및 억양을 지도하고 분기별 신문인 “함께하면 모든 것이 가능해요”에서는 학생들이 가사를 작성하여 프랑스어와 모국어를 비교하는 상호문화의 경험을 한다. 나아가 “시와 상송의 밤”행사에서는 학생들이 프랑스의 시와 노래뿐만 아니라 자국의 것도 발표함으로써 상호문화 존중을 배운다고 할 수 있다. 넷째, <JRS 일자리와 연수>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으로서 숙소, 교육, 구직 문제를 외부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해 개별적인 조언 및 필요한 연수¹²⁾를 실시한다. 다섯째, <JRS 법률 동

-
- 9) 기존 캠프형 숙소 제공보다는 난민 신청자가 단체와 연계된 봉사자 가정에서 휴식의 시간을 갖고 가정의 편안함을 누리게 함으로써 힘겨운 난민 신청 과정에서도 삶을 계획하고 일상의 리듬을 유지하게 하기 위한 목적임.
 - 10) 난민신청과정인 9개월을 환대의 기간으로 정하고 4주에서 6주까지 한 가정에 머물러 총 여러 가정을 경험하며 난민신청자와의 개별적인 동행이 포함되어 있음.
 - 11) Delf의 단계는 A1(Introductif), A2(Intermédiaire), B1(Seuil), B2(Avancé)가 있으며 Dalf의 단계는 C1(Autonome), C2(Maîtrise)가 있음.
 - 12) 직업계 고등학교 및 특정 분야 연수 프로그램이 있고 특히, Adecco기업, Mansartis 기업 등이 튜터 역할을 함으로써 대표적인 산학협력모델로 알려져 있음.

행)은 법, 사회, 행정 문제에 대해 난민과 동행하여 방향을 제시하고 조언하며 난민을 보호¹³⁾해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섯째, <JRS 옹호> 프로그램을 실시하게 된 동기는 난민 신청자의 수당¹⁴⁾이 부족하여 별도의 비용을 요하는 일인 직업연수와 프랑스어 교육에 취약하기 때문에 지역, 국가, 유럽 차원에서 난민 옹호 활동을 한 것이다. 관련 제도를 제안하며 난민 신청자일 때부터 교육, 직업, 행정 기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예컨대 “학습을 위해 이해하기” 플랫폼은 언어정책을 바탕으로 실제적인 학습의 도구를 마련한 대표적인 사례가 된다. 또한 2014년부터 파리의 시앙스포 학교의 법학 석사 과정 학생 4~5명으로 구성된 난민통합 전략 옹호 프로그램은 관련 협정을 체결하여 효과적으로 시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곱째, <JRS 시골살이>는 현재 프랑스 리무쟁 지역의 프로그램으로 “시골에 단기 체류해보기”,¹⁵⁾ “시골에서 활동하기”,¹⁶⁾ “장기간 통합”의 세 단계별 실천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난민의 시골 정착을 돕기 위한 것으로 프랑스의 인구 분산 정책 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JRS 건강>은 2020년 11월에 시작된 프로그램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고립감과 무력감을 극복하고자 신체와 정신의 건강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바로 수업 중단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일 것이다.

3.2.2. JRS 프랑스의 의의

민간차원에서 출발한 Thot학교와 달리 JRS 프랑스는 국제적 연대 기구로서 5대 창립 정신으로 운영되고 있다. 첫째, 자유, 문화, 처한 상황을 존중함으로써 형제애를 바탕으로 난민을 만나고 동행한다. 둘째, 전문가 그룹과의 협력을 통해 활동의 효율성을 높인다. 셋째, 우리

13) 난민 신청자는 신청 과정 및 절차, 인터뷰 준비를 돕고 보조금 수령에 도움을 주며 난민 인정자의 경우는 체류증 및 관련 난민 기관에서 제공하는 행정을 수행하도록 봉사자가 동행하여 도움을 준다.

14) 주거, 식비, 교통비임.

15) 거주지가 있는 난민 신청(인정)자가 주말에만 <WWOOF France>네트워크에 소속된 가정에서 생활을 함께 하는 것임.

16) 농장을 방문하여 공동 작업에 참여해보고 거주자로서 경험해 보는 단계임.

의 차이를 인정하며 수용하고 존중하는 것과 난민의 정체성과 고유한 신념을 보장하는 것으로 다양성의 원칙을 준수한다. 넷째, 행동에 한계가 있고 겸손함을 인지하는 태도로 봉사한다. 다섯째, 혁신적인 논리와 새로운 것을 추구한다.

3.3. Accueil et Avenir(환대와 미래)

파리와 수도권을 중심으로 활동한 Thot학교와 세계적인 연대 NGO인 JRS 프랑스학교에 이어 AA 학교¹⁷⁾는 1978년 프랑스 남동부의 대도시인 리옹에서 설립되었다. 초기에는 교회의 지원으로 출발하였으며 “불안정함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옷과 양식을 나누고 교육과 행정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었다.

본 기관의 특징은 “무조건적인 환대”를 설립 이념으로 삼아 지금까지도 그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이다. 항상 오후에 문을 열면 학생들은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고 가입비, 수업료 등 일체의 비용은 무료로 운영된다.

3.3.1. Accueil et Avenir(환대와 미래)의 프로그램 현황

1980년대에는 자원봉사자의 수가 100여명에 이르렀고 1990년에 들어서 프랑스어 강의를 무료로 개설되었다. 본 학교는 리옹 대학의 외국어로서 프랑스어 교육(FLE)을 공부하는 석·박사 과정 학생들로 구성된 자원봉사자인 프랑스의 교사의 실습 기관이기도 하다. 난민 신청(인정)자, 외국인, 이민자를 대상으로 FOS 수업을 교육한다. 학교 등록을 위한 행정절차는 등록을 위한 사전 조건 없이 이름, 나이, 성별, 거주지만 기록하는 입학 원서만 작성하면 된다.

3.3.2. Accueil et Avenir(환대와 미래)의 의의

본 학교의 의의는 어학학교에서 정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학생을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학교에 올 수 있을 때 언제든지 수업을

17) <https://www.wikilleurbanne.fr/?AccueilEtAvenir>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무조건적인 환대”를 지향하는 다문화 교육 기관이라는 데 있다. 설립 이념에 따라 열려있는 학교의 문을 밀고 들어와 봉사자인 교사에게 수업을 받고 출결이 일정하지 않은 학생들을 가르치며 규격화된 평가 없이 자유로운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단체는 2007년에 교회와의 파트너십이 종결되면서 기존의 옷과 양식을 나누는 기능보다는 외국인 대상 프랑스어 교육을 중점으로 하는 기관으로 변모되었다. 오늘날은 여러 단체의 기금과 지자체의 재정 지원으로 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4. 특수목적언어교육(FOS)의 변화와 의의

4.1. FOS의 개념과 이해

FOS 수업의 개념은 기능주의 언어학의 영향을 받아 1975년 교수법에서 논의된 기능 프랑스어에서 출발한 것으로 일반 또는 문화 프랑스어와 대립되는 표현이다.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하는 특별한 언어(프랑스어)를 의미하며 의사소통, 특정한 분야 어휘, 화언이 중요하고 다른 표현으로는 도구 프랑스어, 과학 및 기술 프랑스어, 특별 프랑스어가 있다. 예컨대 포르세는 과거보다 직업적인 목적으로 프랑스어를 선택하는 학습자가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요구로 FOS 수업이 출현했음을 밝힌 바 있다(Robert Jean-Pierre 2008: 96-97).

더 나아가 학습자의 특별한 요구에 따른 강의 구성이 이루어지고 전달해야 하는 교과목 또는 주제 내용을 포함하며 교수법으로는 의사소통 접근법과 행위중심 접근법이 주로 활용되고 있다.¹⁸⁾

한편 FOS 수업 계획은 특수목적의 학습자 분석에서 출발하는데 유럽공통참조기준(CECRL)의 세부화된 언어능력을 수준 및 구체적인 역량으로 다시 세분화하여 학습자료를 구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Mangiante Jean-Marc, Parpette Chantal 2004: 37-38). 다른 한

18) Robert J.-P., Rosen É., Reinhardt Cl.(2011) 참조할 것.

편 교수계획을 세울 때 학습자의 성취 가능한 과제 활동을 적절하게 배치하고 학습자의 특수목적에 맞는 맞춤형 수업으로서 성과를 내는 목적을 성취해야 한다.

본 연구의 FOS 수업은 난민 신청(인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학습자의 조건이 명확하고 일상생활 및 오랜 난민 절차를 준비하고 인터뷰에 성공하기 위한 특수한 목적에 따라 우선적으로 언어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부가적으로는 향후 이민자로 장기간 거주할 것을 대비하여 직업과 사회 참여에 필요한 프랑스어를 지도하기도 한다.

4.2.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변화

2007년부터 프랑스는 처음으로 체류증을 획득한 이주민에게 프랑스어 강의를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프랑스에 항구적인 체류를 희망하는 외국인들을 통합하고 환대하기 위한” 목적을 선언하였다. 반면 난민 신청자는 일시적인 이주민이므로 제도적인 다문화정책에 대한 예외자로서 민간단체들과 국제적인 연대로 활동하는 NGO 기관을 통해 프랑스어 교육을 지원받고 있다.

본 연구의 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러한 민간 교육기관은 부분적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는 곳도 있고 중점과제로서 어학 국가자격증을 목표로 삼는 학교, 지역 및 지자체의 후원하에 FOS 수업을 받은 후 다문화사회의 일원으로 소속되는 장기적인 통합을 목표로 지도하는 학교 그리고 인류애에 바탕을 둔 무조건적인 환대의 원칙에 따라 자유로운 방식으로 운영되기도 한다. 실제적으로는 국가 주도형 교육기관이 아니더라도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 이루어진 수업의 중단 및 축소, 엔데믹 이후의 학습자 중심 맞춤형 수업 운영은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Thot학교의 경우는 거의 1년간 수업이 중단되었고 이후에 부분적으로 수업이 개설되어 올해는 수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들도 마스크 착용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광범위

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JRS 단체도 큰 변화를 겪었는데 대면 위주로 활동하는 〈JRS 프랑스어 학교〉는 코로나-19로 프랑스 국내 이동이 금지되었을 때 수업이 중단되었으며 다른 프로그램도 진행되지 못하였다. 이후 비교적 빠른 노마스크 환경으로 대부분의 활동이 재개되었으며 세계적인 네트워크망을 활용하여 디지털 자료 및 화상회의 기반 교육이 시도되었다. 셋째, AA 학교는 오히려 디지털 전환의 계기가 되었으며 국가적인 출입봉쇄 및 이동금지 기간에는 다른 학교들처럼 일시적인 수업 중단을 겪었으나 오늘날은 다양한 채널과의 네트워크상의 교류¹⁹⁾로 프랑스어 수업뿐만 아니라 디지털상의 다른 공유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4.3. 디지털 전환 대응 수업의 의의

지금까지 살펴본 민간 다문화 교육기관은 국가주도형이 아니라 이주민의 범위를 난민신청자, 난민인정자, 망명자 및 이민자로 확대하고 정부, 지자체, 기업의 후원과 다양한 분야의 자원봉사자의 노력으로 운영되고 있다. 예컨대 프랑스는 이러한 기관 이외에도 〈알파 네트워크〉(Réseau Alpha), 〈직업도전〉(Défi Métiers), 〈피난처 땅, 프랑스〉(France Terre d'Asile), 〈이민자 환대와 동반 사무소〉(BAAM), 〈이민자의 언어 연수〉(CREFOR), 〈일드프랑스지역의 문해 자료 센터〉(CDRI)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렇듯 프랑스는 난민법에 존재하지 않는 난민의 프랑스어 교육은 민간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접적인 지원을 한다는 특징이 있다. 동일한 맥락에서 프랑스의 원격교육²⁰⁾은 제도권 내의 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면서 다른 기관과의 협업을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FOS 대면 수업도 디지털 전환 대응 수업 방안 및 실천을 위해 장·단기적인 계획을 마련할 필요

19) <https://www.wikilleurbanne.fr/?ActuAlites>

20) 국립원격교육기관(CNED)은 1939년에 시작되어 현재는 전 세계의 다양한 학습자를 대상으로 원격 수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디지털 플랫폼에서 다른 원격교육 기관과도 협업을 통해 MOOC 수업 등 지원하고 있음.

가 있을 것이다.

최근에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교육 환경과 국제 연대 기관과의 협력이 자유로운 현실에서 FOS 수업의 경우 프랑스의 FEI와 CNED의 디지털 플랫폼, TV5 Monde 채널, FUN MOOC 등을 활용하여 디지털 자료, 교재, 자가 학습 및 자가 평가 등을 활용하는 데 의의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진행중인 디지털 전환 대응 수업으로는 JRS가 대표적인 NGO로서 다문화 프로그램 내에 상호문화 및 난민의 언어 중 비중이 큰 아랍어 입문을 제공함으로써 디지털 플랫폼 및 디지털 자료를 활용한 이중언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프랑스의 민간다문화 교육기관 중 난민 신청(인정)자를 대상으로 FOS 수업을 수행하는 세 곳을 고찰하고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디지털 전환 대응 수업으로 변화될 환경의 의의를 논의하였다.

과거 프랑스로 건너오는 이주민이 주로 정착하던 곳은 수도권 파리와 수도권 지역인 일드프랑스 그리고 아프리카발(發) 프랑스행 선박이 도착하는 마르세유와 같은 대도시였다. 최근에는 영국으로 향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도버해협 근처 소도시인 덩케르크와 칼레가 중심이며 다문화 교육기관의 물리적인 변화와 함께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FOS 수업의 디지털 전환 및 확대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끝으로 대면으로만 FOS 수업에 참여했던 전통적인 수업 방식은 2020년부터 진행된 비대면 환경으로 인해 급속하게 전환됨으로써 온/오프 라인 수업 환경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수업방안으로 더욱 확대 진행될 것이다. 이는 대면 수업 중단으로 고립감을 느낀 학습자들에게 자기주도 학습의 기회를 줄 수 있고 디지털 플랫폼상에서의 수업이 공동의 목표를 공유함으로써 삶의 지지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장니나(2010). 프랑스 이민정책에 따른 이민자 언어-문화 교육 상황과 정책에 관한 고찰, 지중해지역연구 제12권 제2호, 95-114쪽.
- Barthélémy Fabrice(2007). Professeur de FLE:Historique, enjeux et perspectives, Hachette.
- Begag Azouz(2003). L'intégration, Le Cavalier Bleu.
- Bérard Evelynne(1991). L'approche communicative:Théorie et pratique, CLE international.
- Byram Michaël(1992). Culture et éducation en langue étrangère, Hatier/Didier.
- Castellotti Véronique · De Carlo Maddalena(1995). La formation des enseignants de langue, CLE international.
- Coste Daniel(1994). Vingt ans dans l'évolution de la didactique des langues(1968-1988), Hatier/Didier.
- Courtillon Janine(2003). Élaborer un cours de FLE, Hachette.
- Cuq Jean-Pierre · Gruca Isabelle(2003). Cours de didactique du français langue étrangère et seconde, PUG.
- Dewitte Philippe(1999). Immigration et intégration, L'état des savoirs, La Découverte.
- D. Gaonac'h(1991). Théories d'apprentissage et acquisition d'une langue étrangère, Hatier/Didier.
- FIPF(2017). Le français dans le monde, n°413 septembre-octobre, CLE International.
- FIPF(2019). Le français dans le monde, n°422 mars-avril, CLE International.
- FIPF(2020). Le français dans le monde, n°429 juillet-août, CLE International.
- Galisson Robert(1980). D'hier à aujourd'hui la didactique générale des langues étrangères:Du structuralisme au fonctionnalisme, CLE international.
- Germain Claude(1993). Évolution de l'enseignement des langues:5000 ans d'histoire, CLE international.
- Hirschsprung Nathalie(2005). Apprendre et enseigner avec le multimédia
- Mangiante Jean-Marc · Parpette Chantal(2004). Le Français sur objectif spécifique: de l'analyse des besoins à l'élaboration d'un cours, Hachette.

- Porcher Louis(2004). L'enseignement des langues étrangères, Hachette.
- Porcher Louis(1995). Le français langue étrangère, Hachette.
- Robert Jean-Michel · Rosen Évelyne · Reinhardt Claus(2011). Faire classe en FLE:Une approche actionnelle et pragmatique, Hachette.
- Robert Jean-Michel(2009). Manières d'apprendre:Pour des stratégies d'apprentissage différenciées, Hachette.
- Robert Jean-Michel(2008). Dictionnaire pratique de didactique du FLE, Ophrys.
- <https://www.immigration.interieur.gouv.fr/Asile/Le-droit-d-asile>(검색일자: 2022년 7월3일)
- <https://www.legifrance.gouv.fr/>; Code de l'entrée et du séjour des étrangers et du droit d'asile(pdf 파일)(검색일자: 2021년 1월16일)
- <https://www.ofpra.gouv.fr/>(검색일자: 2022년 8월10일)
- <https://thot-fle.fr/fr/>(검색일자: 2022년 8월15일)
- <https://newsasso.fr/accueil-et-avenir/>(검색일자: 2022년 8월15일)
- <https://www.jrsfrance.org/le-projet-accueillir-autrement/>(검색일자:2022년 8월15일)
- <https://www.podcastfrancaisfacile.com/>(검색일자: 2022년 9월20일)
- <https://www.podcastfrancaisfacile.com/plan-de-cours-fle-debutant>(검색일자: 2022년 9월20일)
- <https://www.podcastfrancaisfacile.com/plan-de-cours-fle-delf-a2>(검색일자: 2022년 9월20일)
- <https://www.podcastfrancaisfacile.com/niveau-delf-b1>(검색일자: 2022년 9월20일)
- <https://www.podcastfrancaisfacile.com/podcast/liste-des-exercices-de-grammaire>(검색일자: 2022년 9월20일)
- RFI : <https://savoirs.rfi.fr/fr/apprendre-Enseigner>(검색일자: 2022년 9월20일)
- TV5 Monde : <http://apprendre.tv5monde.com>(검색일자: 2022년 9월23일)
- <https://mooc-francophone.com/cours/formation-langue-etrangere-fle/>(검색일자: 2022년 9월25일)
- <https://www.fun-mooc.fr/courses/course-v1:dgefinterieur+134003+session01/about#>(검색일자: 2022년 9월25일)
- https://www.maisondesrefugies.paris/THOT-Transmettre-un-horizon-a-tous_a334.html(검색일자: 2022년 8월10일)
- <https://jrs.net/fr/pays/france/>(검색일자: 2022년 8월10일)
- <https://www.wikilleurbanne.fr/?AccueilEtAvenir>(검색일자: 2022년 8월10일)

필자 소개

성 명 장나나

소 속 부산외국어대학교 다문화연구소

주 소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샘로 485길 65 [우편번호] 46234

전자우편 jazzinred@naver.com

Abstract

A Study of the Significance and Change of Special Purpose Language Education (FOS) for French Asylum Seekers (Acknowledgement) in the Post-Corona Era

Chang, ni-na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and the scope of immigrants and to consider the multicultural educational institutions at the civilian level that are responsible for the special purpose language education of asylum seekers (acknowledgements). In this study, we will examine the current status and trends of FOS classes with a focus on the concept and understanding of the Thot School, which focuses on basic French language education for the daily lives of the recently soaring temporary asylum seekers (acknowledgements), and JRS France, an international solidarity NGO, and Accueil et Avenir, whose ideology is "unconditional hospitality." In particular, we would like to discuss the situation and significance of the Digital Transformation Response class, which is a change in the post-corona era. This is a sustainable learner-centered teaching method in the future, which could affect not only the language-culture education of immigrants but also the realization of relevant policies.

[Key words] FOS, multicultural education, CASNAV, language-cultural program, Thot school, JRS France, unconditional hospitality, Digital Transformation

투고일 2022. 10. 16 / 심사일 2022. 10. 27 / 심사완료일 2022. 11. 9

우즈베키스탄인 한국어 학습자에 대한 연구 동향 분석*

장미선 · 이숙진 · 남은영 · 박혜란**

(거제대 · NIIED · 인하대 · 건국대)

1. 서론
2. 연구방법 및 분류 기준
 - 2.1. 연구 대상 및 절차
 - 2.2. 분류 기준
3. 연구 분석 결과
 - 3.1. 시기별 연구 동향
 - 3.2. 주제별 연구 동향
 - 3.3. 우즈베키스탄인 연구자의 연구 동향
4. 결론

국문초록

최근 국내 우즈베키스탄 유학생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 증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따라 우즈베키스탄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교육 연구 동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후속 연구 과제의 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최초로 우즈베키스탄인 한국어 학

* 본 연구는 제1 저자가 다문화사회와교육연구학회 2022년 제1차 학술대회에서 학문 후속세대 발표한 것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 제1저자: 장미선, 교신 저자: 이숙진, 공동 저자 : 남은영 · 박혜란

습자 연구가 시작된 2000년부터 2022년 4월까지의 한국어교육 연구 분야와 관련된 학위 논문과 학술지 논문을 수집하여 총 108편을 분석하였다. 기존 선행 연구의 분석 기준을 참고하고 3가지 관점으로 분류한 결과 ‘한국어교육 내용’에 대한 논문이 가장 많았으며 ‘교수 학습’ 관련 논문, ‘한국어교육 일반’에 해당하는 논문의 순으로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내 체류 우즈베키스탄인 한국어 학습자 수가 급증하는 시점 이후인 2017년부터 우즈베키스탄인 학습자와 관련된 한국어교육 연구물도 양적으로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체 분석 논문의 47%가 우즈베키스탄 국적 연구자의 논문으로 조사되었으며 주로 ‘한국문화’, ‘어휘’와 관련된 연구를 주로 하고 있다는 점이 유효적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앞으로 학습자 교수법, 학습자 오류 분석 등의 후속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주제에 우즈베키스탄인 한국어 학습자, 한국어교육연구 동향 분석, 한국어교육, 한국어

1. 서론

2021년 교육통계서비스 자료에 의하면¹⁾ 국내 체류 외국인 유학생은 모두 152,281명이며, 국적별로 구분하면 중국,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즈베키스탄인 학습자의 경우 2017년 2,667명에서 2021년 8,164명으로 약 3배 가량²⁾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인다.³⁾ 이는 1992년 이루어진 한국·우즈베키스탄의 수교와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한류 열풍과 한국에 대한 관심의 증가가 더해지며 우즈베키

1) 2021년도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유학생 현황(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KEDI)) (https://kess.kedi.re.kr/contents/dataset?itemCode=04&menuId=m_02_04_03_02&tabId=m2)

2) 2020년 9,044명이던 우즈베키스탄인 학습자는 2021년에 8,164명으로 다소 감소하였다. 이 시기에는 전체 국내 체류 유학생 수도 감소하였는데, 이는 코로나 19로 인해 국가 간 이동이 어려웠던 것이 요인으로 생각된다.

3) 우즈베키스탄인 학습자들은 2014년 728명, 2015년 992명, 2016년 1,519명, 2017년 2,667명으로 나타났다. 2017년은 학습자 비율의 급증하여 국가별 유학생 수 순위가 2016년 9위에서 2017년 5위로 올라섰다.

스탄인 학습자의 지속적 유입을 이끌었기 때문이다. 현재의 추세로 보면 앞으로도 국내 체류 우즈베키스탄인 학습자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우즈베키스탄인 학습자와 관련된 연구를 파악하는 것은 이후 연구의 초석을 다지고 효과적인 한국어교육에 대한 방향을 모색하는 데 기초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부분으로 생각된다.

먼저 특정 국가 한국어 학습자에 대한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중민(2021)에서는 2004년부터 2021년까지 학위 논문과 학술지 논문 64편을 대상으로 아랍어권 학습자를 위한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으며, 남은영 외(2019)에서는 학위 논문과 학술지 논문 총 337편을 대상으로 베트남 학습자에 대한 국내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다. 그 외에도 임지영(2021)에서는 터키인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교육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고, 박영훈(2019) 외에서는 국내 학위 논문을 중심으로 토픽모델링을 활용하여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교육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다. 이처럼 최근 한국어교육에서는 각 국가별 연구 동향에 대한 분석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어를 학습하고 있는 외국인 학습자 중 최근 증가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교육 연구 동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후속 연구 과제의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및 분류 기준

본 장에서는 연구의 대상을 규정하고 연구 절차 및 분류 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2.1. 연구 대상 및 절차

우즈베키스탄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먼저 최초로 우즈베키스탄인 학습자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 2000년

4) 최근 국호를 튀르키예로 변경하였으나 논문의 제목을 준용하여 표기하였다.

부터 현재 본 연구가 진행 중인 2022년 4월까지의 한국어교육 연구 분야와 관련된 학위 논문과 학술지 논문 중 우즈베키스탄인 학습자와 관련된 연구들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은 국내 학술지에 수록된 논문과 석사·박사 학위 논문이며 외국인 저자가 저술한 논문의 경우도 해당 연구 대상에 부합하는 경우는 분석 대상으로 인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문헌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RISS), 국회도서관’을 통해 검색하였으며 1차로 ‘한국어교육’을 검색 후, 결과 내 재검색으로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인’을 검색하여 분석 대상 연구물⁵⁾을 추출한 후 원문보기와 초록을 통해 검토하였다. 추출된 논문 중 동일 연구자가 같은 주제로 출판 형태를 달리한 논문은 한 편의 논문으로 판단하였으며 그중 한 편만을 연구 대상 논문으로 선별하였다.

이 과정을 거쳐 최종 분석 대상으로 삼은 논문은 총 108편으로, 학위 논문 61편(박사 논문 7편, 석사 논문 54편)과 학술지 논문 47편이다.

2.2. 분류 기준

우즈베키스탄인 학습자와 관련 연구를 주제별로 살피기 위해서는 연구물의 체계적 분류를 위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연구물의 분류 기준은 강승혜(2003,2017), 민현식(2009), 김석기(2010) 등에서 다루어졌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 중 주제별 분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립하고 있는 강승혜(2013)의 분류 기준을 기본으로 하여 각 국적에 따른 특성을 반영한 남은영 외(2019)와 임지영(2021)의 분류 기준을 참고하여 아래 <표 1>과 같이 재구성하였다.

5) 자료 수집을 위한 검색어는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인’과 ‘한국어교육’이므로 논문 제목 또는 키워드에 국적이 드러나지 않은 논문은 제외되었음을 밝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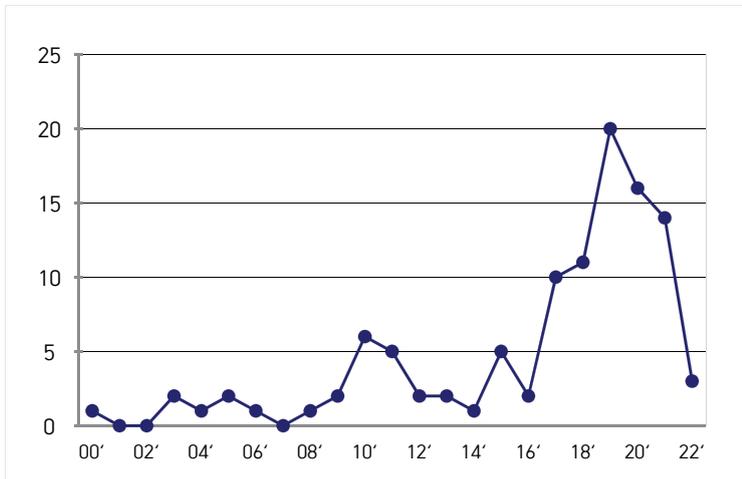
〈표 1〉 우즈베키스탄인 학습자 관련 연구 동향 주제별 분석 기준

주제 영역	하위 주제	상세 내용
한국어 교육 일반	한국어교육현황	우즈베키스탄 한국어 교육기관의 현황
	다문화	다문화 가정 관련 한국어교육
	한국어 정책	한국어 교육 정책
한국어 교육 내용	문법	문법 대조, 기능 연구 등
	어휘	어휘, 관용표현, 한자어, 외래어 교육 등
	화행, 담화	화행 비교, 담화 분석 등
	발음	발음 대조 및 교육 방안
	문화	한국 문화교육, 문화교육 현황
	문학	소설 등의 문학교육, 문학교육 현황
교수 학습	교수법일반	언어권별 교수 방안
	기능별교수	언어 기능별 교수 방안
	학습자요인	언어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언어 학습 과정에 관련된 주제
	교육과정 일반	교육 과정 개발을 위한 분석
	습득 및 학습	언어학습 과정 관련 연구,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학습자 오류 분석
	한국어 평가	TOPIK 교육 현황 및 특징
	한국어 교재	교재 분석 및 개발 방안
	웹 기반 /멀티미디어	실시간 온라인 수업
	학습자 사전	학습자용 어휘장 개발
	교사요인	교사 대상 연구/ 교사 교육 관련

3. 연구 분석 결과

3.1. 시기별 연구 동향

우즈베키스탄인 학습자 관련 연구는 2000년 처음으로 1편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후 2001년과 2002년에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2003년에 다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2017년부터 급격한 증가 후 최근까지 많은 논문이 발표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우즈베키스탄인 학습자의 유입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꾸준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 다음 그림과 표를 통해 우즈베키스탄인 학습자 관련 연구물 및 국내 체류 우즈베키스탄인 학습자 변화 추이를 살펴볼 수 있다.



〈그림 1〉 우즈베키스탄인 학습자 관련 연구물 수의 변화 추이

위의 표를 살펴보면 우즈베키스탄인 학습자 관련 한국어교육 연구가 급격히 늘어난 시기는 국내에 체류하는 우즈베키스탄인 학습자가 급격히 늘어난 시기와 동일한 2016년 이후이다. 우즈베키스탄인 학습자가

증가하면서 그들의 효과적인 한국어교육 방안의 필요성이 증가하였고 이는 곧 활발한 연구로 이어진 것이다.

3.2. 주제별 연구 동향

〈표 2〉 국내 체류 우즈베키스탄인 학습자 수 변화 추이

연도	총계	학위과정			어학 연수생
		대학·전문대학	석사 과정	박사 과정	
2013	609	171	209	31	39
2014	728	215	211	37	220
2015	992	375	256	52	267
2016	1,519	674	326	52	423
2017	2,667	1,187	443	61	925
2018	5,436	2,109	915	82	2,289
2019	7,426	3,693	1,374	111	2,167
2020	9,044	5,780	1,469	140	1,558
2021	8,164	6,335	1,073	181	502

한국어교육 주제별 분류 기준에 따라 분석한 결과 ‘한국어교육 내용’에 대한 논문이 50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교수 학습’관련 논문 42편, ‘한국어교육 일반’에 해당하는 논문은 16편으로 조사되었다.

3.2.1. 한국어교육 일반 연구 동향

‘한국어교육 일반’을 주제로 한 연구물은 총 16편으로 전체의 14.81%를 차지한다. 이를 하위 주제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어교육 현황을 연구한 논문을 살펴보면 총 13편으로 2000년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편집위원회에서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한국어 교육원과 한글학교 현황에 대해 조사한 자료를 시작으로 박찬민(2004), 한영균 외(2009), 박안토니나(2010), 안여경(2012), 윤희희(2021) 등의 연구가 있다. 한영균 외(2009)에서는 중앙아시아 3개국의 한국어교육 기관 및 교육 현황을 살펴보고 교육 주체와 교육 지

원 체계와 관련된 문제를 다루었다. 안여경(2012)에서는 우즈베키스탄에서의 한국어교육과 그 역사에 대해서 총 6단계로 세대를 구분하여 집약적으로 정리하며 교육기관 사이의 시스템 구축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하여 주장하였다. 다문화와 관련된 논문은 류민정(2013)의 다문화가정 유아 한국어교재 개발 연구를 포함한 3편이 있으며 한국어 정책과 관련한 연구는 박소연(2014)의 중앙아시아 3개국 고려인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 교육 활성화 방안을 위한 연구 1편에 불과하다.

3.2.2. 한국어교육 내용 연구 동향

우즈베키스탄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중에서 가장 활발히 진행된 분야는 ‘한국어교육 내용’으로 총 50편의 논문이 있으며 전체의 45.15%에 해당한다. 하위 주제별 편수를 살펴보면 어휘(14.81%)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문화 14편(12.96%), 발음(7.40%), 문법(4.63%), 화용 외(4.63%) 순으로 나타났다.

구자로바 딜푸자(2020)에서는 한국어와 우즈베크어의 의성어의 음운적·문법적·의미적 특성에 대해 살펴보고 한국어와 우즈베크어의 의성어를 동물, 사람, 사물, 자연에 관한 소리로 분류하고 대조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하였고, 오현진(2020)에서는 우즈베키스탄인과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능력시험 쓰기 자료와 국립국어원의 말뭉치를 활용하여 대조적인 관점에서 한국어와 서술어 구성 방법 및 사용 양상을 비교하였다. 김윤희·임은진(2020)에서는 학문목적으로 한국어를 학습하는 교양 한국어 수강 우즈베키스탄인과 중국인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한 한국 문화 적응 양상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문화 적응의 가장 큰 변인은 국적 → 한국어 급수 → 학점 → 성별 → 학습 기간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민혜경·이영희(2020)에서는 국내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11명을 대상으로 하여 그룹 인터뷰를 통해 문화 충격 사례를 외연적 문화충격, 내면적 문화충격, 기타로 범주화하였다.

이를 통해 어휘와 문화와 문학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진 반면 문법과 화용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직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3.2.3. 교수·학습 연구 동향

우즈베키스탄인 학습자와 관련한 교수·학습을 주제로 한 연구는 배명숙(2005)의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3세의 ‘열거여’ 습득 사례 연구를 시작으로 총 42편으로 전체의 38.89%에 해당한다. 교수·학습 연구 동향의 하위 주제는 교수법 일반, 기능별 교수, 학습자 요인, 교육과정 개발, 습득 및 학습, 한국어 평가, 한국어 교재, 웹 기반/멀티미디어, 학습자 사전, 교사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이들 중 가장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진 것은 습득 및 학습으로 총 16편이며 전체의 14.81%에 해당한다. 이 중 8편이 한국어 오류에 관한 연구로 습득 및 학습 분류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학습자 요인과 관련된 논문은 8편, 교육과정 일반과 한국어 교재 관련 연구는 각 4편, 교사 요인 3편, 기능별 교수와 학습자 사전 각 2편, 웹기반/멀티미디어와 한국어 평가, 교수법 일반은 각 1편으로 습득 및 학습 관련 분야에 연구가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수학습 분야에서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습득 및 학습에 관련한 연구로는 김마리나(2005)의 우즈베키스탄어를 모어로 사용하는 한국어 학습자의 조사 사용 오류 분석 등이 있으며, 대다수의 논문에서 주로 오류 분석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학습자 요인과 관련하여서는 STARKOVA ANGELINA(2020)에서 러시아어권 학습자의 읽기 전략 사용 양상을 분석하였다. 교수법 일반에 관련한 연구로는 김광일(2011)이 있는데 한국어능력시험 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하여 언어권별 정답률과 특징을 분석을 통하여 정답률이 낮은 원인을 밝히고 그에 따라 효과적인 교수 방안을 제시하였다.

〈표 3〉 주제별 분류 분석

주제 영역	하위 주제	상세 내용	편수	비율
한국어 교육 일반	한국어교육 현황	우즈베키스탄 한국어 교육기관의 현황	12	11.11%
	다문화	다문화 가정 관련 한국어교육	3	2.78%
	한국어 정책	한국어교육 정책	1	0.93%

주제 영역	하위 주제	상세 내용	편수	비율	
한국어 교육 내용	문법	문법 대조, 기능 연구 등	5	4.63%	
	어휘	어휘, 관용표현, 한자어, 외래어 교육 등	16	14.81%	
	화행, 담화	화행 비교, 담화 분석 등	3	2.77%	
	발음	발음 대조 및 교육 방안	8	7.40%	
	문화	문화교육 방안, 문화교육 현황	14	12.96%	
	문학	소설 등의 문학교육, 문학교육 현황	4	3.70%	
교수 학습	교수법 일반	언어권별 교수 방안	1	0.93%	
	기능별 교수	언어 기능별 교수 방안	2	1.85%	
	학습자 요인	언어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언어 학습 과정에 관련된 주제	8	7.41%	
	교육과정	교육과정 개발과 교육 현황	4	3.70%	
	습득 및 학습		언어학습 과정 관련 연구,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학습자 오류 분석	16	14.81%
			한국어 평가	TOPIK 현황 및 특징	1
	한국어 교재	교재 분석 및 개발 방안	4	3.70%	
	웹 기반/멀티미디어	실시간 온라인 수업	1	0.93%	
	학습자 사전	학습자용 어휘장 개발	2	1.85%	
	교사요인	교사 대상 연구 / 교사 교육 관련	3	2.78%	

3.3. 우즈베키스탄인 연구자의 연구 동향

본 연구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전체의 약 47%에 해당하는 51편의 논문이 우즈베키스탄인 연구자가 진행했다는 것이다.

〈표 4〉 우즈베키스탄인 연구자의 연구물 연도별 논문 추이

연도	학위 논문		소논문		계	연도	학위 논문		소논문		계
	석사	박사	단독	공동			석사	박사	단독	공동	
2003년	0	0	1	0	1	2013년	1	0	0	0	1
2004년	0	0	0	0	0	2014년	0	0	0	0	0
2005년	1	0	0	0	1	2015년	1	1	0	0	2
2006년	0	0	1	0	1	2016년	2	0	0	0	2
2007년	0	0	0	0	0	2017년	3	0	0	2	5
2008년	0	1	0	0	1	2018년	6	0	1	1	8
2009년	0	0	0	0	0	2019년	7	0	2	1	10
2010년	0	0	2	0	2	2020년	7	0	0	1	8
2011년	0	0	1	0	1	2021년	1	2	0	1	4
						2022년	1	0	0	0	1
2012년	1	1	1	0	3	총 편수	31	5	9	6	51

특히 2018년에는 우즈베키스탄인 한국어 학습자 관련 연구가 총 11편인데 외국인 연구자가 8편의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2019년에는 총 20편의 연구 중 외 10편, 2020년에도 총 16편의 연구 중 외국인 연구자가 8편의 연구를 진행하였다. 2018년에서 2020년까지 한국인 연구자와 외국인 연구자가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가 각 1편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2018년을 기점으로 우즈베키스탄인 연구자가 쓴 논문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대부분 석사 학위 논문이 주를 이루었으며 2021년에는 박사 학위 논문도 발간되었다. 학위 논문 수의 증가는 학위 과정 우즈베키스탄인 유학생의 증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우즈베키스탄인 연구자의 논문을 주제별로 분류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표 5〉 우즈베키스탄인 연구자의 연구물 주제별 분류

주제 영역	하위 주제	편수	편수 대 비율	주제 영역	하위 주제	편수	편수 대 비율
한국어 교육 일반	한국어교육 현황	5	9.80%	교수 학습	교수법 일반	0	0.00%
	다문화	1	1.96%		기능별 교수	1	1.96%
	한국어 정책	0	0.00%		학습자 요인	4	7.84%
					교육 과정	3	5.88%
한국어 교육 내용	문법	4	7.84%		습득 및 학습	3	5.88%
	어휘	12	23.53%		한국어 평가	0	0.00%
	화행, 담화	2	3.92%		한국어 교재	0	0.00%
	발음	0	0.00%		웹 기반/멀티미디어	0	0.00%
	문화	9	17.65%		학습자 사전	1	1.96%
	문학	4	7.84%		교사 요인	2	3.92%

연구를 주제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어교육 일반에서는 주로 한국어교육 현황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편수 대 비율을 살펴보면 약 9.8% 정도였다. Nam Victor(2006)에서는 타슈켄트 국립 니자미 사범 대학교 한국어학과의 현황을 살피고 한국어교육 발전을 위한 타슈켄트에서의 한국어교육 발전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국어교육 내용과 관련된 주제가 활발히 연구되었는데 어휘와 관련된 주제가 23.53%로 가장 많았으며 그중 9편이 한국어와 우즈베크어의 비교·대조 관련 연구였다. 그다음으로 문화 17.65%, 문학 7.84%였다. 솔레바 딜라프루즈(2019)에서는 우즈베키스탄 내에서 한국어문화교육 역사와 한국어교육 기관에서의 한국어문화 교육 현황을 정리하고 우즈베키스탄 내에서 한국어문화교육 발전 방안을 제시하였다. 교수 학습 요소에서는 학습자 요인이 7.84%, 교육과정 일반과 습득 및 학습이 각각 5.88%였다.

전체적인 연구를 살펴보았을 때 발음, 교수법 일반, 평가, 교재, 웹 기반/멀티미디어 관련 내용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웹 기반/멀티미디어 관련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우즈베

키스탄 내 인터넷 상황이 좋지 않다는 제반 상황에 의한 한계가 그 원인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한국어 평가에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는데 학습자들의 언어 실력을 점검하고 이를 교육 과정에 적용시키는 평가의 선순환을 위해서는 해당 분야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결론

우즈베키스탄인 학습자에 대한 한국어교육 연도별, 유형별 연구 동향에 대한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16년 국내 체류 우즈베키스탄인 한국어 학습자 수가 급증하면서 이에 따라 2017년부터 우즈베키스탄인 학습자와 관련된 한국어교육 연구물도 양적으로 크게 확대되었다.

둘째, 전체 분석 대상 연구물 중 47%가 우즈베키스탄 국적을 가진 연구자의 논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국내 체류 우즈베키스탄인 학습자의 경우, 학위과정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특징으로 인한 것이다.

셋째, 전체 주제별로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주제는 전체 연구의 46%인 한국어교육 내용 분야이다. 하위주제별로 살펴보면 문화, 어휘, 발음, 문법, 화용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즈베키스탄 연구자들은 발음에 대한 연구보다는 한국문화 또는 어휘 위주의 연구를 주로 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우즈베키스탄인 한국어 학습자에 대한 연구 동향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한국어교육을 위한 한국어교육계의 후속 연구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그동안 주변 아시아 국가 학습자 위주였던 한국어교육이 변화하고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한류 열풍, 한국 기업의 진출 등이 가속화되며 현재 다양한 국가에서 한국어 및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다변화되고 있는 한국어 학습자에 맞춰 국적별 한국어 학습자의 특징을 연구하고 이에 대한 효과적인 맞춤형 한국어교육 방

안을 찾으려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최근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인 학습자에 대한 효과적인 한국어교육을 위해서 우즈베키스탄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기초 연구 및 학습 방안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특히 본 연구 결과 우즈베키스탄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어휘, 문화, 발음 등의 한국어교육 내용에 대한 연구와 우즈베키어와 한국어의 대조 연구, 학습자 오류 분석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는 학습자 및 현장에서의 요구가 반영될 결과라 볼 수 있다. 따라서 해당 분야를 중심으로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이것이 실제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활용되어 양질의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교수 방법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학문 목적의 우즈베키스탄인 한국어 학습자 연구 및 교육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국내 체류 우즈베키스탄인 학습자 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어학 연수생의 비율보다 학위 과정의 의 학습자의 비중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연구 동향을 조사한 결과에서 전체 우즈베키스탄인 한국어교육에 대한 연구 중 약 47%에 해당하는 51편의 논문이 우즈베키스탄인 연구자가 진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문 목적 학습자의 수요가 많은 만큼 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참고문헌

- 강승혜(2003). 한국어 교육의 학문적 정체성 정립을 위한 한국어 교육 연구 동향 분석, <한국어교육> 4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강승혜(2011). 한국어 교사, 학습자 관련 한국어 교육 연구 동향 분석, <이중언어학> 47호, 이중언어학회.
- 강현화(2010). 한국어교육학 연구의 최신 동향 및 전망, <국어국문학> 155, 국어국문학회. 39쪽~78쪽.

- 김광일(2011). 한국어능력시험 결과 분석을 통한 언어권별 교수 방안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마리나(2005). 우즈베크어를 모어로 하는 한국어 학습자의 조사 사용 오류 분석, 호서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윤희·임은진(2020).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 문화 적응 연구, <어문연구> 104호, 어문연구학회, 33쪽~56쪽.
- 김호정·김가람(2017). 체계적 문헌 고찰을 통한 한국어 교육과정 연구 동향 분석, <한국언어문화학> 14-1호,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75쪽~110쪽.
- 구로자바 디푸자(2020). 한국어·우즈베크어 의성어 대조 연구, 경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남은영·이숙진·박혜란·장미선(2019). 베트남 학습자에 대한 연구 동향 분석, <한국언어문화학> 16-1호,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97쪽~129쪽.
- 민혜경·이영희(2020). 국내 우즈베키스탄 유학생들의 문화충격 요인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민족문화> 76호,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321쪽~350쪽.
- 박영훈·김장식·송향근(2019). 토픽 모델링을 활용한 중국인 학습자 대상의 한국어 교육 연구 동향분석, <어문연구> 47-4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451쪽~474쪽.
- 박찬민(2004). 우즈베키스탄의 한국어교육 실태와 과제, <교육마당21> 273호, 교육인적자원부, 118쪽~122쪽.
- 방성원(2011). 한국어 교재 및 교육 자료 연구 동향 분석, <이중언어학> 47호, 이중언어학회, 591쪽~626쪽.
- 배명숙(2005). 우즈베키스탄 고려인의 한국어 열거어 습득에 관한 사례연구, <論文集> 14호, 주성대학, 337쪽~348쪽.
- 솔레바 딜라프루즈(2019). 우즈베키스탄 한국어문화교육의 현황과 발전 방안, <한국학논집> 77호, 계명대학교한국학연구원, 189~215쪽.
- 신중민(2021). 아랍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교육 연구 동향 분석, <Foreign languages education> 28-4호, 한국외국어교육학회, 251쪽~269쪽.
- 오현진(2020). 우즈베크인과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서술어 사용 양상 연구, 계명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병립(2020). 하시미야국립대학교 교양 한국어 발전 방향 모색, <한국어교육연구> 13호, 한국어교육연구학회, 83쪽~120쪽.
- 이정희(2014). 중국인 학습자 대상 한국어교육 연구 동향 분석, <국어국문학> 166호, 국어국문학회, 165쪽~197쪽.
- 임지영(2021). 터키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교육 연구 동향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16호,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113~129쪽.
- 조현용(2018). 한국어 교육을 위한 한국어 교육 정책 연구, <우리말연구> 54호, 우

리말학회, 213쪽~251쪽.

최정순·윤지원(2012). 연구 동향 분석을 통해 본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 연구의 실태와 제언, <어문연구> 74호, 어문연구학회, 131쪽~156쪽.

한영균·김수경·김류보비(2009). 중앙아시아 3국의 한국어 교육, <한국어교육> 20-2호, 한국어교육학회, 303쪽~335쪽.

Nam Victor(2006). 우즈베키스탄의 한국어 교육, <語文論集> 34호, 중앙어문학회, 63쪽~76쪽.

STARKOVA ANGELINA(2020). 러시아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읽기 전략 사용 양상 비교·분석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TYANTATYANA(2018). 우즈베키스탄에서의 한국어 교육 현황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필자 소개

성 명 장미선

소 속 거제대학교 미래산업기술학부

주 소 경상남도 거제시 상동 5길 100 [우편번호]53292

전자우편 PR19109@koje.ac.kr

성 명 이숙진

소 속 NIIED

주 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91 [우편번호]13557

전자우편 sookjin15@hanmail.net

성 명 남은영

소 속 인하대학교 국제학부 KLC학과

주 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 100 5서 263호 [우편번호]22201

전자우편 yolonam@inha.ac.kr

성 명 박혜란

소 속 건국대학교 상허교양대학

주 소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120 [우편번호]05029

전자우편 luv317@konkuk.ac.kr

Abstract

The Analysis of Research Trends for Uzbekistan Korean Learners

Jang mi-seon · Lee sook-jin · Nam eun-young · Park hye-ran
(Geoje University · Niied · Inha University · Konkuk University)

In a situation where the recent increase in the number of Uzbek international students in Korea is expected to continue to increase, this study analyzes the research trend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targeting Uzbekistans, and based on the results, suggests the direction of follow-up research tasks. From 2000, when the study of Uzbek learners began for the first time, to April 2022, dissertations and journal papers related to the research field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were collected and analyzed, and a total of 108 articles were analyzed. The analysis criteria of previous studies were referenced and classified into three perspectiv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majority of theses were on 'Korean education content', followed by 'teaching and learning' related papers and 'Korean education in general' in that order. Since 2017, when the number of Uzbek Korean learners staying in Korea increased rapidly, studies on Korean language education related to Uzbek learners have also expanded significantly in quantity. In addition, 47% of the analysis papers written by researchers of Uzbekistan nationality were found to have mainly conducted research related to "Korean culture" and "vocabular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is believed that follow-up studies on learner teaching methods and learner error analysis are needed in the future.

Key words Uzbekistan learners of Korean, Analysis of trends Korean education research, Korean Language education, Korean Language

투고일 2022. 10. 16 / 심사일 2022. 10. 27 / 심사완료일 2022. 11. 9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생활적응과정에 관한 모형 -베트남 이주여성을 중심으로-

전혜경
(호원대학교)

1. 서론
 2. 선행연구 고찰
 3. 연구방법
 - 3.1. 근거이론방법(grounded theory method)의 적용
 - 3.2. 연구 참여자 선정
 - 3.3. 자료 수집과 분석
 - 3.4. 연구의 엄정성
 4. 연구결과
 - 4.1. 적응 경험의 범주 분류
 - 4.2. 이주여성의 한국사회적응경험과정에 대한 패러다임 구성
 - 4.3. 중심범주와 줄거리 묘사
 - 4.4.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생활 적응 경험과정
 5. 결론
- 참고문헌

국문초록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생활 경험과정을 통한 심리적 사회적 적응 경험을 분석하여 이들을 지지하기 위한 유용한 논점을 끌어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연구 참가자 10명을 선정하여 근거이론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결혼이주여성의 적응은 '식생활 및 생활문화의 차이', '의사소통 어려움', '차별 경험', '자신에 대한 자긍심', '주도적인 삶의 실현', '어려움을 혼자 견뎌', '비전 가짐', '남편과의 가치관 차이', '남편의 정서적 지지 부족', '시댁 식구와의 공존 어려움', '시댁 식구의 도구적 사고체계', '자녀 양육 부담감', '현실 개선을 위한 노력', '주변의 정서적 지지', '미래에 대한 긍정적 사고', '다문화 기관의 활용', '한 가족 공동체로 뿌리내림', '타인에 대한 이타적 행동'이란 18개 범주가 도출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결혼이주여성의 적응 경험과정은 첫째, 두려운 현실, 둘째, 단절된 일상, 셋째, 현실여건의 부담감, 넷째, 세상을 향한 도전, 다섯째, 주도적인 삶의 실현 단계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결혼이주여성의 지지를 위하여 적응발달 단계적 개입 방안을 제안하였다.

|주제에 결혼이주여성, 결혼이주여성의 적응, 이주여성의 문화 차이 극복

1. 서론

최근 한국사회는 시대적 변천에 따라 개방정책이 가시화되고 국내외 인구 이동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 현상의 가시화, 결혼 수급의 불균형, 산업사회 진입으로 인한 업종의 변화로 외국노동자의 증가 등 외국인이 국내 체류하는 유형이 다양한 형태로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사회현상은 외국인들이 장기체류로 이어지면서 한국사회에 큰 영향을 주어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특히 오늘날 세계화의 흐름에 따라 변화 속도가 빠르고 여러 나라와의 다양한 교류로 인하여 다민족·다문화·다인종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 그 중심에는 아시아나 다른 나라들로부터 이주해온 결혼이주여성들의 국제결혼 비중이 높아가고 있다. 국제결혼을 통한 다문화 가구 수는 2021년 346,017가구이고, 이들 중 결혼이민자 수는 285,005명으로 결혼이민자들의 국내유입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다(여성가족부 2022; 행정안전부 2020).

이런 다문화 이주여성들이 한국 남성과 결혼하는 국제결혼으로 인하여 한국사회로 진입하였으며 다문화가정의 양적인 증가에 따라 다문화

가정의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삶을 보다 적극적으로 규명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한국사회에서 정착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은 결혼하기 전에 자신이 살아왔던 생활 터전을 떠나 생소하고 문화적 차이가 있는 타국으로 이주한 사람들이다. 결혼이주여성들은 대체로 결혼중매업체를 통하여 서로 간에 교제 없이 결혼하는 경우가 많고, 결혼한 후 바로 한국에 입국한다(이채영 2015).

낮선 한국생활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은 배우자나 시부모와의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다양한 어려움과 언어 장벽 등의 문제로 인해 일상생활과 자녀 양육에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박희연 2022).

이러한 어려움에 대해 결혼이주여성의 남편과 함께 거주하는 가족은 이주여성 출신국에 대한 이해와 문화 간 차이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으며(허명준 2020), 결혼이주여성을 차별하여 단순히 한국문화에 흡수되기를 원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은 한국 여성의 결혼연령보다 상대적으로 낮으며, 배우자의 나이는 10년 이상으로 차이 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주여성들의 결혼생활에 있어서 중대한 인생 과제로는 며느리, 아내, 엄마라는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역할로 인하여 가정 내에서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다. 여기에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해야 하는 일차적인 책임자의 역할이 기다리고 있으며 자녀 양육의 어려움도 한국 생활에서 적응하는 데 힘들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김철희·조남예 2017; 이은주·전미경 2014).

이주여성들은 한국에서의 결혼생활에 적응을 잘하고 행복해지고 싶어서 결혼 결심을 하게 되었지만, 초반 결혼생활에 대한 기대감과 현실에서 직면하게 된 한국 생활은 괴리감을 인식하기에 충분하였다. 다양한 문제가 결혼생활 적응에 영향을 주게 될 가능성이 큰 실정이었다. 특히 결혼이주여성들과 한국 남성이 결혼하면서 서로 만족스러운 만남과 신뢰감 형성의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채, 지인의 소개나 결혼 중개업체를 통하여 결혼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이은주·전미경 2014).

더욱이 최근에 높아진 K-pop과 한국 드라마 등 한국문화의 인기

등에 편승한 한류의 영향은 결혼이주여성들에게 한국의 다양한 문화와 삶에 대한 심층적 이해의 부족과 외견적인 한국 생활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과 환상만을 지니고 입국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점이 본 연구에서 이주여성의 결혼생활 ‘경험 중에서 힘든 시기’와 ‘이를 극복한 경험’에 대한 질문으로 심리적 적응 경험에 대해 주목하고자 하는 이유이다. 기존의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생활 적응을 다룬 다양한 연구들은 이들의 문화적 적응이나 결혼 적응(김수진·홍창의 2017; 김현숙·현숙 2010; 박동숙 외 2019; Byoun and Leung 2015)에 대해 분석하거나 사회문화적응과 가족 내에 자녀 양육과의 관계(김미영 2017; 정명희 2013) 사이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변수를 밝히는 연구들이 있다.

또한, 결혼이주여성들이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부모 됨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김순옥·김현숙 2016; 유진희 2014; 이승민·구차순 2013; 이은아 2013) 등은 이주여성들의 결혼생활 과정에서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심리적 적응 경험을 분석해 내는 것에는 미약한 부분이 있다.

즉, 이러한 연구들은 결혼생활 적응에 대해 적극적인 행위자로서의 이주여성의 경험을 반영하지 못한 한계점을 지니고 있으며, 결혼생활 적응 경험을 통한 이주여성의 주도적인 입장의 적응 경험에 대해 깊고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삶의 다양한 적응 경험을 상황적 기반에서 살펴보는 현상학적 연구를 실행하고자 한다. 이 현상학적 연구는 상황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을 보편적 본질로 설명할 수 있다(이은주·전미경 201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생활 경험에 대한 가족 및 지역이나 사회 일원으로서의 적응 경험을 탐색하여 결혼이주여성들이 결혼생활과 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회복지사나 상담자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적응과정에 관한 모형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결혼생활 중에 힘들 때는 언제인가?
2. 결혼생활 중에 힘든 경험은 어떻게 극복하였는가?

2. 선행연구 고찰

결혼이주여성들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농촌 미혼 남성들의 국제결혼 사업을 시작으로 한국의 국제결혼이 증가에 힘입어 한국사회로의 본격적으로 진입하게 된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한 한국정부는 2000년대 후반 정책적으로 '다문화주의'를 표방하면서 다문화사회로의 본격적인 진입을 준비하게 되었다(이은주·전미경 2014; 박동순 외 2019)

결혼이주여성들의 출신 국가로는 필리핀, 베트남, 중국 등이라는 점에서(여성가족부 2022), 이들은 자신들이 갖지 못했던 사회적, 경제적 위치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발판이 될 수 있었다. 이런 점이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있어서 국제결혼은 자신을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제공되는 계기가 되고 자신들이 살아온 생활보다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사회 등 여러 가지 삶의 환경이 나아지기를 바라면서 한국사회로의 이주를 희망 한다(서정원 2018).

이러한 기대와 다르게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생활에서 심리적, 사회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수진·홍창의 2017).

결혼이주여성들의 한국생활에서 힘든 점을 분석한 연구들에서는 경제적 어려움, 언어소통의 어려움, 사회적 차별, 문화적 차이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여성가족부(2022) 조사에서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첫 번째가 언어문제(22.9%)이고, 다음은 경제적 어려움(21.0%), 외로움(19.6%) 순으로 나타나 이를 증명해주고 있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은 빈곤한 나라에서 왔고 낮은 교육수준을 가졌다는 편견 등의 부정적인 이미지는 그들의 자녀에게까지 악영향을 미

칠 수 있다(이승민·구차순 2013).

결혼이주여성의 자녀는 외국인 엄마로 인하여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경험하면서 또래 친구들에게 집단 따돌림을 당하기도 한다(김경자 2008). 결혼이주여성의 자녀들은 언어발달 지체 및 문화부적응 등으로 인한 학교 수업에 대한 이해력에서 낮고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행동하거나 반대로 폭력성을 드러내는 보이는 등 정서적으로도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다(조영달 2006). 결혼이주여성들의 결혼생활에서 자녀 양육에 대한 과제는 가족 체계 내에서 수행하는 정신적이고 신체적으로 매우 복잡한 상호작용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Byoun and Leung 2015). 이러한 과정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의 결혼생활 적응 경험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까지의 결혼이주여성의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고미숙의 연구(고미숙 2019)에서 이주 동기는 경제적인 이유와 한류의 열풍의 영향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에서 생활하는 지인들에 대해 부러움이나 결혼을 하면 잘 살 수 있게 되고 가족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국제결혼을 결심하게 된다.

박수정(2018)의 생애사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이주 동기는 본국의 가족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 외에 이혼에 의한 현실 도피성, 사랑과 연애라는 다양한 동기가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지영의 연구(2019) 결과에서 결혼이주여성이 국제결혼을 하기 된 동기로 경제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위해 자신의 삶을 독립적으로 설계하고 자율적인 삶을 살아가려는 행위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였다(구세롬미 2022).

이러한 질적 연구들이 결혼생활 과정에서 부부, 부모 자녀 관계, 시댁 식구들이나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심리적 사회적인 적응 경험을 분석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통하여 결혼이주여성들의 국제결혼을 하게 된 동기에서부터 다양한 어려움 등에 대한 관점이 한쪽으로 치우친 것을 인지하고 이러한 이론적 편견들이 연구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하면서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생활 적응 경험

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이후 분석을 편향되지 않도록 탐색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들의 다양한 생활영역의 복합적인 특성들을 고려하여 어떤 경로로 한국생활에 적응할 수 있었는지, 힘든 시기에 대한 질문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든 시기에 어떻게 극복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결혼이주여성들의 한국생활 적응 경험에 대한 경로를 파악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3. 연구방법

3.1. 근거이론방법(grounded theory method)의 적용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생활 적응 경험에 관한 연구로 결혼생활을 경험하는 당사자가 그들의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간적 공간적 맥락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드러내는 실존이다. 이러한 방법은 시간의 경과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단계에 중점을 두는 대표적인 질적 연구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근거이론 방법(Glaser & Strauss 1967)을 선택하고자 한다.

근거이론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경험되는 사회상황에 관하여 그 단계에 대한 의도를 끌어내는 것으로, 이러한 사회상황이 어떠한 현상적 조건과 시간적 경과에 따라 어떻게 역동적으로 펼쳐지는가에 중점을 두는 과정 연구로서 강점이 있다(박동숙 외 2019; 임해영·이혁구 2014).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일련의 구조적 분석 절차를 통하여 어떤 상황을 귀납적으로 분석하면서 이를 통하여 경험적 존재 이론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근거이론 방법(Strauss and Corbin 1998)이 본 연구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3.2. 연구 참여자 선정

본 연구의 참여자 선정은 먼저 결혼이주여성으로서 결혼 7년차 이상의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그 까닭은 결혼 7년 차 이상의 결혼이주여성들은 결혼생활 전반적인 과정을 통하여 힘겨운 고비를 넘기면서 한국생활에서 안정화시기로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남편과 시댁 식구들과의 상호작용 및 자녀 양육의 전반적인 과정을 통하여 한국생활에서 7년 이상의 결혼생활을 해왔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이주여성이 결혼생활을 하면서 한국어로의 의사소통이 가능한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 참여자의 나이나 직업 및 학력 등에 제한을 두지 않으면서 선정하였다.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이론적 표본추출 방법 중 하나인 '평판적 사례선택 방법(Reputational Case Selection)에 의해 다문화 기관 상담전문가에게 결혼이주여성 4명을 추천받았다. 이 평판적 사례선택이란 결혼이주여성을 지원하는 상담전문가에게 이 연구의 참여자 선정 조건에 부합하면서 인터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참여자들을 추천받는 방법이다.

그리고 결혼이주여성 6명은 연구자가 다문화 책임교수로 있으면서 강의하는 학과목의 다문화 이주여성 학생 중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생활 연구에 대한 설명을 한 후, 직접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희망한 학생 중에서 연구에 적합한 학생을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이를 통하여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한 후 참여자들의 동의를 얻어서 최종 선정하였다. 연구에 선정된 참여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

(N=10)

Partici- -pants	연령	남편 나이	본인 직업	남편 직업	결혼 기간	교육 수준	자 녀 수	가족거주 관계
1	29	48	주부	건설업	7년	대학재학중	2	부부, 친정어머니 아버지, 자녀
2	28	49	주부	버스기사	7년	대학재학중	2	부부, 친정어머니, 자녀
3	32	51	주부	화물차운전	11년	대학재학중	2	부부, 자녀
4	25	53	주부	샤사업	12년	대학재학중	2	부부, 친정어머니, 자녀
5	32	45	카페 메니저	건설노동자	12년	대학재학중	2	부부, 시어머니, 자녀
6	31	48	다문화 센터	전기기술자	11년	대졸	2	부부, 자녀
7	40	55	이주 여성 상담사	화물차운전	8년	대졸	2	부부, 친정부모, 자녀
8	37	66	주부	화물차운전	15년	고졸	2	부부, 자녀
9	31	55	설계사	사업	8년	대학 재학중	3	부부, 자녀
10	34	54	학생	농업	11년	대학 재학중	2	부부, 자녀

3.3. 자료 수집과 분석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생활을 통한 경험은 대단히 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 간의 믿음이 형성되지 않으면 이주여성들의 마음을 심도 있게 살펴보기 어렵다. 이러한 측면에서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와의 신뢰감 형성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추천을 받거나 연구자의 강의를 듣는 연구 참여자들과의 예비 면담을 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을 위한 본격적인 1:1 면담은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약 10개월 정도에 걸쳐 이루어졌다. 연구 참여자들은 1인당 120분 이상 정도의 인터뷰 시간을 가졌고, 2회씩

개별 면담으로 진행하였다. 면담 이후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 면담과 직접 만나 추가로 자료를 확보하였다.

인터뷰 내용은 초반 면담에서는 일반적인 질문을 통하여 일반적 특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 참여자와의 신뢰감을 형성하였다.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와의 신뢰감이 형성되고 난 후에는 연구 주제와 관련된 질문을 하여 초점화하였고 자료의 개념과 범주화를 진행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3회 이상 읽으면서 한 개인이 한 말의 내용을 하나의 단위로 하여 단락을 분석하였다. 먼저 연구 참여자들의 인터뷰에서 공통된 내용을 모아서 연구에 필요한 내용을 원자료 그대로 작성한 후 개념으로 분류하여 기록하였다. 기록된 자료를 개념으로 분류된 내용에 제목을 작성한 후 각 개념을 분류하고 비교하여 작성하였다. 개념들을 생성할 때는 주체와 객체와의 관계나 사건의 여러 차원 등을 고려하면서 논리적으로 중첩되지 않도록 분류하여 개념-하위범주-범주-패러다임 요소를 도출하였다.

3.4. 연구의 엄정성

질적 연구방법에서의 엄정성은 질적 연구방법을 통하여 얻은 연구결과와 결과 해석을 신뢰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즉 신뢰성의 확보에 관한 것을 말한다.(최미경 2018; Lincoln and Guba 1985)

질적 연구에서 신뢰성 보장을 위한 일치된 기준은 없지만 본 연구에서는 보편적으로 알려진 Padgett(Trauss and Corbin 1998)이 제안한 엄정성 확보 전략을 활용하였다.

첫째, 연구 참여자들과 긴 시간 동안의 걸친 관계 형성(prolonged engaged)을 통하여 연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다. 이는 질적 연구의 엄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형적인 접근 방식으로 현장에서 긴 시간 동안에 걸쳐 이루어지는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 간의 관계가 연구 참여자의 대응성을 감소시킬 수 있고 진정성 있는 자료를 이끌어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들의 일상을 함께 하기 위하여 그들의 소그룹 생일 파티나 아기 돌잔치에 참여하는 등 연구 참여자들과의 관계 형성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이러한 노력은 연구 참여자들에

게 신뢰감을 줄 수 있었고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연구 참여자들은 편안하면서도 진솔하게 인터뷰에 응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은 연구자가 다문화 이주여성의 책임교수로 재직하면서 다문화 이주여성들을 상담하고 강의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둘째, 본 연구를 위한 지지집단을 활용하였다. 질적 연구에서 지지집단은 정서적인 지지를 받을 뿐만 아니라 긴 시간에 걸친 연구의 과정에서 정당성을 유지할 수 있고, 연구 참여자의 삶에 깊게 관여하거나 자료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연구의 논점과 방향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자원이다.

본 연구자의 동료 교수 중 질적 연구방법을 전공한 동료 교수 1인을 포함하여 다문화 이주여성을 10여 년간 상담한 다문화센터의 상담사, 법원에서 10년 이상 상담활동을 한 전문가로부터 자료 수집과 분석을 하는 동안에 주기적으로 협의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수용하여 연구의 엄정성 확보에 노력하였다.

셋째, 연구 참여자에게 분석한 작업을 확인받기 위하여 재접촉하는 과정을 거쳤다.

연구 참여자를 통하여 재확인하는 작업은 연구의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작업이다. 본 연구에서 연구의 신뢰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터뷰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문맥이 어색한 경우에는 연구 참여자에게 연락하여 약속한 후 이루었다. 즉, 학교에서 만날 경우에는 연구 참여자가 수업이 끝난 후에 연구자의 연구실에서 만나거나 학교 밖의 다문화센터에서 분석 작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생활 경험과정의 질적 연구로, 연구자의 윤리적 인식과 연구 참여자에 대한 윤리적 배려는 연구 과정 동안에 지속되어야 할 요소이다. 따라서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들의 면담 내용에 대한 비밀유지와 사생활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연구 참여자들이 만남의 장소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에게는 연구에 대한 목적과 내용을 설명하고 익명성과 비밀보장, 인터뷰 내용에 대한 녹음, 구술 자료는 학문적인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한다는 것, 본 연구를 마무리하면 바로 폐기처분 할 것이라는 내용 등을 안내하였다.

4. 연구결과

4.1. 적응 경험의 범주 분류

〈표 2〉 적응과정에 관한 패러다임 요소와 범주와의 관련

적응 경험	하위범주	범주	패러다임 요소
베트남은 아침을 간단하게 사 먹음 음식이 입에 안 맞아서 힘들었음 김장하는 것이 힘들었음 매일 아침에 밥을 차려야 해서 힘들	음식문화 차이에서 오는 불편함	식생활 및 생활문화의 차이	원인적 조건 (causal condition)
겨울 날씨가 너무 추워서 힘들었음 집안일을 안 하는 남편 혼자서 집안 일을 다함	생활문화의 차이		
베트남에서는 출산 후 2~3개월 일 안 함	출산문화의 차이		
베트남에서 결혼비용은 남자가 다함 한국에서는 결혼비용을 부분적 부담	결혼문화의 차이		
고집 센 시어머니 외국 며느리에 대한 이해 부족 함께 사는 사람에 대한 이해 부족	시부모의 이해 부족	의사소통 어려움	
서투른 언어에 대한 비난 한국말을 몰라서 너무 힘들 언어 불소통으로 차별받을 때가 있음	언어소통의 어려움		
임신 중 섭취 어려운 음식으로 고통받음 국적 취득해도 차별의식 남음 늘 나는 외국사람이라는 의식을 갖게됨	차별의식의 경험	차별 경험	
외국인이라고 무시하는 태도 보임 업무 중 한국말의 서투름에 무시당함 외국인이라고 집단 따돌림 경험 직장에서 힘든 일만 시킴	한국생활의 어려움 호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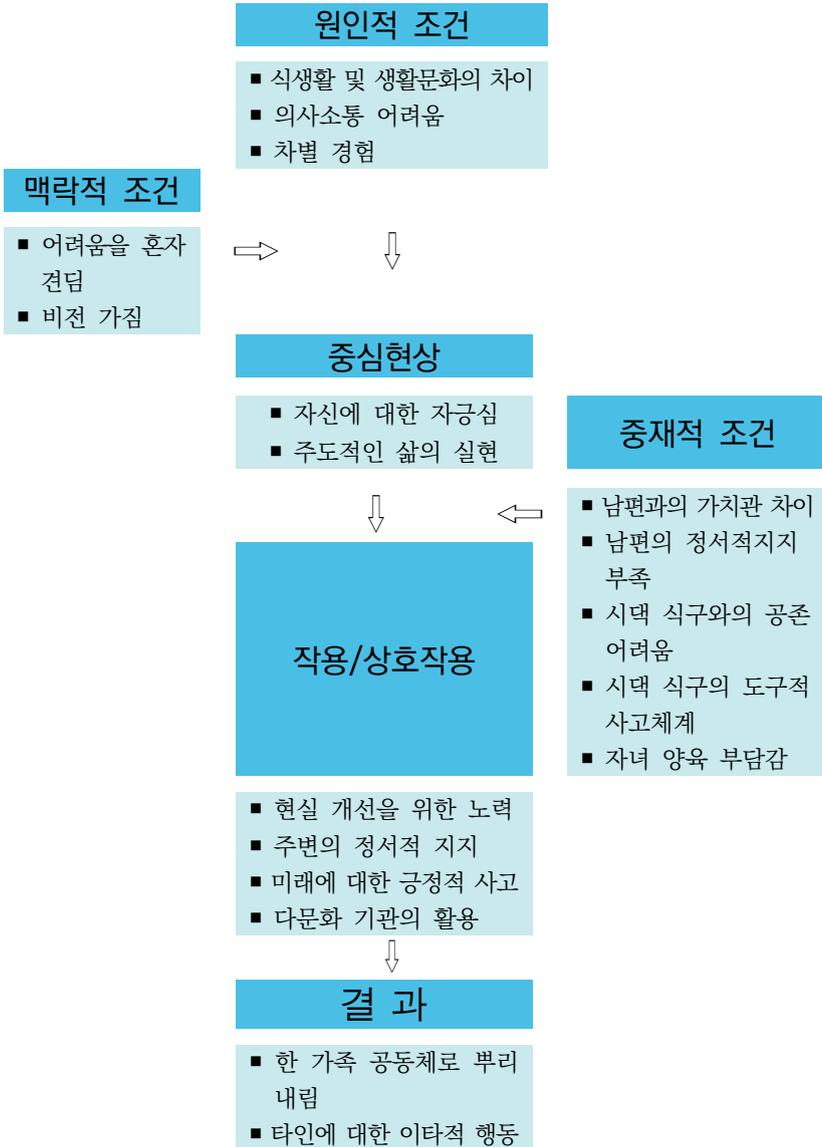
적응 경험	하위범주	범주	패러다임 요소
두 나라 언어 사용 업무활용 편함 방학 활용 베트남 언어 연수 용이 자녀의 베트남어와 한국어 혼용사용	이중언어 활용 의 장점	자신에 대한 자긍심	중심현상 (phenomenon)
베트남어 자장가나 노랫말을 계속 들려줌 베트남어를 널리 알고 싶음 여성의 날 등 베트남 문화 적용하고 싶음	자국 문화에 대한 애정		
남편에게 어린이집 운영을 요구함 통역사가 되고 싶음 취업하기 위한 자격증 취득에 노력	자신의 꿈 실현을 위한 노력	주도적인 삶의 실현	
대학 다닌다는 자부심이 생김 학교에 가서 공부할 수 있어서 좋음 자녀가 엄마가 대학교에 다닌다고 좋아함	배움에 대한 자부심		
엄마가 공부하는 모습 보여주고 싶음 아이들의 훌륭한 부모가 되고 싶음 아이에게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 주고 싶음	당당한 부모가 되고 싶음		
외롭거나 힘들 때 어려움을 홀로 견뎌 가족 행사에서 소외 당하면서 참음 남편 부재 시 외로움 불안감 느낌	외로움을 혼자서 견뎌	어려움을 혼자 견뎌	맥락적 조건 (contextual condition)
스트레스 받을 때 혼잣말을 자주 함 속상할 때는 혼자서 삭혔음	외로움 극복 방법		
가족과 잘 살아서 행복해지고 싶음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잘 살고 싶음	행복하게 살고 싶음	비전 가짐	
가난을 극복하고자 오게 됨 잘 살고 싶은 희망을 갖고 있음	이주하게 된 동기		
남편이 가정사에 상의 없음 함께 외식한 경험 없음 용돈을 주는 데 너무 인색함	남편의 독단적 태도	남편과의 가치관 차이	중재적 조건 (intervening condition)
신랑이 말과 행동의 차이가 많음 양보하거나 이해해주지 않고 이기적임 남편은 경제적 어려움에 책임을 못 느낌	남편과의 가치 관의 차이		

적응 경험	하위범주	범주	패러다임 요소
감정이 상한 상태를 몰라 줘 잘해주면 좋겠음 고맙다 등의 감정적 표현이 없어 서운함	남편의 감정적 지지 부족	남편의 정서적 지지 부족	
화가 나 있어도 관심 없음 감정 표현이 없는 남편 여자 입장을 너무 몰라줌	남편에게 진정한 소통을 원함		
시부모의 치매로 힘듦 시부모 모시는 것이 힘들었음 시부모 부양을 우리 부부에게만 맡김	시부모 부양에 대한 부담감	시댁 식구 와의 공존 어려움	
시댁 식구들은 항상 자기 위주로 함 시댁 식구들과 함께 생활하면 불편함 시댁 식구들에게 눈치 보고 조심하게 됨	시댁식구 공존 부담감		
신뢰 없는 언어사용에 상처받음 외국에서 온 사람이라서 믿지 못함 혼자서 행동하지 못하게 제약함	신뢰성 없는 관계 문제	시댁 식구의 도구적 사고체계	
시댁 식구들의 자녀생성의 독촉 시댁 식구들의 노동적 가치관	자녀생성에 도구적 시각		
나의 실수가 자녀교육에 영향 줄까 걱정함 한국 사람보다도 잘해야 한다는 강박감	자녀 양육의 스트레스	자녀 양육 부담감	
학교생활의 차별 대우 강박감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려야 하는 부담감	학교생활의 차별 불안		
베트남어로 된 학습지도메뉴얼 부족 한국의 공부방법이 너무 달라서 힘들 아이들의 공부에 대한 질문에 대답 못 함	학습방법 접근에 대한 어려움		
심리적 부담으로 상담받음 다문화센터에서 상담받음	심리상담 받은 경험	현실 개선 을 위한 노력	
노래로 스트레스를 풀었음 그림을 그리면서 그리움을 달랠	취미생활로 스트레스 해소		
커피숍, 빵집에서 일함 자녀 학비에 보탬	가정경제에 조력함		

적응 경험	하위범주	범주	패러다임 요소
친구들이 의지가 됨 주변의 지인들과 함께 고민 나눔	지인들과의 고민나눔	주변의 정서적 지지	
친척들의 도움을 받음 어려운 일 생기면 친척들과 상의	친척들의 도움		
대학 다니는 것에 자긍심을 느낌 미래를 위해 공부함	미래 생활에 대한포부	미래에 대한 긍정 적 사고	
운전면허 등 자격증 취득 생태과정, 다문화교육과정 공부	미래를 위한 구체적 접근	다문화 기관의 활용	
다문화센터에서 한국말과 요리 배움 다문화센터에서 한국어 배워서 소통함	언어교육의 효과		
다문화센터에서 생활의 도움 받음 다문화센터의 도움으로 한국생활 적응에 유용	다문화 기관의 도움		
다문화센터에서 친구 만남 다문화센터에서 인간관계 형성 도움이 됨	인간관계 형성 에 도움	한 가족 공동체로 뿌리내림	
시어머님이 용돈 주심 아기도 잘 봐주시어 시어머님을 좋아함 딸처럼 잘해주심	시부모의 긍정 적인 도움		
남편이 든든한 힘이 됨 남편이 가정적이어서 좋음 남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지지해줌	남편에 대한 긍정적 태도		
남편이 시어머님과 관계를 이어줌 남편 잘 만나서 공부를 할 수 있었음	남편의 지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싶음 임신한 후배를 도움	남을 돕고 싶은 마음		타인에 대한 이타 적 행동
병원 이용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됨 생활지도사 활동 전개	사회에 대한 봉사		

결과
(consequence)

4.2. 이주여성의 한국사회적응경험과정에 대한 패러다임 구성



〈그림 1〉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사회 적응 경험에 대한 패러다임 모델

4.2.1. 원인적 조건(causal condition)

원인적 조건이란 결혼이주여성의 한국 사회적응을 통한 경험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문제점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박동숙·임해영·김은경 2019).

본 연구에서는 ‘식생활 및 생활문화의 차이’ ‘의사소통 어려움’ ‘차별 경험’이란 3가지 범주가 연구 참여자들이 한국사회로 이주한 후 삶에서 경험한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가. 식생활 및 생활문화의 차이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유사적인 어려움 중의 하나로 식생활의 차이였다. 이주여성들의 모국 음식은 남편이나 시댁 식구들이 싫어하거나 반가워하지 않기 때문에 대체로 모국 요리는 하지 않게 되고 한국 음식 조리법을 배워나가야만 했다. 이들은 마늘, 파, 고추장 같은 양념을 많이 활용하는 김치나 한국 음식 등은 만들기도 어렵고 힘들다고 말하였다. Participant-10의 경우 농사를 지으면서 생활에 필요한 양념이나 옥수수 등 뭐든지 다 심고 직접 얻어서 더 힘들었다고 한다.

나. 의사소통 어려움

결혼이주여성은 초반에 입국하여 모든 것이 어색하지만 무엇보다도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였다. 결혼이주여성으로 결혼한 남편은 시댁식구 중에서 늦게까지 부모님과 지내다가 결혼하여 대부분이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경우가 많았다. 나이 차가 많이 나는 남편과의 관계 형성에도 어려움이 있지만 다른 시댁 가족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가장 큰 어려움은 언어 차이였다. 한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남편이나 시댁 식구들에게 자신의 견해나 감정을 표현하기 힘들어하며, 자녀의 같은 학교 학부모 등 주변 사람들에게도 자신감을 가지고 친분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결혼이주여성들은 사전을 하나의 소통 도구로 활용하기도 하고 행동

으로 의견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정확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 오해나 왜곡이 발생하고 남편과 시댁 시구와도 다투기도 하였다. 일상 생활에서의 의사소통은 시간이 흐르면서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되지만 존댓말이나 낮춤말, 관용어의 활용과 내면적인 의미 등을 이해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다. 차별 경험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인들 대부분이 자신들을 바라보는 눈길이 좋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고 한다. 자신들을 잘살지 못하는 나라에서 왔고, 본국에 있는 친정 식구를 도와주기 위해서 왔으며,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으로 본다는 것을 생활 속에서 느낄 수 있었다. 결혼이주여성은 이웃이나 자녀학교의 학부모 모임 등에서 한국인들과 같은 다문화인들에 대해 좋은 인식을 지니고 있지 않음을 느끼면서 소외감을 가지게 된다고 한다.

더욱이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자신들에게 가지고 있는 선입견은 서로 간에 불신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한국 남성과 결혼한 이주 여성은 본국의 경제적인 가난에서 벗어나 새로운 인생을 찾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면서 친정식구들에게 경제적인 원조를 위한 수단의 측면이 없지 않았다.

이렇게 이주여성들에게는 경제적인 목적으로 결혼하여 언제 도주할지 모른다는 회의적인 인식이 사회적으로 분포되어 있고 이러한 일을 반영하듯이 남편이나 시댁 식구들은 이주여성에게 생활 속에서 대체로 경제권을 넘겨주지 않았다.

결혼이주여성들은 일차적으로 언어의 소통문제가 있으나 상대방을 알려고 노력하거나 이해하고자 하는 열린 마음이 있어야지만 한 가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Participant-7은 이주여성이 한국 가정에 제대로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고 하면서 자신이 대접을 받고 싶으면 먼저 대접을 해주라는 말과 함께 남편에게도 먼저 잘해주고 시부모님에게도 먼저 다가가라고 한다. 한국 남편이나 시댁식구 입장에서는 외국인 아내가 한국문화나 생활방식에

따를 것이라는 기대를 지니고 있었고, 모국에서의 문화 태도 등을 한국방식으로 바꾸어 살아야지만 제대로 정착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었다.

4.2.2. 맥락적 조건(contextual condition)

맥락적 조건이란 인식의 개선에 영향을 미치는 상태나 조건을 일으키는 미시적 조건이면서, 좀 더 세부적인 심리적 작용들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박동숙·임해영·김은경 2019).

본 연구에서는 ‘어려움을 혼자 견뎌’ ‘비전 가짐’이란 심리적 맥락들을 드러내고 있다.

가. 어려움을 혼자 견뎌

본 연구에서 참여자들은 결혼 이주라는 시공간적 변화의 경험을 통하여 한국 사회에 적응하고자 하는 결의가 얼마나 분명한가에 따라 가족 간의 의사소통문제 해결의 정도와 그 결과가 다르다는 것을 파악하였다. 한국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힘든 경험을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크고 작은 위기 상황을 넘기면서 남편이나 시댁 식구와 더불어 좀 더 열심히 살아보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기 시작한 이주여성들은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문화적 차이나 어려웠던 부분들을 처음에는 주로 피하거나 참으면서 소극적으로 대처하였지만, 자신을 스스로 이겨내고 주변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되면서 필요한 도움을 능동적으로 찾음으로써 자신의 문제해결에 적극성을 가지는 이주여성들도 있었다.

나. 비전 가짐

이주여성들이 한국 남성과 결혼하기로 마음을 먹었을 때 꼭 가난에서 벗어나 경제적인 목적만을 이루기 위해서 입국한 것은 아니다. 이주여성들은 자신의 가족 구성원을 돌보는 강인한 사람들이며 한국어를 열심히 배우고 자신의 일을 열정적으로 해나가는 사람들이다. 그녀들이 한국에 오기 위해 맨 처음 가졌던 마음은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한국 남성과 결혼하여 가정에서 평등하고 자립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평범한 행복을 꿈꾸고 행복을 실현하기를 원하였다.

4.2.3. 중심현상(phenomenon)

중심현상은 일련의 원인 조건과 맥락적 조건의 영향을 받아 발생하게 되고, 작용/상호작용 접근 전략에 의해 조절되는 중심사고나 사건으로 본 연구에서는 ‘자신에 대한 자긍심’ ‘주도적인 삶의 실현’으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들은 한국 사람이 되기 위하여 고군분투하면서 열심히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었다. 이주여성들은 자신이 가족과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스스로 깨닫고 자신에게 적합한 방식들을 선택하여 실행하였다.

가. 자신에 대한 자긍심

이주여성들은 한국문화에 적응하면서 동화하는 쪽으로 선택을 하더라도 반드시 동화적인 특징만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일부 이주여성들은 남편과의 관계에서 문화적인 차이를 경험할 때 남편에게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드러내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한국문화와 모국 문화를 적절히 혼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모국 문화를 남편에게 당당하게 요구하는 모습도 보였다.

더욱이 자녀가 엄마의 나라에 대해서 잘 알기 원하고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성장하기를 바라고 있었다. 이주여성들은 자녀의 교육에 전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하고 특히 자녀에게 자신들의 모국어를 가르칠 계획을 지니고 있었다. 이는 엄마의 문화를 자녀에게 알려주고 이중문화에 대한 정체성을 새겨주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이중언어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자녀의 차후 성취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나. 주도적인 삶의 실현

결혼이주여성들은 초기 결혼생활에서 생활문화의 차이, 의사소통에 대한 어려움, 차별적 대우에 대한 경험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힘든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어려움을 혼자서 극복하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지니고 힘든 한국생활에서 자신과의 타협을 통하여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과 배움에 대한 자부심을 통하여 남편, 시댁 식구, 자녀들에게 당당한 한국인이 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에게 한국은 더 이상 낯선 곳이 아니며 자신과 자녀, 가족이 함께 살아가야 할 삶의 터전이며, 회피할 수 없는 숙명적인 운명공동체이다. 이주여성들이 한국 사회에서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고 경계인으로 삶을 살아가지만, 자녀에게만은 이러한 상황을 물려주지 않으려고 자신을 채찍질하고 다스리면서 보다 나은 내일을 향해 나아가려 한다.

4.2.4. 중재적 조건(intervening condition)

중재적 조건은 중심현상의 개선이 작용/상호작용 접근 전략을 권장하거나 강제하도록 영향을 주어 좀 더 구조적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중재적 조건은 맥락적 조건에 비하여 다양하고 넓은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의 자신에 대한 자긍심을 형성하고 주도적인 삶을 실현시키기 위한 중재적 여건으로 '남편과의 가치관 차이' '남편의 정서적 지지 부족' '시댁 식구와의 공존 어려움' '시댁 식구의 도구적 사고체계' '자녀 양육 부담감'의 5가지 범주로 나타나고 있다.

연구 참여자들은 남편과의 가치관 공유나 정서적 지지의 부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갈등 상황에 당황스럽고 혼란스럽다고 한다. 이러한 혼란은 오랜 기간 다른 나라 문화권에서 서로 다른 문화와 생활방식으로 살아온 사람들이라서 결혼생활은 본국과의 문화 차이점과 살아오면서 각자 형성되어 온 사고방식으로 인하여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오해를 불러 일으킬만한 다양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여기에 남편뿐만 아니라 챙겨야 할 시댁 식구와의 공존 부담감과 시댁 식구의 도구적

사고체계로 인하여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모국에서 자신들이 보고 자란 양육방법과 한국에서의 양육방법이 달라서 자신의 양육방법이 자녀에게 반감을 일으킬 때, 혼란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나아가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이 공부했던 환경과는 확실하게 다른 한국의 교육환경에 대해서도 이해하기가 어려우며, 한국의 부모들이 자녀교육에 집중하는 모습에 거부감을 지닌 시선으로 문제를 바라보면서도 자녀교육을 위해 동참해야 하는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가. 남편과의 가치관 차이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생활 적응에 있어서 다양한 어려움 중에서도 가장 힘든 요인은 남편과의 문화적 갈등이었다. 이들은 남편이 자신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나 이해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처가의 문화 자체를 수용하려는 태도에 대해 많은 갈등을 겪고 있다.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생활에 잘 적응하여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는 남편이 다문화 수용하는 태도가 중요하며 외국인 아내를 이해하고 배려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서로 다른 문화를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삶의 만족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나. 남편의 정서적 지지 부족

언어소통이 잘되지 않고 이질적인 문화와 생활방식을 가지고 있는 성인 남녀가 만나 가족을 이루고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더욱이 문화가 다르고 국적이 다른 국제결혼을 한 부부가 종종 비언어적인 방법으로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을 때는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이 일어날 여지가 훨씬 높다고 볼 수 있다.

결혼이주여성들은 남편들이 자신의 화난 감정 등을 알아주지 않고 무시할 때 문화 차이를 느낀다고 하였다. 자신이 남편과 다른 행동을 하거나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을 때 알아주지 않거나 외면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다. 시댁 식구와의 공존 어려움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의 결혼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은 남편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의 일상생활 속에서 시댁 식구와 관계를 맺고 접촉하면서 경험하는 어려움은 또 다른 한 축을 이룬다. 한국의 보통 며느리가 겪는 시댁살이의 어려움과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었다. 시댁 식구의 언행이나 행동에서 외국인 며느리에 대해 경시하는 차별이 실재한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사고로 인하여 갈등에 작용하는 요인은 의사소통의 한계뿐만 아니라 인식에 대한 문제점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라. 시댁 식구의 도구적 사고체계

본 연구의 결혼이주여성 중 대부분이 한국 사람들이 이주여성들에게 쉽게 마음을 내어주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한국인은 한국보다 못사는 나라에서 왔다고 외면하고 무시하는 것 같아 안타까워했다. 특히 시댁 식구들이 이주여성을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구적이며 소유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다.

마. 자녀 양육 부담감

대부분 결혼이주여성은 자녀 양육과 교육에 대해 큰 관심과 염려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주여성들은 자신들 때문에 지적 성숙이나 언어발달이 늦어질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이주여성들은 자신의 부족한 한국어 실력으로 어린 자녀의 언어발달에 방해를 줄 수 있다는 걱정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 시부모를 모시거나 남편과 함께 일을 하는 등 삶의 현장에서 분주히 활동하면서 자녀와의 충분한 의사소통을 하기 힘들어 자녀의 성장기 내내 자녀에게 필요한 양육을 적절하게 하기 힘든 상황에 놓여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4.2.5. 작용/상호작용(action/interaction)

중심현상이 맥락적 조건 안에서 실재할 때 목적을 조절하여 실행하

는 것으로 목표 지향적인 특징을 가진다(강유미·신혜중 2010).

중재적 조건에 대처하거나 상황을 다루기 위해 행해지는 의식적이고 계획적인 활동이다. 본 연구에서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현실 개선을 위한 노력’ ‘주변의 정서적 지지’ ‘미래에 대한 긍정적 사고’ ‘다문화 기관의 활용’으로 나타났다.

가. 현실 개선을 위한 노력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 남성과 결혼하고 한국에 입국한 후 그들의 적응 경로는 혼돈과 당황스러움, 현실에 대한 좌절, 외로움과 같은 비관적 체험들이 좀 더 많았다. 그렇지만 이들은 자신들의 실제 생활을 회피하기보다는 직면하면서 결혼생활을 지속하며 한국 사회에 친근해지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어떤 참여자는 심리치료를 받으면서 현실을 극복해 나가고 또 다른 참여자는 자신의 취미 생활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있었다.

나. 주변의 정서적 지지

이주여성들이 결혼 초기에는 다양한 갈등과 혼돈 속에서 자신이 선택한 삶에 대해 후회하기도 하고, 본국으로 다시 돌아갈 생각도 했지만, 세월이 지나고 자녀를 낳고 양육하면서 이주여성들은 결혼생활 속에서의 힘든 상황에 대처해 나가는 방식들을 파악해 나가기 시작하였다. 본 연구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은 친구나 친척 주위의 도움으로 적응의 어려움을 추구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다. 미래에 대한 긍정적 사고

이주여성들은 결혼 초기 힘들었던 점들에 대해 조금씩 극복해 나가면서 경제적으로 여전히 힘든 상황이고 남편이 불안정한 직업을 가지고 있더라도 남편이 못됐거나 해로운 사람이 아니고 함께 할 사람이며 여기에 소중한 자녀가 있으므로 가족애를 자각하게 되고 미래 생활에 대해 긍정적인 사고를 지니고 있었다.

라. 다문화 기관의 활용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에 정착하는 데 있어서 지역사회복지기관 중 하나인 다문화 기관에 역할이 중요함을 나타내고 있었다. 다문화 기관에서 한국어 수업을 받거나 같은 처지에 다문화 사람들을 만나 서로 심리적 지지로 정신적인 지원을 받으며 한국생활에 적응해 가는 데 적극적인 도움을 받고 있었다.

먼저 한국에 정착한 선배들이 일상생활에 대한 세심한 조언 및 상담을 해주거나 다양한 친목 모임을 형성하여 서로 정보를 교환하며 지지해주는 사례도 있었으며 본국의 친구나 친지의 지지가 매우 중요한 자원으로 나타났다.

4.2.6. 결과(consequence)

결과는 상호작용 접근 전략의 생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결과는 중재적 조건에 대처하는 작용/상호작용 접근 전략으로 의식적이고 계획적 행동을 통하여 최종적인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 현상에서는 ‘한 가족 공동체로 뿌리내림’, ‘타인에 대한 이타적 행동’이라는 범주가 배정되었다.

가. 한 가족 공동체로 뿌리내림

이주여성들은 남편과 시댁 식구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내면서도 그들을 이해하려는 마음과 그들의 긍정적인 부분을 찾으려는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가족을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관과 어머니로서의 강인한 모성애는 참여자들이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데 뜻깊은 버팀목이 된다. 특히 자녀의 출산을 통하여 드디어 하나의 가족 구성원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아이를 통하여 남편과의 사이가 변화되기도 하였다. 평범한 아내들처럼 이주여성들에게도 결혼생활의 충족은 남편의 애정이었다. 남편과의 사이가 가깝고 호의적일수록 그들은 한국생활에 적응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을 얻고 버팀목 역할을 해주었다.

나. 타인에 대한 이타적 행동

심리학자인 알프레드 아들러에 의하면 인간의 건강한 특징은 ‘사회적 관심(social interest)’이라고 하였다. 사회적 관심은 공동체감을 추구하며 사회적 상황에 반응하는 타고난 성향을 말한다. 자기 자신에게 매몰되지 않고 타인의 안녕을 돌보는 것은 우리가 가진 소중한 자산이라고 할 수 있다.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생활에서의 힘든 경험을 하면서 느꼈던 어려움을 다른 누군가를 도움으로서 자신들의 원래 안에 숨겨져 있던 이타심을 나타내고 있었다.

4.3. 중심범주와 줄거리 묘사

본 연구의 중심범주는 『한 가족 공동체로 뿌리내림, 타인에 대한 이타적 행동』으로 상정하였다.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이란 낯선 나라에서 결혼생활이라는 알 수 없는 세계를 탐험하듯이 결혼생활 경험 과정에서 자신과 남편, 자녀, 시댁 식구 속으로 한 가족이 되기 위해 뿌리내리기 위하여 적응의 역동적인 모습들을 나타내게 된다. 결혼이주여성들의 삶의 여정 속에는 한국이라는 익숙하지 않은 세계에 대한 호기심과 두려움, 적응하기 힘든 상황 및 당면한 난제 속에서 인내하는 등 여러 차원적인 가치와 단계들이 포함되어 있다. 한 가족 공동체로 뿌리내리는 길은 고생스럽고 어려움이 많은 험난한 절차이기도 하다.

결혼이주여성들은 어린 나이에 낯선 나라 한국으로 건너와 결혼과 함께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면서 힘든 경험을 하게 된다. 그들은 미처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결혼생활이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남편, 시댁 식구와의 문화 차이나 편견 등 갈등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에 더하여 남편의 무관심으로 서운하게 되고 시댁 식구의 도구적 사고체계 등의 난관에 봉착하게 됨에 따라 자신의 결혼 선택에 회의감을 지니게 되기도 한다. 나아가 연구 참여자들은 자격증을 취득하고 취업하여 한국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외국인이라는 이름에 부정적인 낙인과 따가운 시선들로 인하여 주변인 존재로서 자기 자신을 인식하게 된다.

그렇지만, 결혼이주여성들은 자신들의 심리적 사회적으로 적응을 돕

는 지원체계가 존재한다는 것도 함께 성찰하고 있다. 여기에 자신들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남편과 시부모 그리고 어려움을 도와주는 친구, 친척, 다문화센터나 지역사회 복지 전달체계 종사자 등 주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지지체계에 도움을 받아 연구 참여자들은 새로운 세계에 도전하여 여러 분야의 공부를 하거나 자격증을 따 자녀에게 담당하고 남편이나 시댁 식구에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러한 결혼이주여성은 자신들의 힘들었던 경험을 거울삼아서 후배 이주여성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생활지도사로 활동하는 등 이타적인 삶을 선택하고 있다. 결혼생활에 대한 차가운 현실적 여건 속에서도 다양한 어려움에 대해 혼자서 극복하고 인내하면서 한국 가정에 뿌리를 내리고 타인들을 도우면서 열심히 생활해나가고 있다.

4.4.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생활 적응 경험과정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생활 적응 경험과정을 분석하기 위하여 구안된 패러다임에서 범주의 변화를 파악하고 핵심 범주에 따라 이야기 전개를 통하여 중심현상을 중심으로 일련의 조건들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단계적으로 변화해 가는지를 살펴보았다.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생활 과정은 두려운 현실, 단절된 일상, 현실여건의 부담감, 세상을 향한 도전, 주도적인 삶의 실현이라는 5단계로 변화되고 있다.

4.4.1. 두려운 현실

첫 번째 단계는 두려운 현실에 직면하는 단계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한국에 입국하여 한국 사회나 남편에 대해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 남편과 그 주변 환경에 대해 자신의 기대와 차이가 있음을 알고 충격을 받는다. 결혼이주여성은 한국남편을 통하여 경제적인 자유와 행복한 가정을 바라보고 왔으나 남편의 직업은 불안정하거나 경제적인 능력이 낮은 경우가 많았고 남편과 시댁 식구들과

의 갈등으로 결혼 초기부터 어려운 경험을 겪기도 하여 현실에 대한 두려움 마음이 생성되기도 한다.

4.4.2. 단절된 일상

두 번째 단계는 단절된 일상의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참여자들은 기대했던 결혼생활과는 전혀 다른 현실에 직면하면서 결혼이란 선택을 후회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또 연구 참여자들은 경제적인 상황이 여유롭지 않아 본국에 있는 친정 가족들에게 지속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여기에 자녀를 낳고 양육해야 하는 힘든 상태, 일상의 가사노동, 자신들에게 무관심하고 무뚝뚝한 남편, 넉넉하지 않은 경제적인 상황, 시댁 식구들을 돌보아야 하는 부담으로 느끼지만 이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그 누구와도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었으며 그냥 혼자서 감내해 나가는 경우가 많았다.

4.4.3. 현실여건의 부담감

세 번째 단계는 연구 참여자들이 낯선 한국생활에서 마주하게 된 현실여건의 부담감을 직면하는 단계이다.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어로의 의사소통이 순조롭지 못하고 모든 일이 답답하고 힘든 상황으로 관련되어 있었다. 이주여성들은 한국에서 좀 더 나은 경제적 형편을 기대했지만, 팍팍한 경제적 여건에서 가정살림뿐만 아니라 직장생활도 함께 해나가야 하는 고달픈 삶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았다. 더욱이 남편의 심리적 지지를 기대했지만 부족한 정서적 지지로 실망하고 시댁 식구의 도구적 사고체제로 차별적 시선과 태도에 상처를 받기도 하며, 자녀 양육과 교육에 대한 불안감과 부담감으로 직면하게 되기도 한다.

4.4.4. 세상을 향한 도전

네 번째 단계는 세상을 향한 도전의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한국생활에서 주는 온갖 어려움과 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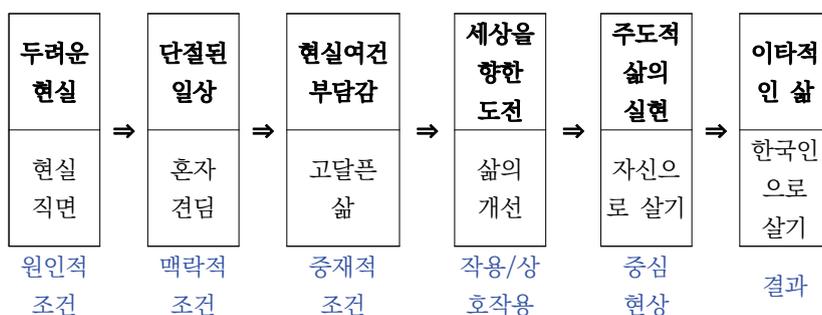
든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이주여성 스스로는 삶을 개선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단계이다. 따라서 참여자들은 지역사회복지관 중의 하나인 다문화센터를 방문하여 한국어도 배우고 관계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도 참여하면서 세상 밖으로 스스로 나오는 적극적인 삶의 자세를 취하게 되는 경우이다.

4.4.5. 주도적인 삶의 실현

다섯 번째 단계는 주도적인 삶의 실현 단계이다.

이주여성들은 한국인이 되기 위하여 한국 사회에서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이러한 노력은 이름을 개명하고 한국 이름을 취득하는 적극적인 노력 속에서 확연하게 나타나게 되며, 한국 사회에서 인정받기 위하여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대학공부나 다양한 분야의 공부를 하면서 한국인으로 살아가고 한국인이라는 자부심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들은 자녀들에게 당당한 부모가 되고 싶기도 하여 자녀들에게 헌신적인 사랑을 나타낸다. 이에 더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학공부를 이어가거나 사회적으로 이타적 행동을 나타내어 자녀들에게 모델학습의 표본을 보이기도 한다.



〈그림 2〉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사회적응과정에 관한 모형

5. 결론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생활 적응 경험과정의 본질적인 의미를 이해하고, 결혼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정의 한국 사회 적응단계를 파악하여 적응개입의 기본 자료로 활용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생활을 탐색하기 위해 선행연구(박동숙 외 2019)를 중심으로 연구의 틀을 마련하였고, 실증적인 연구를 하기 위하여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10인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여 심층면접을 실시하고, 이를 분석하여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이주여성은 한국문화를 처음 접하면서 식생활 및 생활문화의 차이에 어려움을 느끼고 언어나 의사소통에 대한 어려움 등으로 스스로 위축되며, 여기에 차별적 대우에 대한 경험으로 한국생활의 앞날에 대해 우려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주여성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은 다양한 어려운 환경에서도 누구와 어려움을 나누기보다는 혼자서 극복하려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외로움을 느낄 때도 본국의 가족들에게는 말도 못 하면서 그리워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어를 능숙하게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일들을 실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승덕 2013; 안옥희·전미순·황윤영 2011; 이둘녀·심미영 2013).

한국어를 제대로 구사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남편이나 시댁 식구에게 자신의 의견이나 감정을 표현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두려움이 앞서 자신감을 지니고 친교 관계를 구축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양진향·박현주·김송순·강은정·변상희·방지수 2012)는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결혼이주여성에게는 한국어 능력이 생활 적응에 중요한 요인임을 생각해볼 때 한국어 의사소통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방법으로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중재적 조건으로는 남편과의 가치관 공유가 어렵고, 남편의 정서적 지지 부족, 시댁 식구와의 공존에 대한 부담감이나 도구적 사고 체계와 함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감 등의 어려운 중재적 조건이 존

재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런 여건 속에 한국 사회에서 느끼는 소외감 등 다양한 차별적 대우에 대한 경험을 통하여 결혼이주여성의 복합적인 어려움은 심리적 스트레스를 가져오게 되고 결국 생활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오은정·정향미 2019)는 연구와 같은 맥락에서 중재적 조건을 토대로 이주여성들에 대한 가족생활 교육프로그램 및 상담치료를 통한 정서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이주여성들에 대한 사례유형별로 문제점을 살펴보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각 지자체의 사회복지기관과 연계된 프로그램의 원조가 요청된다.

한편 결혼이주여성들의 공통적인 적응의 어려움으로 나타난 것은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감으로 나타났다. 이주여성의 가정 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결혼이주여성들은 취업이나 직장을 다니게 되고, 여기에 자녀의 양육이나 교육의 대부분 일차적인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은 자신의 충분하지 않은 한국어 실력과 한국어 교육시스템에 대한 지식 결핍을 통감하게 됨에 따라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감을 지니고 있었지만, 자녀에게 자국의 언어를 노출 시키고 두 가지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이중언어 활용에 대한 장점을 살려 자녀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려 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들의 자녀에게 한국의 정체성을 살리고 자신감을 지닐 수 있도록 이중언어 및 이중문화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각종 여건의 작용/상호작용 접근 전략으로 현실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주변 사람들의 정서적 지지와 미래사회에 대한 긍정적 사고의 필요성, 그리고 지역사회복지기관인 다문화 기관의 활용으로 접근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스스로를 지키려는 적극적 사고와 함께 이를 북돋아 주는 주변의 지지가 함께 조화를 이룰 때 효과성이 극대화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 부과하고자 하는 것은 이들도 한국 사회의 일원이 된 이상 이들의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주변의 지지와 함께 정책적으로 지역사회에서 다문화 기관의 효율적인 활용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회적 지지가 요구된다.

넷째, 결혼이주여성의 한국 사회의 성공적인 적응의 기저는 한 가족 공동체로 뿌리내리기 위해서 이주여성 자신의 적극적인 노력과 더불어 자신의 어려운 경험을 토대로 이를 스스로 극복하고 나아가서 타인을 돕고자 하는 이타적 행동으로 승화하는 개인적 노력이 돋보인다는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이는 개인적 행동의 변화를 유도하는 사회적 지지기반이며,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수용적 태도로 보아진다. 결론적으로 결혼이주여성의 개인적 측면의 노력과 이를 수용하고 지지하고자 하는 사회적 기반을 바탕으로 다문화 전문기관의 효율적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실행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행히 우리의 현실은 대학을 중심으로 한 다문화 관련 연구기관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각 시·도 지역별 지역사회복지관인 다문화 가족지원센터가 지원되고 있어 이의 활용과 함께 다문화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연구가 요구된다고 본다.

특히 이주여성들이 한국생활 경험과정 속에서 혼란스러운 가족관계나 사회로부터 고립되어 한국생활에 의구심을 갖게 되는 상태도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주여성들의 한국 가족생활 적응 경험은 자신은 물론 가족 구성원 전체의 안녕감과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고 학교와 지역사회, 나아가 국가적인 수준에서도 그 의미가 있으며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파악된 관련 요소들과 가치체계를 고려하여 이들의 적응을 효율적으로 계획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위와 같은 논의와 결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한다. 다문화이주여성들이 한국생활에 적응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첫째, 언어교육을 강화하고 대상자 확대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주여성들의 한국생활경험과정에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언어소통의 문제이다. 언어소통을 위한 사회정책을 강화하여 한국어교육의 세분화된 언어교육서비스 및 언어교육의 접근성을 제고한 교육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빈곤 해결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다. 결혼이주여성의 가구소득은 일반가구소득에 비하여 열악한 경우가 많다. 이들의 빈곤예방을 위한 맞춤형 직업훈련교육 강화 및 양질의 일자리 취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출산과 양육지원 정책 확대 실시이다. 결혼이주여성의 출산 및 자녀양육에 장애가 되는 다양한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의료시설의 접근성 지원, 산후조리원 이용 안내, 예방접종 알림서비스 등 임신과 출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동시에 양육과 취업을 함께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넷째, 위기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및 사회적지지 망 강화가 필요하다. 이주여성이 거주하는 지역사회별로 자조모임 활성화 및 지역 사회참여 확대 등을 통하여 결혼이주여성 등이 사회적으로 네트워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유미·신혜중(2010). 결혼이주여성의 성공적 적응과정에 관한 연구. <상담학연구>. 4, 1393쪽~1410쪽.
- 고미숙(2019). 이혼한 베트남이주여성의 결혼경험 및 부부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9(11), 401쪽~414쪽.
- 구세롬미(2022). 결혼이주여성의 이주동기에 따른 문화적응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W지역을 중심으로. 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경자(2008). 다문화가정 아동의 심리적 문제와 학교적응. 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미영(2017). 결혼이주여성의 사회문화적응과 정서적 유능감이 자녀 양육태도와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수진·홍창의(2017). 다문화가정 자녀의 차별경험과 언어문제가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4(1), 195쪽~211쪽.
- 김순옥·김현숙(2016). 결혼이주여성 배우자지지와 가족지지가 자녀양육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6), 462쪽~473쪽.

- 김철희·조남예(2017). 다문화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생활문화 경험 연구. <한국사상과 문화>. 86, 431쪽~450쪽.
- 김현숙(2010).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2(2), 135쪽~159쪽.
- 박동숙·임혜영·김은경(2019). 결혼이주여성의 적응 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62, 5쪽~41쪽.
- 박수정(2018). 이주여성의 생애사와 경제활동 참여경험에 관한 연구: 진주시 여성사업가를 대상으로. 진주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승덕(2013).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사회적응 탐구. <한국복지실천학회>. 4(1), 1쪽~23쪽.
- 박이분(2019). 한국인의 이주민에 대한 수용성과 결혼이주여성의 적응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희연(2022). 결혼이주여성의 취업과 업무 경험에 관한 사례 연구-외국인주민센터 상담통역원을 중심으로-. 경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정원(2018). 여성결혼이민자의 실태 분석에 관한 연구: 사회적 네트워크, 사회참여, 사회적응을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신경림 역(2001). 근거이론의 단계. 서울: 현문사. Strauss, A & Corbin, J.,(1998). Basic of qualitative research.
- 안옥희·전미순·황윤영(2011).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적응 경험. <다문화건강학회지>. 1(1), 33쪽~43쪽.
- 양진향·박현주·김송순·강은정·변상희·방지수(2012).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의 가족 적응 경험. <한국간호과학회>. 42(1), 36쪽~47쪽.
- 여성가족부(2022). 2021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 오은정·정향미(2019). 결혼이주여성의 한국문화 적응 개념분석. <한국모자보건학회지>. 23(4), 250쪽~260쪽.
- 유진희(2014). 결혼이주여성의 자녀양육에 관한 생애사적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태균 역(2001). 사회복지 질적 연구 방법론. 서울: 나남. Padgett, D.,(1998). Qualitative Methods in Social Work Research: Challenges and Rewards, Thousand Oaks, CA: Sage.
- 이들녀·심미영(2013).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생활적응에 관한 주관적 인식유형 연구.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9(3), 43쪽~72쪽.
- 이승민·구차순(2013). 결혼이주여성의 초등학생 자녀 양육 경험의 의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7(2), 59쪽~87쪽.
- 이은아(2013). 도시 결혼이주여성의 어머니 노릇과 정체성: 자녀교육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여성>. 29(3), 115쪽~146쪽.
- 이은주·전미경(2014). 출신국의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이해한 베트남 결혼이주여

- 성의 적응경험 연구. <가정과 삶의 질 학회>. 32(5), 63쪽~86쪽.
- 이지영(2019). 한국 결혼이주여성의 '어머니 역할수행'을 통한 임파워먼트 과정. 공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채영(2015). 공공도서관 다문화프로그램이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해영 · 이혁구(2014). 양육 결정 미혼모의 초기 모성 경험에 관한 연구: 해석학적 근거이론 방법. <사회복지연구>. 45(3), 35쪽~69쪽.
- 정명희(2013). 사회적 지지가 결혼이주여성의 자녀 양육방식에 미치는 영향 연구: 부모효능감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학회>. 20(8), 257쪽~276쪽.
- 조영달(2006). 다문화가정의 자녀교육 실태조사. 교육인적자원부 연구용역 과제 최종보고서.
- 최미경(2018). 필리핀 결혼이주여성의 공동체 활동 경험 연구.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통계청(2018). 지역별 다문화 혼인.
- 한미자(2021).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의 사회적 지지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자기효능감, 부부애착의 매개효과-. 칼빈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행정안전부(2020). 결혼이민자 및 인권 · 귀화자 현황(외국인 주민 현황조사).
- 허명준(2020). 결혼이주여성의 가정생활 적응 사례연구를 통한 사회복지실천의 방안에 관한 연구. 산업진흥원. 5(1), 107쪽~115쪽.
- Byoun, S. J. · Leung, P.(2015). Understanding the cultural adaptation of foreign wives of South Korean men, *Asia Pacific Journal of Social Work and Development*, 25(2), 124-132.
- Glaser, B.G. · Strauss, A.L. (1967). *The discovery of grounded theory: strategies for qualitative research*. Chicago: Aldine.
- Lincoln, Y. S. · Guba, E. G.(1985). *Naturalistic Inquiry*, CA: Sage.
- Strauss, A. · Corbin, J.(1998) *Basic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and procedur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2nd ed.)*, Thousand Oaks, CA: Sage.

필자 소개

성 명 전해경

소 속 호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주 소 군산시 임피면 호원대 3길 64 1동 312호

전자우편 lsch4219@naver.com

Abstract

A Model Study on the Adaptation Process of Married Migrant Women to Korean Life - Focusing on Vietnamese Migrant Women -

Jeon, hye-kyung
(Howo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sychological and social adaptation experiences of married migrant women through the marriage life experience process and draw useful points to support them. To this end, 10 study participants were selected and analyzed using the evidence theory method. According to the analysis, marriage migrant women's adaptation to 'differences in diet and living culture', 'difficulties in communication', 'discrimination experience', 'self-esteem', 'realization of a life alone', 'vision', 'difficulties in values with husband', 'difficulty in coexistence with in-laws', 'future', 'intention', 'creative culture'. Based on this, marriage migrant women's adaptation experience process was first shown as a stage of realizing scary reality, second, disconnected daily life, third, the burden of real conditions, fourth, challenging the world, and fifth, leading life. Based on these research results, this study proposed a step-by-step intervention plan for adaptive development to support married migrant women.

Key words Married migrant women, Adaptation of married migrant women, Overcoming Cultural Differences among Migrant Women

투고일 2022. 10. 31 / 심사일 2022. 11. 2 / 심사완료일 2022. 11. 16

아시아공동체론과 세계시민 교육을 통한 대학생들의 의식변화 연구*

정기영 · 히라나카 유카리 · 조희주**

(부산외국어대학교)

1. 서론
2. 선행연구 및 연구방법
 - 2.1. 선행연구
 - 2.2. 연구방법
3. 강의 개요 및 구성
4. 아시아공동체론과 세계시민 교육 강의 설문조사 및 분석
 - 4.1. 설문조사 대상자 및 조사방법
 - 4.2. 설문조사 대상자 기초 질문 및 분석
 - 4.3. 아시아공동체와 세계시민 교육에 관한 의식변화 분석
 - 4.4. 기타 최종 감상에 대한 분석
5. 결론 및 금후의 과제

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동아시아가 EU 공동체와 같은 미래사회 구축과 하나의 세계를 상상하고 모색하기 위해 개설된 대학의 교양강좌 ‘아시아공동체론’에서 ‘아시아공동체’와 ‘세계시민교육’을 키워드로 매주 각 분야별 강연자를 초청하여 옴니버

* 이 논문은 2022학년도 부산외국어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 공동 제1저자 : 정기영, 히라나카 유카리, 조희주

스식 강의를 진행한 후 수강생들의 인식변화를 조사하고 분석함으로써 아시아지역에서 국가를 초월한 공동체 실현 가능성과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교육효과, 그리고 교육 방안을 고찰하였다.

|주제에 아시아공동체, 세계시민교육, 다문화교육, 외국어교육

1. 서론

세계시민교육(Global Citizenship Education, GCED)¹⁾이란 인류 보편적 가치인 세계 평화, 인권, 문화다양성 등에 대해 폭넓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책임 있는 시민을 양성하는 교육을 말한다. 이 교육은 2015 세계교육포럼 개최를 계기로 지속가능한 발전목표 시대의 새로운 국제 교육의제로 부상하였으며, 2030년까지 유네스코 및 UN의 교육발전 목표에도 반영되었다.

이 분야의 연구는 미국과 유럽, 일본에서는 이미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외국어교육에서도 구체적으로 도입되어 커리큘럼에 반영되고 있으나 한국의 외국어교육계에서는 아직 이러한 연구가 보이지 않고 언어적, 문학적, 문화적 교육의 실제적 연구에 머물러 있다. 현재 한국의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외국어교육학의 연구 분야는 앞서 언급한 언어, 문학, 문화 교육 중심에서 융합교육²⁾으로 조금씩 변화하고 있으나 외국어교육의 최종 목표라 할 수 있는 세계시민교육의 교육과정 도입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금후 학생들의 졸업 후 진출과 요구되고 있는 능력 및 기능을 생각할 때 아시아공동체 시대에 대한 상상력과 세계시민교육은 미래 세대를 짊어지고 갈 대학생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교육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1) 본 논문에서는 Citizenship을 세계시민으로 표현 한다

2) <https://krsna.bufs.ac.kr/> 일본어교육과 비즈니스, 호스피탈리티, 통번역, IT 등 부산외국어대학교 일본어융합학부의 융합교육사례

또한 이러한 아시아 상생을 위한 연구결과가 실제적인 교육에 반영된다면 단순한 언어, 문학, 문화 교육 차원을 넘어 사회적 성숙을 통해 정치 경제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것이며 외국어 및 다문화 교육학계에도 새로운 가능성과 패러다임을 제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시아가 EU 공동체와 같은 미래사회 구축과 하나의 세계를 상상하고 모색하기 위해 개설된 대학의 교양강좌 ‘아시아공동체론’에서 ‘아시아공동체3)’와 ‘세계시민교육’을 키워드로 매주 각 분야별 강연자를 초청하여 옴니버스식 강의를 진행한 후 수강생들의 의식변화를 조사하고 분석함으로써 아시아지역에서 국가를 초월한 공동체 실현 가능성과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교육효과, 그리고 교육 방안을 타진해보고자 한다.

2. 선행연구 및 연구방법

2.1. 선행연구

세계시민교육은 유네스코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교육(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SD)과 함께 기간교육 프로그램으로 상정하고 있는 중요 과제로 2012년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제시한 ‘글로벌 교육 제일 이니셔티브’(Global Education First Initiative)를 계승하여 유엔이 유네스코를 주관기관으로 채택한 프로그램이다.⁴⁾ 한국에서는 유네스코 스쿨과 서울에 설립된 유네스코 연구소인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센터(Asia-Pacific Center of Education for International Education: APCEIU)등에서 세계시민교육 연구 및

3) 아시아공동체에 대한 학술적 정의는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으며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접근되고 있다. 다만 본 강좌에서의 아시아공동체는 아시아가 사회, 문화, 경제적으로 하나의 공동체 형성을 지향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EU공동체를 모델로 하고 있다.

4) 小林(2018) 「ユネスコの地球市民教育が追求する能力: グローバル時代における価値教育の新たな展望」p.19, 22참조

실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⁵⁾ 세계시민교육의 목적은 창의성, 혁신 및 평화, 인권,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대처와 같은 책임 있는 글로벌 시민준비를 뒷받침하는 가치관, 태도, 행동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⁶⁾ 본고의 연구대상 강좌 ‘아시아공동체론’의 아시아공동체를 가까이 느끼고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갖추어야 할 개인의 가치관이 나 행동양식을 생각한다는 목적과도 유사하다.

‘아시아공동체론’ 강좌는 아시아공동체 창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일본의 일반사단법인 유라시아재단 from Asia⁷⁾의 조성을 받아 세계 각국에서 강좌가 개설되어 있으며, 그 성과는 鮎川(2013, 2014), 정준곤외(2015), 정기영외(2015) 등에서 보고되고 있다. 鮎川(2013, 2014)는 상기 강좌를 운영한 각국 대학 교수에게 인터뷰를 실시하여 그 교육성과를 아시아 지역에서 네트워크를 넓히고 있는 대학교수 및 대학생과 공유하고 있다. 정준곤외(2015)는 국가를 넘어 아시아지역의 교수 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위 재단 지원 아래 개최된 ‘One Asia Convention Jeju 2014’에서 발표된 논문 및 당일 발표 녹취록을 편집한 컨벤션 성과를 기록으로 남겼다. 정기영외(2015)는 2013학년도에 개설된 이 강좌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강좌 시작 전과 종료 후의 아시아공동체에 대한 의식 변화, 수업 만족도를 분석하여 이 강좌가 아시아공동체에 대한 이해 및 인식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음을 보여주었다.

본고는 정기영외(2015)를 바탕으로 2021년도에 실시한 동일한 강좌를 연구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2013학년도 및 2021학년도의 2회 강좌를 비교한 점과 코로나로 인해 전체 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면서 온라인 강좌운영의 유용성 및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본다.

5) 小林(2018)앞 논문 p.22참조

6) UNESCO 홈페이지 참조 (<https://en.unesco.org/themes/gced>)(2022년 10월 25일 열람)

It aims to instil in learners the values, attitudes and behaviours that support responsible global citizenship: creativity, innovation, and commitment to peace, human right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7) 전 일반재단법인 원아시아를 2020년에 현재 명칭으로 변경.

2.2. 연구방법

본 논문은 15주에 걸친 강좌의 시작 전에 진행된 사전 설문조사와 각 주별 설문조사, 그리고 강좌 수강 후 최종 설문조사의 분석 및 고찰로 이루어졌다.

본격적인 강의 시작 전인 1주차 사전 설문조사에서는 본 강좌 수강 이유와 기대점, 그리고 현재 아시아지역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조사하였다. 2주차부터 14주차까지는 강의내용의 이해도와 만족도, 인상 깊은 키워드, 강의를 듣고 느낀 점을 조사하였고 마지막 주차인 15주차에는 사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강의를 듣기 전과 들은 후의 아시아공동체와 세계시민교육 등에 관한 수강생들의 의식변화를 비교하여 조사 분석하였다.

3. 강의 개요 및 구성

오늘날 아시아는 서구 선진국과 어깨를 견주며 함께 경쟁하고, 아시아적 가치관과 기준을 제시하며 세계를 이끄는 글로벌 파워로 거듭나고 있다. 이제는 아시아의 지속 가능한 미래성장을 위한 해법을 고민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아시아공동체, 이른 바 ‘원아시아’ 라고 할 수 있다. 나라마다 경제발전 수준이나 정치체제, 종교, 언어, 역사적 경험이 천차만별인 아시아를 하나로 묶기 위해서는 아시아 각국의 경제, 교육, 문화 혹은 시민 교류 등을 통해 공통의 가치관을 조성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본 강좌는 일본의 유라시아재단⁸⁾의 조성사업으로 ‘원아시아’의 개념 및 등장 배경과 시대적인 흐름을 이해하고, 각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학습을 통해 아시아 각국에 대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개설되었다. 또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 국가와 개인과의 관계를 재조명

8) 一般社団法人ユーラシア財団(일본사단법인 유라시아재단) from Asia 홈페이지.
<http://www.eurasia.or.jp/>(2022년 10월 25일 열람)

하고, 각 개인에게 어떠한 사고와 행동이 요구되고 있는지 생각하며 서로 토론하는 강의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본 강좌는 앞으로 변화하는 시대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종합적인 지식과 사고를 함양함으로써 글로벌인재 육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2013년 3월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양강좌로 시작되었으며 2021년 9월 현재 아르케교양의 '문학/문화 영역' 교양강좌로 개설되었다.

2021년도에는 수강생이 약 250명인 대규모강좌로 매주 각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하여 강의를 진행하였다. 본 강좌는 강의를 들은 후 이해하고 토론하는 강의임을 감안하여 시험을 치고 점수를 부여하는 평가 방법은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는 매주 제출하는 과제물인 설문조사로 대체하였다. 그리고 출석과 토론참여, 감상문 제출, 앙케이트 설문 제출을 종합하여 70점 이상이면 PASS하는 방식인 PASS/NON PASS 형식의 평가 방법을 적용하였다.

아시아공동체 '원아시아'라는 개념은 글로벌화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본 강좌를 통해 '글로벌화', 'ASEAN', '동아시아공동체' 등 항상 막연하게만 들어왔던 것들이 수강생들 자신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알아보고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을 읽어내는 안목을 기함과 동시에 그 속에서 개인의 가치관과 행동 양식이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생각하게 하는 기회를 갖게 하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학기 아시아공동체론 강좌의 주제는 세계시민교육을 중심에 두고 경색되어 있는 한일관계, 복수언어/복수문화 등 공동체와 연결되는 다양한 주제를 제시하고 그 분야에 맞는 여러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강의 후 수강생들과 토론하는 강의 방식으로 매주 월요일 3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수강생의 수가 200명을 초과하는 초대형 교양과목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강의는 할 수 없었으나 온라인 ZOOM을 이용하여 강연자와 수강생들이 직접 소통하며 강의가 이루어졌다.

금년이 유라시아재단이 지원하는 아시아공동체론 9년차 강좌이며 본 강좌는 10년차인 2022년 1학기까지 진행이 된다. 2013년 첫 강의 후 수강생의 의식변화를 중심으로 1차 조사가 실시된 바 있으며⁹⁾ 이번

2021년에 다시 한 번 2차 강의 사례를 조사하게 되었다. 1차 조사와 2차 조사의 차이점은 1차에서는 아시아공동체에 관련된 조사가 주가 되었다면 이번 2차 조사는 세계시민교육에 포커스를 두었다고 할 수 있다.

다음 <표 1>은 2021년 2학기에 수강생들에게 공지한 주별 강의 일정과 강의 주제, 강사진을 포함한 아시아공동체론 강의일정표이다.

<표 1> 아시아공동체론 강의일정표

일정	강의 언어	강의테마	강사(소속기관)
제1회 8/30	한국어	아시아공동체론 오리엔테이션	정기영 (부산외국어대학 교수)
제2회 9/6	한국어	유라시아 관문으로써의 부산의 역할과 기대	로이 알록 (부산외국어대학 교수)
제3회 9/13	한국어	지금 왜 아시아공동체론인가?	정준곤 (유라시아재단 수석 연구원)
제4회 9/20	한국어	대전환기에 한일관계는 어디로 가야하나?	신각수 (전 주일본한국대사, 법무법인 세종고문)
제5회 9/27	한국어	간문화적 시티즌십으로써의 외국어교육	모리야마 신 (오차노미즈여자대학 교수)
제6회 10/4	한국어	글로벌 인재상과 시티즌십 교육	정기영 (부산외국어대학 교수)
제7회 10/11	한국어	탄뎀을 통한 시티즌십 교육	히라나카 유카리 (부산외국어대학 교수)
제8회 10/18	일본어	다민족 국가의 관용성에 대하여	나스 요시히코 (전 부산외국어대학 교수)
제9회 10/25	한국어	글로벌시티즌십, 도시브랜드로 이야기한다	이진호 (동서대학 교수)
제10회 11/1	일본어	다언어 다문화 동시학습 지원과 대학발 벤처	나가토모 카즈히코 (주)미야자키국제교육서비스,

9) 정기영 외 4명(2015), '아시아공동체론' 강의사례 연구 -부산외대 '아시아공동체론' 수강생의 인식변화를 중심으로-, 일본어교육학회 31집, pp.207~224 참조

제11회 11/8	일본어	시티즌십과 복수언어 능력	미야자키대학 교수 야마모토 사에리 (야마구치대학 교수)
제12회 11/15	한국어	코로나19 팬데믹후의 온/오프 라인 커뮤니케이션에 의한 하이브리드 교육법을 통한 탄뎀학습에서의 글로벌인식강화	하수권 (부산외국어대학 교수)
제13회 11/22	한국어	시티즌십과 글로벌 공무원의 길	박우근 (전 수영구부구청장, 부경대학 교수)
제14회 11/29	한국어	아시아공동체를 향해서	정기영 (부산외국어대학 교수)

4. 아시아공동체론과 세계시민 교육 강의 설문조사 및 분석

‘아시아공동체론’ 강의 후 의식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본 강좌 수강생 246명이며 조사 내용은 <기초 질문>, <아시아공동체와 세계시민 교육에 대한 의식변화에 관한 질문>, <강의 만족도/이해도/문제점>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4.1. 설문조사 대상자 및 조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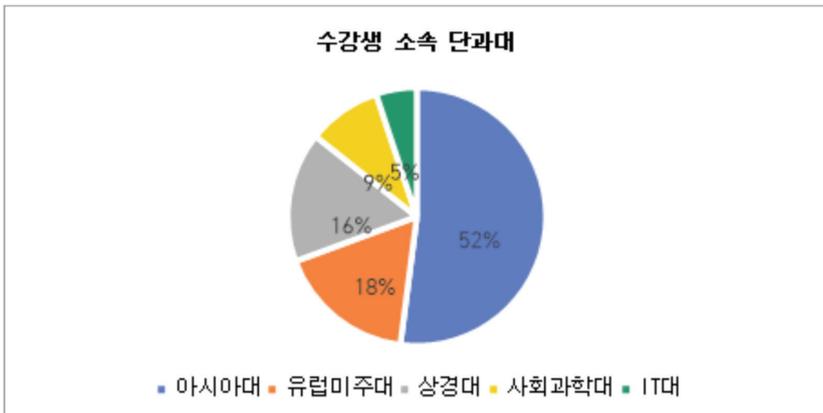
조사대상은 아시아공동체론을 수강한 부산외국어대학교 재학생들이며 조사 기간은 2021년 2학기이다. 설문조사는 강의를 시작하기 전과 15주차의 모든 강의를 끝난 후 수강생들에게 수강 전후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전문 강사를 초청하여 강의를 진행된 2주차부터 15주차 까지 강의의 이해도와 만족도, 느낀점을 매주 양케이트 형식의 과제로 제출하도록 하였다.

아시아공동체론은 3시간 연속 강의이므로 중간에 휴식시간 15분을 가졌는데 그 사이에 수강생들이 강의에 관한 질문 또는 느낀점을 구글

폼으로 제출하게 함으로써 강연을 듣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어떠한 점에 더 흥미를 느끼는지 실시간으로 알 수 있었다. 휴식시간이 끝난 후에는 구글폼으로 제시한 질문지를 토대로 진행자인 과목 담당교수와 강연자는 강의를 되돌아보면서 여러 수강생들의 의견을 듣고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4.2. 설문조사 대상자 기초 질문 및 분석

본 강좌 수강생 246명 중 아시아대학 소속 학생들이 127명, 약 51%를 차지했으며 유럽미주대학 약 17%, 상경대학 약 16%, 사회과학대학 약 9%, IT대학 약 5% 등 아시아대학에 속한 학생이 아니더라도 아시아공동체론이라는 과목에 다양한 전공분야의 많은 수강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수강신청을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수강생 소속 단과대

학년 분포도는 20학번이 62명으로 가장 많았고 13, 11학번이 각 1명으로 가장 적었으므로 현재 2, 3학년 수강생들이 본 강좌에서 가장 많은 비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수강 이유도 조사항목에 포함했는데 “학점을 얻기 위하여”, “아시아 공동체에 관심이 있어서”, “친구나 교수의 추천 또는 소개” “다양한 강사진” 등 여러 이유가 있었으나 그 중에서도 아시아공동체에 관심이 있어서 수강 신청을 했다는 수강생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4.3. 아시아공동체와 세계시민 교육에 관한 의식변화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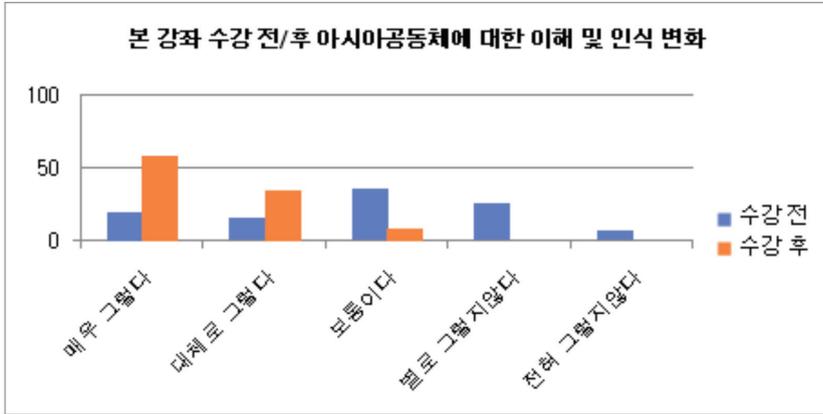
다음은 아시아공동체와 세계시민 교육에 대한 의식변화 및 분석이다. 아시아공동체, 그리고 세계시민 교육을 주제로 한 본 강좌를 수강하기 전과 수강한 후 수강생들에게는 어떤 의식의 변화가 일어났는지 조사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4.3.1. 아시아공동체에 대한 의식변화 분석

수강생의 의식변화에 관한 질문 중 먼저 아시아공동체에 대한 의식이 강좌 전후로 어떻게 변화하였는지에 관하여 조사해보았다.

“본 강좌 수강 전 아시아공동체에 대한 이해 및 인식이 있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유효 응답자 216명 중 매우 그렇다가 40명(약 19%), 대체로 그렇다가 33명(약 15%), 보통이다가 76명(약 35%)과 같이 대부분의 수강생이 아시아공동체에 대한 이해 및 인식이 어느 정도 있지만 한편으로 별로 그렇지않다가 54명(25%), 전혀 그렇지않다가 14명(약 6%)으로 잘 모르고 관심이 없는 수강생도 적지 않았다.

이에 반해 15주차의 강좌가 모두 끝난 후 시행한 강의 후 설문조사의 질문 중 “본 강좌 수강 후 아시아공동체에 대한 이해 및 인식이 있었습니까?”라는 질문에는 매우 그렇다가 125명(약 58%), 대체로 그렇다가 73명(약 34%), 보통이다가 17명(약 8%), ‘별로 그렇지않다’와 ‘전혀 그렇지않다’에 응답한 수강생 수는 총 1명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그림 2>와 같다.



〈그림 2〉 본 강좌 수강 전/후 아시아공동체에 대한 이해 및 인식 변화

앞서 보여주듯이 본 강좌 수강 전에 아시아공동체에 대한 이해 및 인식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보통 미만으로 답하였던 수강생은 총 90명이었으나 본 강좌 수강 후에는 1명에 불과했으며 이것은 다수의 수강생들이 아시아공동체론 강좌를 수강함으로써 아시아공동체에 대해 관심을 보이게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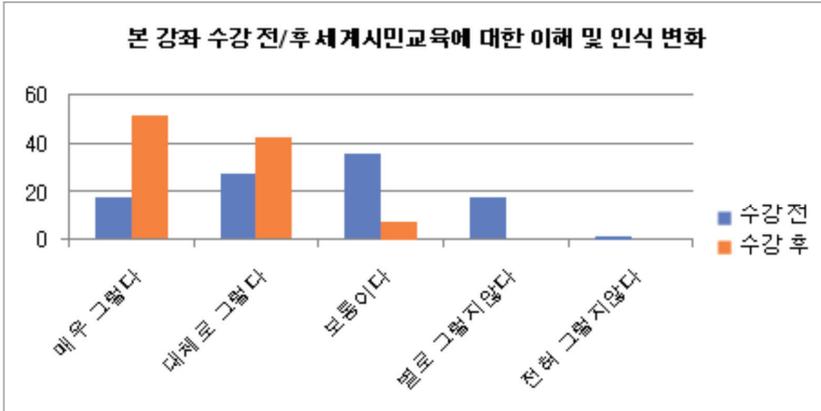
4.3.2.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의식변화 분석

다음 문항은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의식이 강좌 전/후로 어떻게 변화하였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본 강좌 수강 전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이해 및 인식이 있었습니까?”에 대한 답변으로 매우 그렇다가 36명(약 17%), 대체로 그렇다가 58명(약 27%), 보통이다가 76명(약 35%), 별로 그렇지않다가 38명(약 17%), 전혀 그렇지않다가 3명(약 1%)으로 아시아공동체론 강좌를 수강하기 전에는 세계시민교육에 대해 알고있는 수강생이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강좌가 끝난 후 “본 강좌 수강 후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이해 및 인식이 있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는 매우 그렇다가 110명(약 51%), 대체로 그렇다가 91명(약 42%), 보통이다가 15명(약

7%), ‘별로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는 0명으로 대부분의 수강생들이 본 강좌를 통하여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그림 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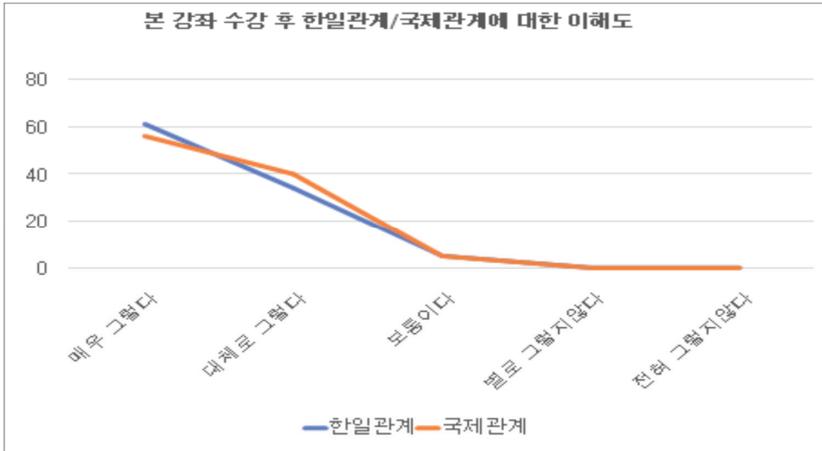


〈그림 3〉 본 강좌 수강 전/후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이해 및 인식 변화

4.3.3. 강의 내용에 대한 이해도 및 만족도 분석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의 수강생들이 1학기 강의 내용을 모두 매우 잘 이해하거나 대체로 이해한다고 하였고 강의의 질에 있어 매우 만족하거나 대체로 만족한다는 결과가 나왔다(그림5 참조).

추가로 아시아공동체와 세계시민 교육이라는 주제와 함께 최근 들어 더욱 경색되어 있는 한일관계와 국제관계에 대한 이해도 또한 함께 조사하였다. 그 자세한 내용은 <그림 4>와 같다.



〈그림 4〉 본 강좌 수강 후 한일관계/국제관계에 대한 이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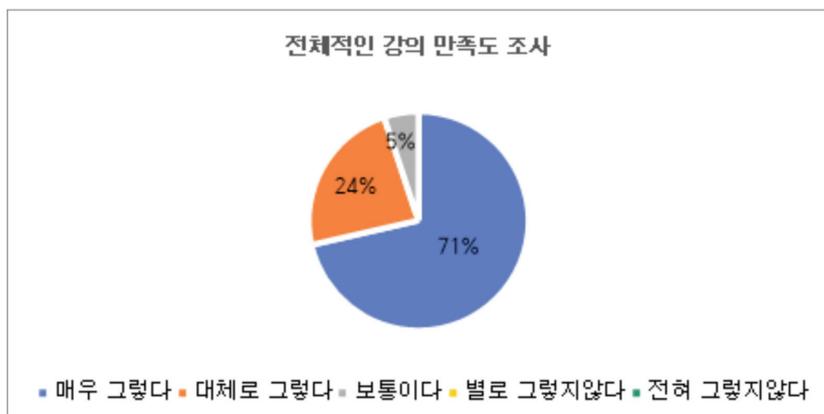
먼저 국제관계 이해도 조사결과이다. 국제관계에 관하여 매우 이해했다라는 응답에 120명(약 56%), 대체로 이해했다에 86명(약 40%), 보통이다에 10명(약 5%)으로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수강생은 단 한 명도 없었으며 이를 통해 아시아공동체론을 수강함으로써 수강생들의 국제관계 이해도가 수강 전에 비해 높아졌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한일관계에 대한 인식 변화를 조사해 본 결과 “본 강좌 수강 후 한일관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습니까?”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가 132명(약 61%), 대체로 그렇다가 73명(약 34%), 보통이다가 11명(약 5%), ‘별로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가 0명이었다.

역사적 측면에서, 또 정치적으로도 일본을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경향이 많아 한일관계에도 초점을 두고 그 분야의 전문가를 모셔 심도 있는 강의를 진행하였고 본 강좌를 통해 60% 이상의 수강생들에게 한일관계에 있어 긍정적인 의식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모든 강의가 끝난 후 추가로 진행한 전체적인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도 유효 응답자 216명 중 153명(약 70%)의 수강생이 매우 그렇다에, 51명(약 23%)의 수강생이 대체로 그렇다에, 11명(5%)의 수강

생이 보통이다에 응답하였으며 ‘별로 그렇지않다’와 ‘전혀 그렇지않다’에는 총 1명이 응답하였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보아 매우 그렇다와 대체로 그렇다에 답변한 수강생이 유효 응답자 216명 중 200명 이상으로 대부분의 수강생들이 본 강좌에 만족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그림 5>와 같다.



<그림 5> 전체적인 강의 만족도 조사

만족한 점에 있어서는 여러 의견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다양한 강사진’,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적어낼 수 있는 구글폼을 활용한 강의 형태’로 강의가 진행 되었다는 점이 가장 만족스러웠다는 결과가 나왔으며 반대로 불만족스러운 부분에 있어서는 ‘3시간의 긴 강의시간으로 인한 집중력 저하’, ‘비대면 강의로 인한 아쉬움’ 등 일부분의 강의운영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코로나19 이전에는 대면으로 본 강좌를 진행하였으나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하여 약 250명의 수강생이 한 장소에서 함께 강의를 듣는 것은 힘들 것으로 판단되어 ZOOM을 이용한 비대면 강의로 전환하였는데 ZOOM을 다루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 미숙한 점도 있었지만 비대면이었기에 다수의 수강생들이 만족했던 구글폼을 활용한 강의진행, 동시통역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었다.

더불어 앞서 2013년에 진행했던 강의사례 연구¹⁰⁾에서는 ‘아시아공동체론’ 강의에 만족하느냐는 질문에 유효 응답자 167명 중 매우 그렇다에 답한 수강생이 13명(약 8%), 조금 그렇다에 54명(약 32%), 보통이다에 75명(약 45%)으로 ‘매우 그렇다’와 ‘조금 그렇다’의 긍정적인 답변을 한 수강생은 40%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나 2021년에 진행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94%에 달하는 수강생이 대부분의 강의에 만족하였다는 결과가 나와 8년 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강의 방식을 적절히 보완해나감으로써 강의의 질이 향상되어 예전에 비해 수강생들에게 만족을 주었다는 것으로 추측한다.

4.4. 기타 최종 감상에 대한 분석

강좌가 모두 끝난 후 강의에 대한 최종 감상을 수강생들에게 기술식 형태로 제출하게 하였다.

다양한 감상평이 나왔으나 그 중 PASS/NON PASS 형식의 부담없는 수업, 평소에 만나볼 수 없는 각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로 구성된 다양한 강사진, 온타임으로 진행되는 구글폼을 이용한 강연자와 수강생의 질의응답 코너 등 전체적인 수업방식에 관한 긍정적인 평가가 43%로 가장 많았다. 그중에서 인상적인 수강생들의 의견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교수님 말씀대로 많은 수업들은 시험을 위해 무언가를 달달 외우기만 하는 공부를 하였다면 이 수업은 시험의 부담을 조금 내려놓고 어떠한 주제나 다른 학우분들의 의견을 듣고 나의 의견과 비교해보며 탐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앙케이트 자리를 빌려 좋은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힘써주신 교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출결이나 여러가지 공지사항 등을 학생들에게 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너무 친절하신 조교님께도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세 분 덕분에 아시아공동체론을 수강하며 배워가는 것이 정말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주 3시

10) 정기영 외 4명(2015), ‘아시아공동체론’ 강의사례 연구 -부산외대 ‘아시아공동체론’ 수강생의 의식변화를 중심으로-, 일본어교육학회 31집, p.216 참조

간 연속으로 다양한 강연, 통역, 질의응답까지 도와주신 교수님들과 조교님 모두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덕분에 아시아에 사는 한 시민으로써도 잘 모르고 있었던 지식들과 인생을 살아가면서 쉽게 얻을 수 없는 조언을 정말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문장들은 아시아공동체론 수강생 A와 B의 감상평을 인용한 것이다. 수강생들의 감상평을 보아 알 수 있듯이 본 강좌는 머리로 이해하는 지적 지식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삶의 교훈이 되고 자신의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강좌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아시아공동체, 세계시민, 한일관계에 대하여 이전에는 몰랐던 많은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다 또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었다는 평가가 31%로 가장 많았다. 이에 대한 수강생의 기술식 의견은 다음과 같다.

“초반에는 아시아공동체의 필요성과 시티즌십에 대해 잘 알지 못했는데 한 주 한 주 시간이 흐를수록 두 개의 개념이 머릿속에 정리되고 강의를 들을 때 이해하기도 편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어 강의를 진행할 때 동시통역을 해주셔서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고 교수님들과 조교님께서 친절하게 안내해주신 덕분에 한 학기 수업을 편하고 재밌게 들을 수 있어 감사함을 느낍니다.”

이처럼 본 강좌를 통해 아시아공동체의 필요성과 세계시민교육에 대해 전문 분야의 강사들을 초빙하여 보다 쉽게 이해하게하고 외국인 강사를 초빙하였을 때는 ZOOM의 동시통역 기능을 사용하여 부담없이 강연을 들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강생들에게 있어 강연에 대한 만족도를 한층 더 높일 수 있었다.

나머지 26%는 위의 만족도 조사에서 언급하였던 본 수업의 개선점, 부족했던 부분 등을 지적하였고 금후 있을 강의에는 수강생들에게 지금보다 더욱 만족도 높은 강의를 제공하기 위해 본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그 자세한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기타 최종 감상에 대한 분석

만족	수업형태·운영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ASS/NON PASS · 강연자와 온타임으로 진행되는 토론 수업 · 질문에 대한 신속한 답변
	수업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셔 강의의 퀄리티가 높음 · 아시아공동체/시티즌십에 대해 이해하게 되었고 흥미를 가지게 됨
	그 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국의 강연자가 강연을 할 때 동시통역 진행 · 강의 외에도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필요한 인생 선배들의 가치있고 유익한 이야기
불만족	수업형태·운영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시간 연속 수업으로 인한 집중력 저하 ·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ZOOM 수업
	수업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시아중에서도 특히나 일본에만 포커스가 맞추어져있음
	그 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나치게 많은 수강인원

5. 결론 및 금후의 과제

본 논문은 ‘아시아공동체론’ 강좌를 진행하며 시행한 설문조사 유효 응답자 216명을 바탕으로 ‘수강자의 현황’, ‘수강자의 의식변화’, ‘강의 내용에 대한 이해도와 만족도’에 대해 분석한 것이다.

수강자 현황 분석결과 아시아대학 학생이 응답자의 약 51%를 차지했으며 유효 응답자 216명 중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62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중 아시아공동체에 관심이 있어서 본 강좌를 수강했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나 본 강좌 수강 전 사전 설문조사에서는 아시아공동체에 대한 이해 및 인식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보통이다’와 ‘별로 그렇지않다’가 약 70%로 아시아공동체에 관심은 있으나 대부분의 수강생이 아시아공동체에 대해 잘 모르며 이해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강좌 수강 후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아시아공동체에 대한 이해 및 인식을 갖게 되었느냐는 질문에 약 82%의 수강생이 ‘매우 그렇다’ 또는 ‘대체로 그렇다’에 응답한 것으로 미루어보아

본 강좌를 통해 대다수의 수강생에게 아시아공동체에 대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여겨진다. 아시아공동체에 대한 이해 및 인식과 더불어 이번 강좌의 테마였던 세계시민에 대한 이해 및 인식 역시 강좌 전과 비교해 93%의 수강생이 강좌 후 세계시민에 대해 이해하였다는 결과가 나오므로써 이번 강좌가 미래 세대를 짊어지고 갈 글로벌 인재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강의내용에 대한 이해도와 만족도에 대해 분석한 결과 전체적인 강의 내용에 만족하느냐는 질문에 약 93%의 학생이 ‘매우 그렇다’와 ‘대체로 그렇다’의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반면 8년전(2013년) 시행했던 강의사례 연구에서는 ‘매우 그렇다’와 ‘대체로 그렇다’가 40%로 나타났으며 2013년과 비교하여 53% 비율의 수강생이 본 강좌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이유는 강의운영 방식에 대한 불만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분석되는데 2013년의 ‘아시아공동체론’ 강의운영 방식은 약 200명이 한 공간에 모여 강의를 듣는 대면 강의이었으며 그 중에서도 ‘지정석’에 관한 불만이 가장 많았다. 반면 2021년에 진행된 본 강좌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으로 진행하였는데 지금까지 강의의 시행착오를 겪으며 9년차 ‘아시아공동체론’ 강좌의 강의방식에 대해 어떻게 해야 수강생들로 하여금 만족스러운 강좌가 될 수 있을까 고민한 결과 비대면이기에 가능하였던 구글폼을 활용한 질의응답 코너를 준비하였고, 여러 분야별 전문가들을 모셔 강연을 듣고 난 후, 수강생들과 장시간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지적으로 자극함으로써 과거의 강좌와 비교해 수강생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올라간 것이라고 추측되어진다. 그 외의 이유로는 이클래스(e-class)를 통한 강의 자료 사전 공유, 강의후 강좌 동영상 공유, 학습자 눈높이 맞는 강의 내용 및 강의 구성, 각 분야의 전문 강사진, 종합적인 강좌 운영 노하우의 상향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어 진다.

만족하는 수강생이 있는 반면 불만족스럽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그 중 3시간동안 진행되는 연속강의이었으므로 강의가 끝날 때까지 집중력을 유지할 수 없다고 하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나 본교의 교원들로

이루어지는 강의가 아닌 외부강사를 초청하여 진행되는 특별강연식 강좌로 주 1일로 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3시간의 강연시간동안 중간에 충분한 휴식시간을 확보하거나 강의가 길어지지 않도록 조정하는 등 수강생들의 집중력을 재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강의 중 수강생들의 적극적인 참가를 위해 ZOOM의 채팅 기능 이용 또는 ICT도구 개발을 통하여 일방적인 강의가 아닌 수강생들의 참여도를 높이는 강좌를 만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온라인/오프라인 각각의 장단점이 있지만 온라인으로 진행한 이번 학기 아시아공동체론은 수강생들의 관리에 부족한 부분은 있었으나 오프라인으로 진행했을 때 수강생들이 불만족스러워하였던 부분을 충족하는 계기도 되었으며 강의를 바로 녹화하여 동영상을 이클래스에 업로드하여 강의를 되돌아 볼 수 있게 되었다. 이렇듯 학습자들의 의욕만 있다면 온라인 강의를 오프라인 강의보다 상당히 효율적인 부분이 많았으며 강의의 효율성, 학교의 경영적인 측면, 강의실 확보 등 다각도로 볼 때 우리 대학의 교육 패러다임이 오프라인 중심에서 온라인으로 이동하는 가운데 이번 경험을 발판 삼아 대단위 교양강좌의 경우는 온라인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진다.

하지만 본 강좌의 문제점으로 나타나는 3시간 연속강의로 인한 집중저하의 문제, 보이지 않는 성취도가 낮은 수강생들에 대한 관리 등과 같이 몇몇의 단점도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전면 온라인 강좌가 아닌 강의 동영상을 제작하여 수동적으로 듣는 강의는 온라인화 하여 수강생의 자율학습에 맡겨두고, 학생들과 상호작용하는 질의응답은 ZOOM과 같은 도구를 이용해 온라인 온타임 수업으로 하여 강연자와 실질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강의, 즉 플립러닝화 시킨다면 수강생들의 강의 만족도도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진다.

이상과 같이 본 사례조사를 통해서 대단위 교양강좌는 온라인 강의, 오프라인 강의 어느 한 편에 치우치는 것이 아닌, 어느 정도 강연자와 소통할 수 있으면서 자유롭게 강의를 들을 수 있는 플립러닝식 교육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경험을 한 것이 이번 강좌 분석을 통해 얻은 부과적인 수확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본 조사를 통해

서 외국어만을 구사하는 글로벌인재가 아닌 민족주의를 넘어선 세계시민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외국어교육 커리큘럼 속에 아시아공동체론과 세계시민 교육 등을 통해서 수강생들의 글로벌 마인드 및 세계시민 의식을 변화 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밝혀진 내용들과 학습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새로운 커리큘럼과 함께 앞으로의 외국어 및 다문화 교육이 언어, 문화 중심 교육에서 타학문분야와의 융합교육으로, 융합교육에서 세계시민교육으로 발전해나가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병성 편집(2015). 아시아의 꿈과 신아시아인 육성을 위한 교육, 문무사.
- 노찬옥(2001).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시안적 연구 -세계 시민의 위상과 세계 시민교육의 방향 탐색-, 한국사회과교육학회.
- 아유카와 료(2014). 원아시아의 헤럴드, 法文社.
- 정기영 외 4명(2015). '아시아공동체론' 강의사례 연구 -부산외대 '아시아공동체론' 수강생의 의식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일어교육학회 31집. pp.207~224 참조.
- 정기영 엮음(2015). 아시아공동체와 다언어 다문화 커뮤니케이션, 솔과학.
- 정기영 엮음(2015). 아시아공동체와 지역사정, 솔과학.
- 정기영(2021).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일본어교육과 국제교류의 새로운 가능성, 현장대학교실무연구논총 10호.
- 鮎川良(2013). ワンアジアの使者たち-アジア共同体をめざして-, 芦書房.
- 小林亮(2018). ユネスコの地球市民教育が追求する能力 -グローバル時代における価値教育の新たな展望-, 玉川大学教育学部紀要 18g号, pp.19~32.
- 유네스코 홈페이지 : <https://en.unesco.org/themes/gced>
- 일반사단법인 유라시아재단 from Asia 홈페이지 : <http://www.eura>

필자 소개

성 명 정기영

소 속 부산외국어대학교 일본어융합학부교수, 아시아공동체연구소장

주 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샘로 485번길 65 [우편번호] 46234

전자우편 gyjung@bufs.ac.kr

성 명 히라나카 유카리

소 속 부산외국어대학교 일본어융합학부 부교수

주 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샘로 485번길 65 [우편번호] 46234

전자우편 yukari51988@gmail.com

성 명 조희주

소 속 부산외국어대학교 일본어융합학부 학생

주 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샘로 485번길 65 [우편번호] 46234

전자우편 whgmlwn917@gmail.com

Abstract

A Study on the Change of University Students' Consciousness through Asian Community Theory and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Jung, gi-young · Hiranaka Yukari · Jo, hee-ju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In this study, we invited speakers from each field to conduct omnibus-style lectures every week under the keywords “Asia Community” and “World Citizen Education” in the university’s liberal arts lecture “Asia Community Theory” to build a future society like an EU community, and to explore the world.

Key words Asian Community, Citizenship Education, multicultural education, foreign language education

투고일 2022. 10. 31 / 심사일 2022. 11. 2 / 심사완료일 2022. 11. 16

〈부록 1〉 설문조사 문항

이름:	학번:		학과: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질문					
Q1. 본 강좌를 수강하기 전에 아시아공동체에 대한 이해 및 인식이 있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Q2. 본 강좌를 수강 한 후 아시아공동체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Q3. 본 강좌를 수강 하기 전에는 아시아공동체의 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Q4. 본 강좌를 수강 한 후 아시아공동체의 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①	②	③	④	⑤
Q5. 미래에 아시아 국가들이 EU와 같은 공동체를 결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①	②	③	④	⑤
Q6. 본 강좌를 수강하기 전에 시터즌십(시민성, 시민의식)에 대한 이해 및 인식이 있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Q7. 본 강좌를 수강한 후 시터즌십(시민성, 시민의식)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Q8. 본 강좌를 수강한 후 국제관계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Q9. 본 강좌를 수강한 후 한일관계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Q10. 본 강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만족합니까?	①	②	③	④	⑤
Q11. 어떤 점이 만족스럽습니까?					
Q12. 어떤 점이 불만족스럽습니까?					
Q13. 수업에 대한 전체적인 감상이나 의견, 개선점 등이 있다면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한 아세안 교류 증가에 따른 국제친화형 다문화 인재 양성 특성화 방안*

황미혜

(부산외국어대학교)

1. 서론
2. 한 아세안 교류 증가에 따른 특성화 추진 배경
 - 2.1. 국제친화형 다문화 인재 양성에 대한 수요와 공급
 - 2.2. 국제친화형 다문화 인재 양성의 필요성
3. 국제친화형 다문화 인재 양성 특성화 방안
 - 3.1. 배경
 - 3.2. 다문화관련 지역 교육기관과의 연계 협력 방안
4. 결론

국문초록

한국 다문화사회에서 다문화 인재 양성 전략의 성공 여부는 교육적인 비전 공유 및 적극적인 교육 행정지원이 함께 이루어질 때 효과성은 극대화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아세안 교류 증가에 따른 결혼이민자들을 활용한 국제친화형 다문화 인재 양성 특성화 방안을 지역 기관과 교육 연계성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한국사회에서 아세안 국가 출신 결혼이민자들에 대한 국제친화형 다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과제번호)(NRF-2020S1A5B5A17090802)

문화 인재로서의 양성 교육 방법의 성패 여부는 한국 정부의 다문화정책과 결혼 이민자들의 적극적인 의지가 관건이다. 아울러 지자체 및 민간단체의 비전 공유와 지역 대학기관의 교육서비스가 실시간적으로 지원되는지, 그 여부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주제에 한 아세안 교류 증가, 결혼이민자, 양성과정, 국제친화형 다문화 인재

1. 서론

2019년 11월 부산에서 개최되었던 제3차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이후 한 아세안의 교류 증가는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 정부는 아세안 회원 국가들(10개국)¹⁾과의 외교·경제적 협력 필요성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2022년까지 아세안 회원 국가 대상 전체 정규 초·중등학교 및 대학 내에 한국어과정을 확대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한국 정부의 아세안에 대한 적극적 교류의 기본 취지는 외교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려는 정책이다. 이러한 한·아세안의 협력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이러한 협력은 인적 이동으로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다양한 분야에서 심화적으로 다룰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Martiniello(2002)는 이민으로 형성된 이민자들의 문화적 정체성과 특수성이 공적으로 인정됨으로 문화와 정체성의 다양성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다원주의적 접근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에 근거하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이민자들의 특징을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한국의 이민 유형의 특성상 아시아 출신 국가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태국 등 아세안 국가 출신 이민자들의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 2022년 기준 현재 이민자 중 약 218만 명 중에서 24%가 아세안 국가 출신이다(법무부 2021).

1)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 2022년 기준 아세안 회원국가인 라오스,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미얀마, 싱가포르,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10개국이 회원국에 속해 있다.

한편 한국은 세계적인 IT 강국으로 이에 따른 경제적 측면, 즉 통신 인프라 관련 또한 발전하고 있다. 각 국가별 인재 유치 경쟁에서도 이민자들을 유입하는 국가의 관점에서는 언어를 잘 구사할 수 있는 이민자들을 더 선호할 수밖에 없다. 한·아세안 지역의 교류 증가에 따른 연구는 주로 FTA, 기금 협력 등 경제 교류 측면(김동엽 2022; 신유진 외 2022; 이요한 2021; 박민정 2020)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경제 교류 측면에서 문화와 언어를 다양하게 공유하는 인재 양성 관련은 경제적 측면과 대비하면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세안 국가 출신 이민자들을 매개체로 하는 연구는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다문화적 콘텐츠는 국가를 초월하는 양상이 존재하므로, 국제적인 인재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다문화사회로 진입한 한국에서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한·아세안 지역의 교류 증가에 따른 국제친화형 다문화 인재 양성 특성화 방안에서 결혼이민자²⁾들을 매개체로 하여 다루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첫째, 한국의 전체 이민자 중에서 아세안 국가 출신 결혼이민자들의 현황에 따른 특성화 추진 배경과 둘째, 배경 및 주요 추진 현황을 통해 특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2. 한 아세안 교류 증가에 따른 특성화 추진 배경

2.1. 국제친화형 다문화 인재 양성에 대한 수요와 공급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결과문서(ASEAN-ROK Joint

2) 국민과의 혼인관계를 바탕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으로서 F-2-1(국민의 배우자 구 체류자격), F-5-2(결혼이민 영주자격), F-6-1(국민의 배우자 신 체류자격), F-6-2(자녀 양육), F-6-3(혼인 단절) 체류 자격 소지자로 귀화 등으로 혼인귀화자는 체류외국인 통계에서 제외한다(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주요 용어 설명, 2021). 그러나 본 연구에서 결혼이민자의 정의는 혼인귀화자를 포함하여 결혼이민자를 정의하고 있다.

Vision State for Peace, Prosperity and Partnership)에는 한국과 아세안 사이의 인적 이동과 문화교류, 인적 교류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2018년 8월에 발표한 정책 내용에서는 평화(Peace), 상생번영(Prosperity) 그리고 사람(People)의 3P, 3대 영역의 16개 세부과제를 제출하였다. 기존의 한국과 아세안 교류는 주로 무역 및 투자 중심 경제 관계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신남방정책을 통해 '사람 중심(People-centered)의 한·아세안 관계'로 질적 전환을 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조영희·최경희 2020). 한·아세안 정상회의 결과문서(ASEAN-ROK Joint Vision State for Peace, Prosperity and Partnership)에는 인적 이동과 문화교류, 인적 교류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의 주요 용어 개념에서 친화형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산업, 환경, 고령 등에 기반한 연구에서 친화형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산업현장 친화형(장승권 외 2013; 이상원 2021), 도시발전방안, 가로등 디자인 등의 시민 친화형(김미성 외 2022; 정용진 외 2022), 운동기구개발, 공원만족도 등 고령 및 노인 친화형(조현주 외 2017; 인샤오옌 외 2022) 관련 분야가 연구되고 있다. Martiniello(2002)는 장기화되고 있는 이민자들은 출신 국가의 문화와 거주하고 있는 국가의 문화도 지닌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국의 아세안 국가 출신 결혼이민자들은 전체 체류외국인³⁾보다 국민됨을 전제로 정주화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어와 모국의 언어를 병행하여 구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국제친화형 다문화 인재에 대한 용어의 정의는 아세안 10개 국가 출신 결혼이민자들은 한국어를 병행할 수 있는 구성원이기 때문에 쌍방향 언어에 대한 친화력이 자연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고, 배경이 국제적이므로 국제친화형이라고 정의한다.⁴⁾ 한국은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바로 인

3) 체류외국인은 관광 등 목적을 두고 90일 이내 단기체류 외국인과 91일 이상 장기 거주 등록외국인, 외국국적동포로 거소신고자 등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모든* 체류외국인(* 체류만료일을 경과한 불법체류외국인도 포함)을 말한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1년 통계연보 인용). 법무부의 체류외국인의 통계에서는 국적취득자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4) 본 연구의 용어 정의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적자원의 역할이었다. 이러한 역할에서 결혼이민자들이 국제친화형 다문화 인재 역량을 갖추도록 특성화 방안이 개발되어 운영된다면 국가의 경쟁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적합한 교육이 필요하며, 적합한 교육을 거친 인재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이형래 2006).

법무부 통계월보 2022년 8월 기준 결혼이민자들은 170,307명이며, 혼인귀화자는 151,313명으로 조사되었다(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2년 8월 통계월보). 결혼이민자들뿐만 아니라 외국인근로자, 외국인유학생 등 다양한 유형으로 한국사회에 유입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따른 언어, 문화적 접근의 측면에서 바라볼 때, 한국사회의 공존을 위한 결혼이민자들의 역할이 긍정적으로 점차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한편 결혼이민자들은 연령대별로는 29세 이하 14.3%, 30대 36.4%, 40대 24.0%, 50대 16.0%, 60세 이상은 9.2%로 젊은 연령대가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또한 체류 기간별로 살펴보면 15년 이상이 39.9%, 10~15년 미만 28.9%, 5~10년 미만 19.2%, 5년 미만 12.1%를 차지하고 있다. 2018년 대비 15년 미만 거주 비율은 감소하고, 15년 이상 거주 비율이 급증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22). 이러한 결혼이민자들의 젊은 연령층과 장기거주화에 따른 이들의 언어, 문화 등 특징을 반영하는 정책이 다양하게 시행될 필요가 있다.

다음의 <표 1>은 한국에 거주하는 아세안 국가 체류외국인의 총계로 결혼이민자들이 차지하는 비율을 수로 나타내고 있다. 브루나이의 경우에는 체류외국인의 통계는 있으나 결혼이민자들은 아직 없다. 브루나이를 제외한 아세안 9개 국가의 총계에서 결혼이민자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결혼이민자들은 남성들에 비해 여성들의 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통번역사 지원 조건에 해당되는 한국어능력시험 고급 단계인 5급 이상으로 결혼이민자들 중 다문화 인재 범위를 두고자 한다.

〈표 1〉 아세안 국가 체류외국인과 결혼이민자 분포 비교

(단위: 명)

국적	총계	남성 (결혼이민자 제외)	여성 (결혼이민자 제외)	결혼 이민자 (소계)	남성	여성
베트남	220,444	86,769	92,159	41,516	3,560	37,956
필리핀	62,117	19,901	18,134	12,041	528	11,513
타이	44,463	19,908	11,439	6,558	122	6,436
캄보디아	43,420	27,162	13,101	4,565	546	4,019
인도네시아	47,366	27,243	13,701	1,073	111	962
라오스	2,196	380	720	548	1	547
말레이시아	4,082	1,816	1,626	320	68	252
미얀마	24,837	22,632	1,651	277	59	218
싱가포르	986	261	393	166	58	108
브루나이	55	20	35	0	0	0

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2년 8월 통계월보에서 인용하여 본 연구자 재구성

앞의 〈표 1〉에서 나타나듯이 아세안 국가들은 결혼이민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유형의 아세안 이민자들도 분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른 유형의 아세안 이민자들, 예를 들어 외국인근로자(E-9) 관련산업체의 통번역 관련 업무도 출신 국가 언어에 따라 결혼이민자들이 활동하고 있다. 주로 활동하는 분야는 대표적으로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인력공단, 법무부, 경찰청 외사과 등 관련 정부 부처에서 통역 등을 하고 있다. 또한 결혼이민자들은 한국의 공교육 현장에서 주로 다문화 언어강사 활동을 하고 있다(교육부 2022). 그러나 이러한 활동은 단지 언어 교육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체험 수업하기 등의 기능에만 머무르고 있다. 이와 같이 한국 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 구성원의 다양화와 정주화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인재로서의 능력을 발휘하기에는 운신의 폭이 좁은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한·아세안 교류 증가에 따른 국제친화형 다문화 인재 양성 특성화 방안이라는 연구주제를 설정하고 한·아세안 교

류가 상호소통을 근간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다.

첫 번째, 한·아세안 교류 증가에 따른 상호소통의 필요성이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아세안 지역에 대한 이해는 다소 미흡하며, 게다가 결혼이민자, 외국인근로자, 불법체류외국인 등의 부정적인 인식까지 만연해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22).⁵⁾ 이러한 막연한 편견 등으로 인한 부정적인 인식은 한국의 다문화사회 구성원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을 필요로 하고 있다. 효율적인 정보 전달을 위한 하나의 접근 방안은 아세안 국가 출신 결혼이민자들의 언어, 문화 등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내국인에게는 아세안 국가의 문화 등을 전달하고 외국인에게는 한국의 문화 등을 전달하는 역할의 가능성이다. 나아가 한·아세안 정치, 경제, 무역 등 다양한 방면에서 순기능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다문화 인재로서의 연계 가능성 이다.

두 번째, 한국 내에서도 이민자들의 분포도가 상이하기 때문에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2019년 부산에서 진행되었던 한·아세안 정상회의 시즌 동안 부산을 다녀간 사람이 2만 6천여 명에 달했으며, 이는 놀라운 성과로 기록되었다(이재현 2019: 172). 특히 부산 지역은 아세안 국가에 속하는 베트남 결혼이민자들의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베트남 출신 국가 결혼이민자들의 통번역 등 활동이 풍부한 지역인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법무부 2021). 국제적으로 아세안 국가에 대한 관심은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아세안 지역과 지정학적으로 가까운 중국과 일본도 국가적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김정주·김경연(2017)은 일본의 국제개발 협력 중 교육 분야에서 특히 ASEAN에 대한 교육개발 협력 방안 정책 및 전략을 연구하였다. 한태인(2011)은 대학의 국제협력 네트워크로 아세안사이버대학교 운영과 교육 자원, 프로그램 개발 공유와 ICT 수준 차이의 최소화, 교육시장 개방에 대비한 고등교육 질적 제고 및 대학의 역량 강화를 제안하였다.

5)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2022.03.21):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이주인권 정책' (<https://www.humanrights.go.kr>).

세 번째, 상호협력적 인적 자원 기반의 공유와 확산이다. 한국의 결혼이민자들을 활용한 국제친화형 다문화 인재 양성 특성화 방안은 단지 일시적이며, 무형의 교육 구축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결혼이민자들이 향후 소통, 무역, 문화교류, 의료 등 국제관계에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향후 한·아세안 교류 증가에 있어서 결혼이민자들을 활용한 국제친화형 다문화 인재 양성 특성화 방안에 대한 기초 방안 제시를 목표로 한다.

2.2. 국제친화형 다문화 인재 양성의 필요성

다문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언어, 문화, 무역 방면의 융합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 2022년 기준 현재 한국에 체류하는 아세안 국가 출신 이민자는 약 60만 명 정도에 달한다. 체류 기간 기준으로 살펴보면 장기체류가 61%이며, 단기체류는 38%, 영주를 비롯한 기타 자격 체류가 1%로 나타나고 있다. 체류 유형별 기준에서는 노동이주 55%, 결혼이민자가 16%, 유학생은 14%, 기타가 15%를 차지하였다(2021, ASEAN Korean Journal). 이러한 통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우리 사회의 다문화 정책에 대한 비판적 논의가 여러 측면에서 제기되고 있다. 한국인이 아세안을 이해하는 태도와 관점의 수준 역시 변화가 필요하며, 이는 아세안으로 향하는 한국인 수는 한국으로 오는 아세안 수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이유에서도 찾을 수 있다(법무부 2021).

다문화사회에서 요구하는 국가 경쟁력 시장이 갈수록 거대해지고 있으며,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초국가적 인재에 대한 국가적 전략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다문화와 관련된 이주산업은 갈수록 규모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과학, 통신의 발달과 더불어 전 세계가 시간적 및 공간적인 한계를 초월하여 나타나고 있다. 특히 아세안 국가는 역사적, 문화적으로도 한국과의 교류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역사적 활용을 통한 협력적 관계에서는 유리한 측면도 있다(조선왕조실록). 한·아세안 관련 연구로는 주로 교육개발 협력에 관한 것으로 김갑성(2012)은 한

국의 역할 정립을 위해 교육 발전을 위한 협력 주도국으로서 동남아시아 국가 대상 국제교육개발 관련 협력사업에 대한 추진 방안을 연구하였다. 채재은(2015)의 연구에서는 교육개발협력에 있어서 베트남에 대한 수요를 살펴보고, 이를 위한 충족 방안을 교육적 접근으로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의 역할에 대해 분석하였다.

결혼이민자들은 한국인의 배우자로 국민됨을 전제로 한국사회에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까지 관계망을 가지고 있다. 2021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서 결혼이민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에서는 1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결혼이민자들이 전체 대비 39.9%로 정착 주기가 장기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자녀들의 비중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특히 다문화가족의 자녀들 중 만 9세부터 24세까지는 44.9%로 2018년 실태조사 대비 8.3% 상승하였다.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이 주류사회로 서서히 진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여성가족부, 2021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21세기는 아시아의 시대로 전망하고 있으며, 지리적 및 경제적으로 상호의존적인 아세안 국가들과 앞으로 더욱 밀접한 관계로 연계될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아세안에 대한 인적 자원 개발 관련한 연구는 다른 분야에 비해 여전히 미흡하다는 점이다.

3. 국제친화형 다문화 인재 양성 특성화 방안

3.1. 배경

전 세계를 강타했던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 하에서 한국의 체류외국인은 급감하였다.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아세안 공동체 추진 동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아 아세안 차원의 코로나 19 통합 출구전략인 '아세안포괄적회복프레임워크(ACRF: ASEAN Comprehensive Recovery Framework Implementation)'를 발표하였다. 이러한 아세안의 상황은 한국이 아세안 공동체의 목표 및 가치와 긴밀히 연계되어 있으므로 한·아세안 공동체의 변화는 한·아세안 협력 방향에도 영향을 줄 가

능성이 크다는 것이다(라미령 외 2022).

연도별 인구대비를 살펴보면 2016년에서 2021년까지 체류외국인조사에서, 총인구 대비 체류외국인은 2017년 4.21%, 2019년 4.87%의 지속적인 증가에서 코로나 19 팬데믹의 영향으로 2021년에는 3.79%로 감소하였다. 반면 결혼이민자들에 대한 국제결혼 흐름은 코로나 19 팬데믹의 영향으로 다른 이민자와 같이 둔화 상태를 보이기는 해도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인이 외국인배우자를 초청하기 위한 의무 교육인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⁶⁾ 참여자가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결혼이민자들의 수도 증가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다음의 <표 2>는 한국인들이 외국인배우자를 초청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참여자 현황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

<표 2>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참여자 현황

(단위: 명)

총계	'10~ '15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2년 1~8월
104,481	61,894	7,334	7,784	8,821	9,667	4,226	2,175	2,580

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2년 8월 통계월보에서 인용하여 본 연구자 재구성

한편 한국의 사회통합에서 이민자가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을 위하여 필수적인 기본소양을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2009년 4월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 및 한국사회이해 교육과정으로 구성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2010년부터 2022년 기준 현재까지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과정은 한국어 및 한국문화 4단계(기초단계포함 416시간), 그리고 한국사회이해 5단계는 기본반(70시간), 심화반(30시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사후 교육과정으로 2022년 7월부터 F2(거주), F5(영

6)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은 국제결혼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고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2010년 10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몽골, 태국, 우즈베키스탄 7개국 출신 이민자와 결혼하려고 하는 한국인 배우자는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을 반드시 이수해야만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할 수 있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1년 통계연보 인용).

주), 국적취득예정자, 귀화신청자 및 이공계 연구원, 유학생을 대상으로 영주 및 귀화자의 권리와 의무, 법질서 교육 등 통합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통합시민교육은 한국사회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 및 지역 정보 등 기초적인 교육만 실시하고 있다. 반면 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친화적인 통번역과정 등 전문가 과정은 아직 운영되지 않고 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은 2009년 전국 ABT(Active Brain Tower) 대학을 중심으로 20개소에서 시작하였으며, 2022년 기준 현재 366개 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전체 참여자 수는 2022년 8월까지 총 373,034명으로 나타난다(사회통합정보망 Soci-Net). 이러한 이민자 참여자 수는 2009년 1,331명에서 2019년 56,535명까지 한국의 이민자 점수제 등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법무부 통계연보 기준 2021년 전체 이민자 참여자 43,552명 중 결혼이민자는 18,096명으로 41.6%,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은 6,442명으로 14.8%, 기타 체류자격 소지 재한외국인 등은 19,014명으로 43.6%를 차지하고 있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1년 통계연보 인용).

이러한 맥락에서 기존의 다문화 인재 관련 연구에서 핵심 가치와 함의를 세심하게 분석하여 수용함으로써 다문화 관련 연구의 새로운 방향성 설계에 대한 기본 토대로 삼을 수 있다. 결혼이민자들에게 요구되는 능력의 배양 방안에서 이러한 목적들을 통해 본 연구는 한·아세안 교류 협력 차원으로 결혼이민자들이 가진 특성을 한국의 신성장 동력으로 활용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결혼이민자들을 활용한 국제친화형 다문화 인재 양성 특성화 방안은 향후 결혼이민자들 자녀에게도 연계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다.

한·아세안 간 한류로 인한 이커머스 등 관련 콘텐츠 산업은 갈수록 규모가 커지고 있다. 실시간 아세안 국가의 물품을 소비할 수도 있으며, 한국의 상품 또한 아세안 국가로의 시간적 및 지리적 제약사항을 초월하고 있다. 글로벌 인적 교류의 증가로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인재 양성은 더욱 요구된다.

한편 결혼이민자들의 통번역 능력은 몇 가지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

다. 2020년부터 SNS 등 소셜미디어에 15개국 언어로 번역된 코로나 19 팬데믹 예방 수칙에 관한 포스터가 공유되었다. 질병관리본부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외에 베트남, 필리핀어(타갈로그어), 러시아어, 캄보디아어, 일본어, 네팔어, 미얀마어, 인도네시아어, 스리랑카어, 우즈베키스탄어, 태국어 방글라데시어·우즈베키스탄어 국가 언어 13개 버전이 추가되었다. 이러한 13개 버전의 포스터는 결혼이민자들의 통번역으로 이루어졌다.

통번역 직업 관점에서 결혼이민자들은 한국사회 주류언어와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이주민들의 의사소통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새롭게 창출된 직업이다(김경희 외 2014).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사업은 2009년 정부차원에서 한국의 다문화가정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결혼이민자들을 위해 생성되어진 직종이라고 할 수 있다. 결혼이민자들은 쌍방향 문화를 모두 이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때문에 한국사회에서 신성장 동력이 될 수도 있는 구성원이다. 심나경(2017)은 결혼이민자 특화 직종 분야로 통번역사, 다문화상담원, 다문화강사, 원어민 강사 등의 활용 방안을 제안하였다. 결혼이민자들의 특징을 활용한 성공적인 사례가 한국사회에 홍보될수록 다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자립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다문화연구소 2015). 반면 이러한 특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방치한다면 깨진 유리창 이론(Broken Window Theory)⁷⁾에서 주장한 것처럼 다문화에 대한 부정적인 요소가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출신국의 관점에서는 국제 교류의 주역으로의 위치를 점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이종환 외 2012: 90-91).

장애리(2011) 연구에서는 통번역사 본인이 이질적인 문화적 특수성과 차이점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되어야 효과적인 문화소개를 통하여 의사소통의 장벽을 허물 수 있다고 하였다. 임형재(2016)의 연구에서

7) 깨진 유리창 이론(Broken Window Theory): 미국의 학계에서 범죄심리를 연구하는 학자인 제임스 윌슨(James Q. Wilson), 조지 켈링(George L. Kelling)의 연구에서 깨진 유리창 한 개를 그냥 방치해 두면 방치한 지점을 중심으로 어떤 범죄의 확산이 시작된다는 이론을 말한다. 이 이론은 아주 작은 의미의 무질서를 방치하면 이후에 그 지역 전체로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https://namu.wiki>).

는 커뮤니티 통번역사는 문화 소통 및 문화 증개에 덧붙여 글로벌 무역 시장에서도 요구되는 언어(Language), 문화(Culture), 무역(Trade) LCT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도록 대학의 평생교육기관, 융합전공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2021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결혼이민자에 대한 취업 관련 조사에서 출신 국적별 상용직 비율은 유럽을 비롯한 서구 국가 출신이 66.6%로 높게 차지하였다. 반면 임시직 비율은 필리핀 23.9%, 캄보디아(24.8%) 등 아세안 국가 출신 비율이 임시직에 많이 종사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22). 이 조사에서 나타난 바, 결혼이민자들이 활동 분야가 여전히 임시직과 관련한 직종에 종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문화 관련 지원 부처 및 지자체, 대학, NGO 등에서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국제적 역량 강화 및 실무 경험을 가질 수 있는 특성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3.2. 다문화관련 지역 교육기관과의 연계 협력 방안

부산은 아세안의 대표적인 국가인 베트남 결혼이민자들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⁸⁾ 그리고 부산 지역은 2019년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통해서 얻은 인식적 효과는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

부산 지역의 대학 기관 중 한·아세안 언어 전공을 개설하고 있는 부산의 B대학은 학부 및 통번역대학원에서 전공자들을 배출하고 있다. 또한 B대학은 다문화연구소 및 관련 학회를 설립하여 다문화 인재 양성 관련 등 연구와 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대학의 통번역 교육과정 외에 통번역서비스 사업으로는 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2009년부터 여성가족부 산하 다문화가족지원센터(현 가족센터)의 특화사업으로 시작되었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따르면,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배치되어 있는 통번역서비스 사업을 담당하

8) 부산 지역 결혼이민자 총계는 13,255명으로 베트남(4,485명), 중국(2,622명), 중국 한국계(2,250명), 필리핀(897명)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부산광역시, 2022).

고 있는 전담인력의 출신 국가 언어 제시에서 중국, 베트남, 필리핀이 전체 인력의 8.3%를 차지한다. 다음으로 몽골어, 일본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네팔어, 러시아어, 인도네시아어 순이며, 총 10개의 언어를 지원하고 있다(한국건강가정진흥원 2021). 아세안 국가 10개국 중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태국, 인도네시아 5개국이 전체 인력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양성된 전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번역 전담인력은 총 312명이 배치되어 있다(여성가족부 2022). 통번역 담당 결혼이민자들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전담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⁹⁾ 여성가족부의 통번역서비스는 고졸 이상의 학력 및 한국어능력시험(TOPIC) 4급 자격증 이상의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 시간은 연 2회 양성교육 32시간과 보수교육 18시간으로 운영된다.

이러한 교육과정은 통번역 등을 필수로 하는 전담직원들의 전문화(Specialization), 소프트웨어화(Softwareization) 등의 전문성을 함양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특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정부 기관 측면에서 보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무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한 결혼이민자들을 활용한 전문가 과정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통번역 과정(모국어 및 한국어 논리적 글쓰기와 말하기 등), 출신국가의 대외 주요 정책 과정, 한국의 대외 주요 정책 과정 등을 이수하게 하는 특성화 방안이다. 이러한 특성화 방안을 운영하기 위하여 기존의 사회통합프로그램 거점기관인 대학 등을 활용하여 결혼이민자들이 통번역과 관련한 보수교육 등의 시·공간적인 문제까지 해결하는 방안이다. 아울러 거점기관 대학을 중심으로 평생교육원, 관련 연구소 등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교육적 접근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 결혼이민자들이 학력 신장 및 대학에서의 관련 전공을 비교적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접근 시스템의 보강이다. 학력신장을 위한 방안으로는 한·아세안 출신 국가 결혼이민자들뿐만 아니라 전체 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장학제도 및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온·오프

9)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선발된 통번역 전담인력을 전문통번역지원사, 통번역지원사로 임용(임용시 임금, 근로시간 및 기타 근로조건을 명시한 표준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22).

라인 수업 등을 대학 차원에서 특성화하여 개설할 필요가 있다. 대학은 적극적으로 다문화사회 발전과 연계되는 특성화 추진 방향에 부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4. 결론

한국 다문화사회에서 다문화 인재 양성 전략의 성공 여부는 교육적인 비전 공유 및 적극적인 교육 행정지원이 함께 이루어질 때 효과성은 극대화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아세안 교류 증가에 따른 결혼이민자들을 활용한 국제친화형 다문화 인재 양성 특성화 방안을 지역 기관과 교육 연계성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특성화 방안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는 없지만 본 연구에서 제시된 방안은 한국의 다문화사회 구성원의 특성상 의미있는 기초연구라고 할 수 있다. 향후 한국의 다문화사회에서는 결혼이민자들을 활용하는 방안은 다각적으로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 내에서의 결혼이민자들은 국제적 공존과도 연계성을 가질 수 있으므로 국가를 초월하는 다양한 연구로서 의미와 가치를 지닌다는 측면도 제시된다. 이에 따른 국제친화형 다문화 인재 양성 특성화 방안은 결혼이민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민자 계층에서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한다.

한국사회에서 아세안 국가 출신 결혼이민자들에 대한 국제친화형 다문화 인재로서의 양성 교육 방법의 성패 여부는 한국 정부의 다문화정책과 결혼이민자들의 적극적인 의지가 관건이다. 아울러 지자체 및 민간단체의 비전 공유와 지역 대학기관의 교육서비스가 실시간적으로 지원되는지, 그 여부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친화형 다문화 인재 양성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 과정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향후 후속연구에서는 무형의 교육 구축만을 의미하지 않은 실질적인 연구 성과로 연계될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교육부(2022). 출발선 평등을 위한 2022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
-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2022,03.21).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이주인권 정책’(https://www.humanrights.go.kr).
- 김갑성(2012). 동남아시아국가와의 국제교육개발협력 방안: 중등교육을 중심으로, <한국교육문제연구>, 30(4), 중앙대학교 한국교육문제연구소, 269쪽-292쪽.
- 김경희·허영숙(2014). 결혼이주여성 통번역사를 중심으로 본 한국의 에스닉(ethnic) 노동에 관한 연구, <아시아여성연구>, 53권 2호, 75쪽-101쪽.
- 김동엽(2022). 한국의 새로운 對 아세안(ASEAN) 협력 전략: 중견국 외교를 통한 소 다자주의적 접근, <아시아연구>, 한국아시아학회, 25권 1호, 251쪽-270쪽.
- 김미성 외(2022). 지속가능한 MICE 도시발전방안 모색 -시민친화형 수원컨벤션센터 구축을 중심으로, <한국관광학회>, 한국관광학회 국제학술발표대회, 92권, 644쪽-654쪽.
- 김정주·김경연(2017). “ASEAN 교육개발협력 전략의 국가 비교: 호주와 일본을 중심으로”, <교육연구논총>, 38(3), 충남대학교 교육연구소, 95쪽-122쪽.
- 나승희·박준환(2022). 캡스톤디자인을 활용한 노인친화형 운동기구개발 : 특허출원, <한국발육발달학회>, 한국발육발달학회지, 30권 1호, 91쪽-98쪽.
- 다문화연구소(2015). 결혼이민자 자립성공스토리 : 그녀들의 이야기, <부산외국어대학교>.
- 라미령 외(2022).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아세안 공동체 변화와 신남방정책의 과제, <KIEP 정책연구 브리핑>, 대외정책연구원, 71-81쪽.
- 박민정(2020). 한-아세안협력기금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다자성 양자원조로서의 특징과 한계, <국제개발협력연구>, 국제개발협력학회, 12권 4호.
- 법무부(2021). 외국인·출입국정책본부 외국인 통계연보.
- 법무부(2022). 외국인·출입국정책본부 외국인 통계월보 8월.
- 부산광역시(2022). 2022년 다문화가족 지원계획.
- 사회통합정보망 Soci-Net, https://www.socinet.go.kr(검색일: 2022년 3월 15일)
-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2019). 신남방정책추진 전략, http://www.nsp.go.kr/(검색일: 2022년 5월 10일).
- 신유진 외(2022). 미 참여 학생들의 요구 분석을 통한 한국 학생들의 아세안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 활성화 방안 탐색, <교육문제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35권 3호, 81쪽-110쪽.
- 심나경(2017). 결혼이주여성 통번역사의 직업정체성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이문화적응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여성가족부(2022). 2021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 여성가족부(2022). 2022년 가족사업안내 제2권, 3쪽-409쪽.
- 이요한(2022). 한국의 아세안 소지역(sub-region) 협력 거버넌스: 메콩 유역을 중심으로, 〈동남아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동남아연구소, 32권 2호, 31쪽-58쪽.
- 이종환 외(2012). 깨진 유리창 이론을 이용한 학교 환경 개선 실험, 〈한국환경교육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환경교육학회, 12권, 85쪽-95쪽.
- 이주민통번역센터, <http://www.weekly.khan.co.kr>(검색일: 2022년 4월 25일).
- 이지은(2015). 커뮤니티 통역사의 역할에 관한 논의. 〈통역과 번역〉, 17권 1호, 89쪽-124쪽.
- 이재현(2019). 아세안 2019: 어수선한 주변 환경, 꾸준한 통합 추진, 〈동남아시아연구〉, 30권 1호, 157쪽-182쪽.
- 이형래(2008). 국가 수준 “국어/언어 능력 검사”의 비판적 검토: 직업문식성 평가로서의 9급 공무원 임용 국어시험 분석 연구, 〈국어교육학 연구〉, 13권, 167쪽-210쪽.
- 인샤오옌 외(2022). 퍼지 종합 평가를 활용한 노인 친화형 공원 만족도 분석, 〈한국조경학회〉, 한국조경학회지, 50권 2호, 89쪽-101쪽.
- 임형재(2016). 통번역 목적 한국어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기초 연구. 〈중한언어문화연구〉, 10권, 125쪽-155쪽.
- 장애리(2014). 다문화 사회와 지역사회 통역-지역사회 통역사로서의 결혼이민여성: 잠재력과 한계를 중심으로. 〈번역학 연구〉, 15권 1호, 21쪽-238쪽.
- 정용진 외(2022). 주민친화형 소형풍력발전 가로등 디자인연구, 〈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 종합학술대논문집, 7권, 71쪽-72쪽.
- 조선왕조실록(1392~1863). 조선왕조실록 태조에서 철종까지 제 25대 왕 기록물. <https://sillok.history.go.kr>
- 조영희·최경희(2020). 사람 중심의 한-아세안 공동체 구축 위해 문화 및 인적 교류 정책의 ‘질’고려해야. 〈월간 공공정책〉, 171호, 65쪽-67쪽.
- 조현주·이순주(2019). 보행적 측면에서 노인친화형 공원의 유치거리 도출 및 녹지서비스 지역 평가-보행자 측면 중심으로-. 〈한국조경학회〉, 한국조경학회지, 47권 1호, 1쪽-9쪽.
- 채재은(2015). 베트남 교육과 공적개발원조, 〈동남아시아연구〉, 25권 4호, 한국동남아학회, 77쪽-124쪽.
- 한국건강가정진흥원(2018). 2018년 통번역서비스 사업 결과보고서, 〈한국건강가정진흥원보고서〉.
- 한태인(2011). 아세안사이버대학교 공동활용 이러닝 교육과정 개발운영 방안 연구, 〈정책자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쪽-257쪽.
- ASEAN Korean Journal(2021). <https://asean.org/>(2022년 9월 14일).

Chew · Amy(2019). “Indonesia’s Joko Widodo Wins Second Term as President, as Elections Commission Releases Final Tally Early Amid Fears of Unrest.” South China Morning Post 21 May.
Martiniello, Marco(2002). 현대사회와 다문화주의, 윤진 역, 한울.

필자 소개

성 명 황미혜

소 속 부산외국어대학교 한국어교육학과 겸임교수

주 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샘로 485번길 65 [우편번호] 46234

전자우편 mhh1361@bufs.ac.kr

Abstract

A Study on the Specialized Marriage Immigrant Womenpower Training System for Global-friendly Multicultural Tallent of Korea-ASEAN on Exchange Increase

Hwang, mi-hye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e success or failure of the Korean multiculture society is a key issue for the creation competent and talented human resources for the production conte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lucidate how to characterize and the specialized marriage immigrant womenpower training system for global-friendly multicultural tallent of Korea-ASEAN on exchange increase with global competitiveness. The success of multi-disciplinary education will be maximized when cooperation with the responsible ministry, the active will of the ministry, the exchange increase vision of the university, and real-time and active administration are supported. In this study, based on the analysis of demand and supply of the human resources in the multiculture society, we found out that the multiculture society requires Specialized marriage immigrant womenpower training system for Global-friendly multicultural tallent of Korea-ASEAN on exchange increase who has the creativity, practical appliction ability, and the international competency.

[Key words] Korea-ASEAN Exchange Increase, Marriage immigrant womenpower, Training System, Global-friendly Multicultural Tallent

투고일 2022. 10. 31 / 심사일 2022. 11. 2 / 심사완료일 2022. 11. 16

A Comparative Analysis of Cultural Trade in Korea and China and Countermeasures for China's Cultural Trade Development

Shen Lei
(동아대학교)

1. Introduction
2. Literature Review
3. A comparison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cultural trade between Korea and China
 - 3.1. The development of cultural trade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 3.2. Comparison of the Competitiveness of Core Cultural Goods and Services Trade
 - 3.3. Comparison of Strategic Policies in Developing National Industries
4. Problems and Countermeasures for the development of China's cultural trade
 - 4.1. Problems facing the development of China's cultural trade
 - 4.2. Countermeasures of Promoting Chinese Cultural Trade
5. Conclusion

Abstract

Most of the developed countries in the world today regard the cultural industry as the main part of the potential of their own development strategies and the potential of national economic growth. South Korea, as the fifth largest nation in cultural industry all around the world, has formed specialized cultural development systems and established the national supporting strategy which provide strong support for the development of culture and cultural industry both in policy and finance. This article investigates the pattern of China's cultural trade and explores the problems of it, mainly through comparing those of South Korea. Results show that, like many developing countries, China has a significant cultural goods trade imbalance, meanwhile, cultural trade policy is still somewhat fragmented, although there are indications that where policies have been put in place, especially in the core cultural products, in reducing significant deficits has been made. Obviously, the competitiveness of China's cultural goods and training mechanism of compound talents should be enhanced and improved.

Key Words | cultural industry, cultural trade, cultural goods and service, Korea, China

1. Introduction

With the rise of the information age and smart community, the value brought by the cultural industry including television, publishing, entertainment, news, and movies possesses an increasing proportion. The cultural industry has become a new form of industry and a brand-new social and economic growth point. Most of the

developed countries in the world today have regarded cultural industry as an important part of the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and economic interests. Countries in Asia, like South Korea, and Japan have established specialized cultural development systems, which provide a strong guarantee for the support and development of the cultural industry both in national policy and finance. Especially, in South Korea, a comprehensive national supporting strategy has been set up to develop culture and cultural industry, helping South Korea become the fifth largest nation in the cultural industry all around the world. In contrast, as a cultural nation with relatively sufficient resources, the cultural industry in China starts late with a low level of development. The competitiveness of Chinese cultural products in the international market is relatively low. The trade deficit of the cultural products of China is relatively large, especially in the core cultural goods trade. Against this background, this article explores the problems of growth and structure of China's cultural industries and cultural goods trade, with a focus on the comparison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And countermeasures for promoting China's cultural goods trade are put forward at the end of this paper.

2. Literature Review

UNESCO(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defined cultural industry as a set of activities that produce, reproduce, store and distribute according to

industry standards. The cultural industry aims to meet people's cultural needs and is an industry that produces cultural goods and provides cultural services. Among them, cultural products are specifically divided into core cultural products and related cultural products. Cultural services refer to activities that can satisfy cultural needs or obtain cultural benefits. Among them, the material form as a cultural service delivery system does not belong to the category of cultural service(UNESCO 2005).

Korea's cultural industry is also called the 'contents industry'. The Korean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9+Contents Industry+Statistics Survey+Report (Approval Statistics)" subdivided the cultural industry into 11 industries. Publishing industry, cartoon industry, music industry, game industry, film industry, animation industry, broadcasting industry, advertisement industry, character industry, knowledge information industry, contents solution industry(한국 문화체육관광부 2019). And in China, the Ministry of Culture also defines cultural industry as the act of providing cultural entertainment goods or services to the public, including all cultural collections related to the above acts(Lin Peng 2017: 55).

In terms of cultural trade, there is a lack of systematic regulatory norms in the world. It is formed with the cultural exchanges and economic and trade activities between countries and regions, and the related products of the cultural industry gradually enter the international market. According to UNESCO, cultural trade is the act of exporting and importing cultural content through tangible and intangible cultural products (including cultural goods and

services)(Xue Xiangping 2015: 3).

Korean scholar Kim Joo-Hyeon (2013: 24) and others discussed the characteristics and challenges of the Korean cultural services trade and summarized the reasons for the rapid growth of the Korean cultural service trade from 2003 to 2010. Lin Peng(2017: 36) discovered in a study of the Korean cultural industry, the surplus of Korean cultural trade had continued to increase over the past ten years. Among them, the game industry and the character industry ranked first and second in exports and had strong competitiveness.

Through research on Chinese cultural trade, scholars have found that the Chinese cultural services trade lags far behind the cultural goods trade and that the outward internationalization of cultural industries has just begun (Zhan Youguang · Sheng Beibei 2008:32; Yang Munlan 2011: 131).In the development of cultural trade in China, there were problems such as an imbalance of imports and exports, an excessive proportion of labor-intensive products, and an imbalance of types of imports and exports (Zhang Wenbin · Li Ya 2017: 67). Since China lacks representative cultural brands, it has consistently shown deficits in terms of cultural services (Deng Chengzhe 2020: 102).

Besides, Guo Jifang(2016) made a comparative study on the competitiveness of cultural trade in Korea and China, exactly examining the difference between China and Korea appearing in culture trade, summarizing and deducting a cooperation plan of China and Korea in culture industry from this(Guo Jifang 2016: 35). Guo Juan(2021: 11) indicated that China's cultural trade has made great progress, but compared with developed countries like Korea, its

competitiveness is still very weak, finding out the gap and analyzing the reasons for the gap through comparing the development status and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cultural trade between Korea and China.

Although there were abundant studies on Resale Right before this, there are still some problems. First, the datas used in former studies are somehow out-of-date and the latest ones should be adapted to analyze to reflect the current situation and problems. Second, most of the former studies just listed the characteristics and structure of cultural trade in China and South Korea respectively, where they failed to analyze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deeply by comparing the differences of the two countries. Third, most importantly, the classifications of cultural goods are inconsistent. More specifically, preview studies mainly referred to the classifications based on UNCTAD and UNESCO. Consequently, China's cultural trade has serious deficiencies and urgent problems to be solved in terms of strategic position, the international influence of Audio Visuals culture, and the cultivation of talents in the cultural field. Therefore, this paper will analyze the differences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n cultural trade more comprehensively and in more detail based on the different classifications of cultural goods and propose the development countermeasures for Chinese cultural trade in the fu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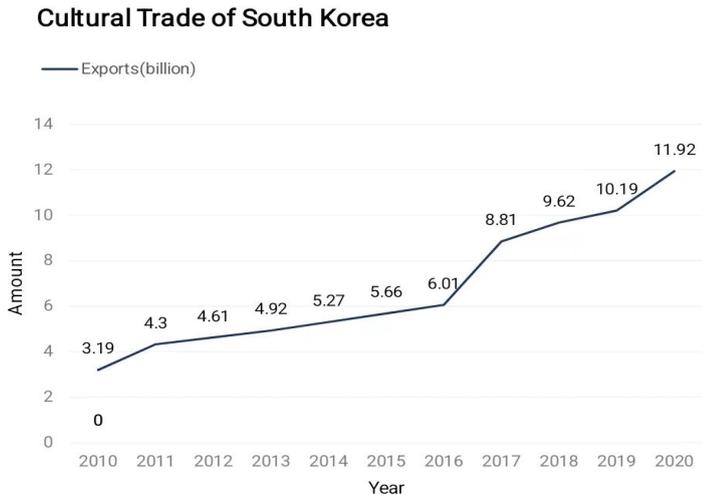
3. A comparison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cultural trade between Korea and China

The Korean government has carried out a national strategy to support cultural development and has taken the cultural industry as a key project to promote economic growth since 1998. And thanks to this kind of trade structure, big profits have been brought to the cultural industry, meanwhile, competitive advantages are also strengthened. However, China's cultural trade structure and export structure showed unbalanced structural characteristics, and the trade in cultural products is still concentrated in traditional fields with low added value.

3.1. The development of cultural trade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The Korean government has carried out a national strategy to support cultural development and take the cultural industry as a key project to promote economic growth as early as 1998. After ten years of development, the cultural industry in South Korea achieved the leapfrogging development and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of South Korea. Nowadays, South Korea has become a big exporter of culture recognized internationally and has an important influence on the culture around the world(Gao Hang 2015: 189). Over the past ten years, the growth rate of the export of cultural products has been more than as twice as the manufacturing industry in South Korea. In 2014, exports of cultural products were

close to 8 billion dollars which accounted for 10% of the whole output value of the cultural industry in South Korea. As shown in Figure 1 since 2010, the exports of cultural trade of South Korea have been on an upward trend, and under such, South Korea eventually formed a cultural trade surplus in 2010 and the surplus increased year by year. By 2020, the trade surplus of cultural products of South Korea had reached 11.92 billion dollars(StatisticsKorea)



Source: StatisticsKorea(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3&tblId=DT_113_STBL_1024776)

〈Figure 1〉 Cultural Trade of South Korea

With the vigorous development of cultural trade, South Korea paid great attention to the innovation of cultural products and the layout of an overall cultural industrial chain. Consequently, the cultural products of South Korea mainly concentrate on the upper reach of industrial chain

and cultural derivatives with high added value. Thanks to this kind of trade structure, big profits have been brought to the cultural industry, meanwhile, competitive advantages are also strengthened. Exports of cultural products in South Korea mainly consists of game, knowledge information, and image copyright, which take up respectively 55.3%, 10.01%, and 9.12%. They are all located at the high end of the cultural consumption industrial chain and have huge economic potential. Korean Wave is the most typical successful case, which brings the cultural trade of South Korea a strong momentum of development at home and abroad.

China's cultural products import and export volume resumed growth after a sharp drop. However, in recent years, the trade volume of Chinese cultural products has shown a fluctuating trend. The import and export scale of cultural products grew at an average rate of over 20% between 2010 and 2014, but dropped sharply in 2015 and 2016, with the total import and export volume dropping by 20.5% and 13% respectively. Afterward, although growth resumed from 2017 to 2019, the highest growth rate was only 10.2% in 2017, which did not return to the growth level in 2014 (Table 1). In 2019, the trade volume of cultural products in China reached US\$111.45 billion, an increase of 8.9%. At the same time, thanks to the supportive policies adopted by the Chinese government for the import of cultural products, the import of cultural products increased by 17.4% in 2019, much higher than the export growth rate of 7.9%.

〈Table 1〉 Cultural Trade of China(2019)

Year	Volume	Export	Import	trade balance	growth rate		
	Unit: US\$100 million				Export& Import	Export	Import
2015	1013.2	870.9	142.3	728.6	-20.5	-22.1	-8.4
2016	881.5	784.9	96.6	688.3	-13	-9.9	-32.1
2017	971.2	881.9	89.3	792.5	10.2	12.4	-7.6
2018	1023.8	925.3	98.5	826.8	5.4	4.9	10.3
2019	1114.5	998.9	883.2	883.2	8.9	7.9	17.4

Statistics by Statistical system of foreign cultural trade

Source: General Administration of Customs of China

As shown in Table 2, China's cultural trade structure and export structure showed unbalanced structural characteristics. First, the trade in cultural products is concentrated in traditional fields with low added value, such as design. 2019, the total design trade in China accounted for 67.88% of the total trade in cultural products, and the export value accounted for 74.07%. Second, the proportion of trade in core cultural products is relatively low. In 2019, the export value (trade value) of China's Audio Visuals media, visual arts, publications, and performing arts accounted for less than 5% of the annual export value (trade value) of cultural products. While South Korea's exports of these four core cultural products all account for a large proportion. In particular, the export value of the Korean Audio Visuals industry accounts for 56.30% of the total. Third, the export structure and trade structure of China's cultural services are unbalanced, and the scale of trade and exports of personal, cultural and entertainment services is much smaller than that of royalties and license fees.

(Table 2) Trade and export structure of cultural goods and
services of China and Korea(2019)

Cultural goods and services Segmentation	Trade/Export Structure	China	Korea
Design	Trade Structure	67.88	39.35
	Export Structure	74.07	23.87
New Media	Trade Structure	13.58	9.22
	Export Structure	9.38	7.47
Crafts	Trade Structure	5.83	4.15
	Export Structure	6.45	3.92
Visual Arts	Trade Structure	4.69	5.53
	Export Structure	4.69	4.61
Audio Visuals	Trade Structure	4.30	37.02
	Export Structure	2.35	56.30
Publishing	Trade Structure	2.74	2.68
	Export Structure	1.98	2.32
Performing arts	Trade Structure	0.99	2.06
	Export Structure	0.87	1.52
Personal, Cultural, and Recreational Services	Trade Structure	10.03	24.69
	Export Structure	17.92	21.95
Royalty and License Fee Services	Trade Structure	89.97	75.31
	Export Structure	82.08	78.05

Source: UN Comtrade database; UNCTAD database

From the above analysis, it can be seen that China's cultural trade has the following three characteristics: First, the overall cultural trade has grown steadily, but the proportion of cultural trade in foreign trade needs to be increased, and the contribution rate to economic and trade is low; The product trade has strong momentum, but the cultural service trade has a serious deficit, and the development is relatively lagging; third, the cultural trade structure has been optimized, but it is still not very

reasonable, mainly focusing on low value-added labor-intensive cultural products. The competitiveness of knowledge- and technology-intensive core cultural products and services in foreign trade still needs to be improved.

3.2. Comparison of the Competitiveness of Core Cultural Goods and Services Trade

From the existing data analysis, it can be seen that the overall trade competitiveness of Chinese cultural products is relatively strong, but the development space of cultural services in the international market is small. On the one hand, the MS(International Market Share) index¹⁾ of China has increased from 7.92% in 2000 to 30% in 2020, while the MS index of South Korea remains below 12%, which indicates that China's international market share of cultural goods leads South Korea. However, the MS index of China's core cultural goods is relatively small. As shown in Table 3, the international market share of Chinese cultural goods is mainly concentrated in design, performing arts, crafts, and new media, and the MS index of the core cultural goods of visual arts, publications, and Audio Visuals media is relatively small. In 2019, the MS index of China's visual arts was lower than that of developed countries, and the MS index of Audio Visuals media and publications was lower than that of South Korea. On the other hand, the MS index of cultural services 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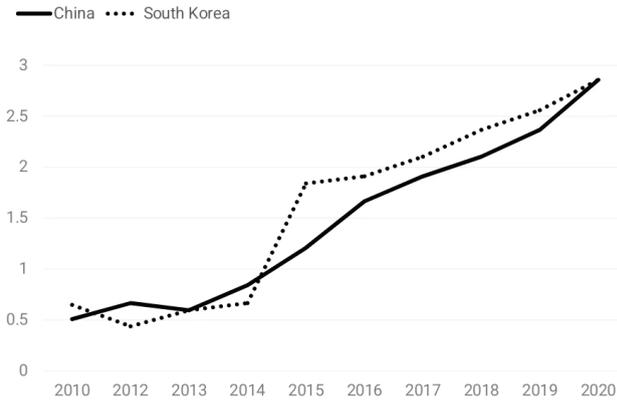
1) MS(International market share) index refers to the proportion of a country total exports in the world's total exports, which can reflect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r competitive position of a certain industry or product in a country. The increase in the ratio indicates that the export competitiveness of the industry or product in the country has increased.

both countries is not high. From 2005 to 2020, the MS index of personal, cultural, and entertainment services in China and South Korea remained below 3% (see Figure 2).

〈Table 3〉 The MS index of cultural goods of China and South Korea in 2019²⁾

Cultural goods and services Segmentation	Korea	China
Design	0.49	33.47
Crafts	0.65	23.36
New Media	1.20	32.81
Performing arts	1.66	20.76
Visual Arts	0.83	19.18
Publishing	0.59	10.86
Audio Visuals	9.80	8.92

Personal, Cultural and Recreational Service MS index of China and South Korea 2010-2020(%)



Source: UN Comtrade database data.

〈Figure 2〉 Personal, Cultural, and Recreational Service MS index of China and South Korea 2010–2020

2) Note: From 2000 to 2019, the MS index of royalty and license fee services in China and South Korea was close to 0 for a long time, So it is excluded from the statistics.

Source: UN Comtrade database da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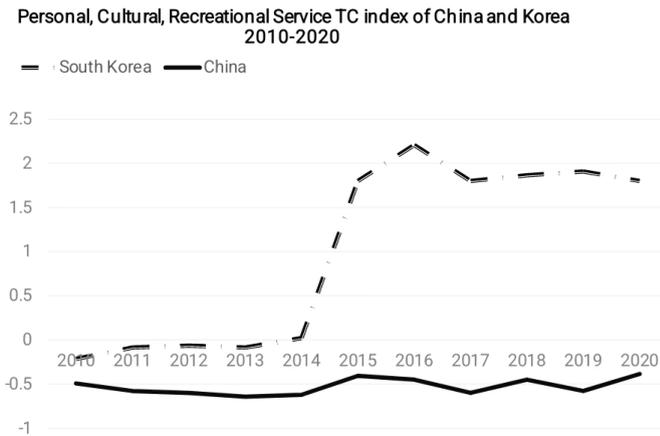
The competitiveness of Chinese cultural products is relatively high, but the competitiveness of core cultural products trade needs to be improved. As shown in Table 4, the three items of Chinese handicrafts, design, and visual arts have strong trade competitiveness, and the TC(Trade Competition) index³⁾ has been maintained above 0.80 for a long time. However, the competitiveness of performing arts and publications trade shows a downward trend, the TC index of new media remains at around 0.10, and that of Audio Visuals media is less than 0 for a long time. South Korea is the only country among the six countries with a TC index of Audio Visuals media greater than 0. At the same time, China's net export competitiveness of cultural services is relatively weak. China's TC index for personal, cultural, and entertainment services dropped sharply to -0.49 in 2009 and has remained around -0.50 for a long time since then, at a relative disadvantage. During this period, the trade competitiveness of South Korea's personal, cultural, and entertainment services continued to improve, with the TC index surpassing China and catching up with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see Figure 3). In addition, the TC index of China and South Korea's royalty and license fee services is less than 0, and the competitive disadvantage is obvious.

3) TC(Trade Competition Index) index, also known as the trade competitiveness index, is mainly used to analyze whether a certain product in the country has a competitive advantage compared with similar products in the world market.

〈Table 4〉 The TC index of cultural goods of China and South Korea in 2019

Cultural goods and services segmentation	Korea	China
Design	-0.04	0.93
Art Crafts	-0.39	0.90
New Media	-0.16	0.82
Performing arts	-0.25	0.53
Visual Arts	-0.12	0.25
Publishing	-0.18	0.20
Audio Visuals	0.54	-0.05

Source: UN Comtrade database data.



Source: UN Comtrade database data.

〈Figure 3〉 Personal, Cultural, Recreational Service TC index of China and Korea 2010-2020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 above index results, it can be seen that the competitive advantage of China's cultural trade mainly lies in the low value-added cultural products of crafts and design, and it is at a competitive disadvantage in terms of core cultural goods and cultural services that can effectively promote the national cultural dissemination.

3.3. Comparison of Strategic Policies in Developing National Industries

The outbreak of the Asian financial crisis in 1997 hit the South Korean economy seriously. So the Korean government put forward the policy of “culture industry policy as a national pillar” in 1998, actively adjusted the industrial structure, and regarded the cultural industry as the foundation of the nation in the 21st century. Mainly because it has low consumption, no pollution, and is rich in creativity. In 1999, The basic law of the cultural industry was formulated, which formed the institutional foundation of the local cultural industry cluster(Sun Jun 2019: 6).

At the same time, the government enacted a combination of laws and regulations to supplement legal guarantees. The ‘Framework Act on the Promotion of the Cultural Industry’ was taken as a milestone in securing the cultural industry law as the basis for the long-term development plan of the cultural industry.

Consequently, the rise of various cultural fields such as TV dramas, movies, music, and variety shows has also driven the development of many related industries such as tourism, catering, and service trade. Korea’s cultural trade industry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enhancement of the Korean economy.

In the process of development, although some relevant policies have been promulgated, the promulgation time was late and the cultural goods exports began in the 1990s. Compared with Korea, China hasn’t treated cultural goods as important export products and ignored research and

development of the international cultural market.

It was not until 2003 that the concept of culture was formally written into the government work report, and the construction of culture has become an important part of China's long-term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plan. In 2011, in China's "Twelfth Five-Year" development plan, the construction and development of culture were significantly improved to the level of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In addition, the supervision of cultural trade enterprises is also insufficient, and the vicious competition among enterprises is not conducive to the emergence of leading cultural trade enterprises. All these have made China's cultural trade not lay a good foundation, and have harmed the development of China's cultural trade(Gao Gang 2015: 189).

The development of Chinese cultural industries and trade in the new period is inseparable from government policy support. The Chinese cultural industry is facing competition of other large cultural product exporters, and the government needs to create a policy environment different from that of South Korea. Only in this way can China's cultural industry cultivate stronger competitiveness, and the cultural products trade can grow rapidly.

4. Problems and Countermeasures for the development of China's cultural trade

According to the above analysis, the trade competitiveness of China's core cultural products and cultural services is low, and policy support needs to be further strengthened, making

it difficult for China's cultural trade to achieve high-quality development. The main issues are as follows:

4.1. Problems facing the development of China's cultural trade

First, at the low end of the global cultural value chain, it lacks products with both diversity and cultural identity, as well as cultural brands with international market influence.

The competitiveness of China's core cultural products trade is relatively weak, and the value of cultural products is insufficient. First, Chinese cultural products are still mainly processed and exported by traditional labor-intensive products such as handicrafts and designs, with low added value and at the low end of the global cultural value chain (He Chuantian · Pan Yu 2012: 85; Guo Xinru et al., 2014: 81). However, the export scale of high-end fine and creative process design products is small, and the cultural core competitiveness and international influence are insufficient. Second, industries such as online games and online short videos have developed rapidly, and new media has become the third largest cultural industry exported by China. However, the current export of new media relies more on the driving force of corporate interests and accumulated direct industry experience, and it is insufficient to undertake the social function of cultural communication (Chen Xianying · Zheng Yuyin 2020: 44).

Different from South Korea, after the rapid development of China's cultural product trade, it has not formed a cultural brand with international market influence, which is not

enough to cope with the competition of cultural products in Europe, America, Japan, and South Korea. This is the primary problem and obstacle encountered by China's cultural products trade in the new era.

Second, Policy support needs to be further improved. In terms of the current policy framework, the government has put forward strategies for the development of the cultural industry, while other relevant policies exist mostly in the form of administrative normative clauses or documents, which negatively affect the effectiveness and driving force of China's cultural trade policy. Currently, China also needs to formulate in detail the support objectives for the development of the cultural industry, improve the corresponding management mechanism, provide necessary financial subsidies or expand corporate financing channels. In addition, in the context of the new era, the development of the cultural industry requires the participation of the government in many aspects. The government must provide support, improve laws and regulations in response to new trends and new problems, and formulate new policies to escort the development of cultural industry and trade in the new era.

Third, insufficient international marketing capabilities cause product supply hard to satisfy international market demand.

Although China's cultural product export has shown a trend of diversification in recent years, the structure of export still needs to be further optimized. The knowledge and technology value of publishing, film and television, and visual arts are relatively high, and they are close to the core

of the cultural industry. However, the trade competitiveness of these three core cultural products in China is not strong, which hinders the development of cultural trade to a certain extent. In addition, the narrow trade channels for Chinese cultural products and the lack of global marketing capabilities have become one of the main obstacles restricting the expansion of Chinese cultural product trade. The Korean cultural industry pays special attention to international marketing and overseas cultural promotion. In contrast, in China, due to the large cultural differences between countries, consumers cannot deeply understand the aesthetics and values of other countries, and cultural discounts have become an important factor affecting the competitiveness of cultural products trade (Fang Ying · Ma Rui 2018: 112; Liang Jun et al. 2020: 29). Due to the lack of the government's strategic positioning of the overall cultural brand, the lack of policy support and guidance, and the lack of overseas cultural dissemination, China's extensive and profound cultural resources lack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and the export of cultural products has suffered serious cultural discounts. Third, the legal protection system for China's cultural industry has not yet been perfected, and the copyright protection of works is insufficient (Gu Jiang et al. 2021: 9), which increases the economic and political risks of China's export of core cultural products and services (Li Feng · Zhu Ting 2020: 121).

Last but not least, compound cultural industry talents are in shortage. The rapid growth of the Korean cultural industry also benefits from the talent training mechanism carried out by the Korean government. At present, the

development of China's cultural products trade urgently needs a large number of high-quality talents, which is not only a requirement for the effective operation of the increasingly escalating international cultural market but also an urgent need to face the complex and changeable international market competition. However, China lacks compound cultural industry talents, and the talent training system needs to be improved, which has become a difficult problem for the further development of China's cultural product trade.

4.2. Countermeasures of Promoting Chinese Cultural Trade

Firstly, it is necessary to create Chinese cultural brands and increase overseas cultural publicity.

China is rich in cultural resources, but it is still necessary to learn from South Korea's successful experience in the construction of Chinese cultural brands with national characteristics, and attach importance to and strengthen the construction of cultural brands with national characteristics. However, Chinese cultural characteristics are more diverse than that of South Korea, and cultural brands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should also be different from those of South Korea. It is necessary to preserve traditional cultural resources, enhance communication and understanding with other civilizations in the world based on respecting cultural diversity and develop and utilize China's long-standing Confucian culture. In the aspect of cultural product marketing, it is necessary to take the international market

demand as the marketing target, explore the values and points of harmony existing in it according to the differences between cultures, and use it as a basis to determine the connotation, theme, and type of cultural products. At the same time of great propaganda, exhibitions of cultural trade products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are regularly carried out.

Secondly, strengthening the support of policy and administration, and exploring new ways of integrating cultural industries should be carried out.

The Chinese government should give subsidies to the export of cultural products, in terms of fiscal and tax and finance policy, etc. The government should relax the approval authority of cultural products export and simplify the export procedures. The establishment of cultural trade specialized agencies is very important, which can strengthen the coordination and guidance of foreign cultural trade.

Throughout the history of Korean cultural industry development, the rapid development of cultural trade is inseparable from the support of government policies. Only by actively adjusting policies to improve the development environment of the cultural industry can we promote the healthy development of China's cultural product trade. In addition to policy support, the integrated and innovative development of various industries requires the unremitting efforts of the cultural industry. Through the improvement of cultural and creative capabilities, design service capabilities, and strengthening of integration and cooperation between industries, efforts are made to explore new paths for the integration and development of cultural industries.

Thirdly, it is imperative to optimize the development of cultural trade to satisfy the needs of the international market.

Optimize the new environment for the development of cultural trade with institutional innovation, and establish an open development system for cultural trade that is compatible with a high level of openness. First, promote the quality and expansion of national cultural export bases, and realize the continuous implementation of many major cultural projects such as digital cultural trade functional zones and cultural science and technology industrial parks in various places, with functional advantages. Second, to benchmark CPTPP, RCEP, and other high-standard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e rules, strengthen the study of rules in the field of cultural service trade, and promote the institutional opening of cultural trade rules. Third, speed up the establishment of the management model of “full opening of the cultural industry market”, and promote more regions to carry out pilot reforms of opening up and innovation in the cultural industry. Fourth, strengthen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mprove the legislative work in emerging fields such as digital culture, and improve the legal and regulatory system of the cultural industry.

Lastly,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a talent training mechanism of “integration of industrial development and talent training”.

China's cultural product trade is an industrial field dominated by innovation and supplemented by production, and the demand for high-end talents in the process of cultural product creation is constantly expanding. As a

whole, it is not limited to the form, not limited to the level, to form a multi-faceted talent training mechanism of “integration of industrial development and talent training”, so that talent training and industrial development can produce a virtuous circle of mutual promotion. It can also imitate South Korea to set up a special fund to carry out talent training in the construction of cultural projects. In the “One Belt, One Road” trade expansion plan of the Ministry of Culture, it is proposed to carry out exchanges and mutual visits of 1,000 cultural trade professional managers, creative planners, and management talents. Increase the training of compound talents and industrial chain management talents who understand the culture and profound industrial concepts,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China’s cultural product trade.

5. Conclusion

Most of the developed countries in the world today take the cultural industry as the main part of the potential of their development strategies and the potential of national economic growth. South Korea, as the fifth largest nation in the cultural industry all around the world, has formed specialized cultural development systems and established a national supporting strategy which provides strong support for the development of culture and cultural industry both in policy and finance. Nonetheless, compared with Korea, China is facing various problems in cultural trade such as imbalanced cultural goods trade, fragmented cultural trade

policy, and so forth. This article investigated and explored the problems facing the cultural trade of China and finally found out that it is imperative to enhance and improve the competitiveness of China's cultural goods and training mechanism of compound talents to induce significant deficits. However, there are more factors and indexes that should be analyzed and compared to gain more comprehensive results in future research.

References

- 김주현 · 한상완 · 주원 · 장후석 · 백흥기(2013). 문화서비스산업의 특징과 발전과제, 현대경제연구원, 1쪽-24쪽.
- Chen, Xianying · Zheng, Yuying.(2020). *Breakthrough path of the structural dilemma of digital culture industry under the epidemic situation*, Art Reviews, 44-55.
- Deng, Chengzhe.(2020). *Research on the Development of Cultural Trade in China*, Cooperative Economy and Technology, 102-103.
- Fang, Ying · Ma, Rui.(2018). *Cultural trade potential and influencing factors between China and countries along the Belt and Road: Empirical research based on the stochastic frontier gravity model*, World Economic Research, 112-121.
- Gao, Hang.(2015). *Comparative Analysis on Cultural Trade Development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English international conference, 189-193.
- Gu, Jiang · Chen, Xin · Guo, Xinru.(2021). *The logical framework and strategic path of improving the modern cultural industry system during the 14th Five-Year Plan period*, Managing World, 9-18.
- Guo, Jifang.(2016). *A Comparative Study on Competitiveness of Cultural Trade in Korea and China*. Master's thesis, Sejong University.

- Guo, Juan.(2021). *A Comparative Study on Cultural Trad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and Influential Factors of Korea and China*, Master's thesis, Pukyong National University.
- Guo, Xinru · Liu, Ji · Tang, Yuemin.(2014). *Empirical research on the current situation of China's cultural industry participation in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r from the perspective of value chain: measurement based on technical content*, Economic Jingwei, 81-86.
- He, Chuantian · Pan, Yu.(2012). *International comparison of China's cultural trade and industrial adjustment*, Journal of the Central University of Finance and Economics, 85-90.
- Li, Feng · Zhu Ting.(2020). *Research on "Going Global" in China's publishing industry under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Journal of Hunan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Social Science edition), 121-128.
- Liang, Jun · Wang, Huimin. Jiang, Chang.(2020). *Cultural discount effect of Chinese cultural products in countries along the Belt and Road*, Social Sciences, 29-37.
- Lin, Peng.(2017). *Research on Korean Cultural Industry Development*, master's thesis, Yanbian University.
- Sun, Jun.(2019). *Comparative analysis of China and South Korea cultural trade industry*, Industry Perspective, 06.
- Xue, Xiangping.(2015). *Research on the Promotion of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China's Cultural Trade*, Master's Thesis, Shandong Normal University.
- Yang, Wenlan.(2011). *Analysis of Current Situation, Problems and Countermeasures of China's Cultural Service Trade Development - Taking Film and Audio-Visual as Examples*, Economic Forum, 131-135.
- Zhan, Youguang · Sheng, Beibei.(2008) *China's Cultural Industry Outward Inter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and Its Implementation*, International Trade, 32-38.
- Zhang, Wenbin · Li, Ya.(2017). *Research on the current situation, existing problems and countermeasures of China's cultural trade development*, Price Monthly, 67-70.

〈웹사이트〉

한국문화체육관광부(2019). 2019+콘텐츠산업+통계조사+보고서(승인통계), 한국콘텐츠
진흥원: <http://www.kocca.kr>

StatisticsKorea(2020):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3&tblId=DT_113_STBL_1024776

UNESCO(2005): <https://en.unesco.org/creativity/policy-monitoring-platform/cultural-industry>

필자 소개

성 명 Shen Lei

소 속 동아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국제학과 글로벌통상금융전공

주 소 부산광역시 중구 대청로37 노블레스힐 [우편번호] 48964

전자우편 shenlei6655@naver.com

Abstract

한중 문화무역 비교분석 및 중국 문화무역 발전을 위한 대책

심뢰
(동아대학교)

오늘날 세계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문화산업을 국가 발전 전략의 잠재성과 국가 경제성장 잠재력의 주요 부분으로 보고 있다. 세계 5위의 문화산업 대국인 한국은 특화된 문화 발전시스템을 구축하고 정책과 금융의 양면에서 문화와 문화산업의 발전을 강력하게 지원하는 국가적 지원전략을 수립하였다. 이 글은 주로 한국과 비교하여 중국의 문화교역 양상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탐색한 것이다. 먼저 한국과 중국 문화 무역의 발전과 구성을 비롯한 문화 무역 특성에 대해 비교한 다음은 MS지수와 TC지수를 활용하여 한·중 양국의 문화 상품의 경쟁력을 분석하고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많은 개발도상국과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도 정책이 시행되고 특히 핵심 문화 상품에서 상당한 적자가 감소했다는 징후가 있으나 상당한 문화 상품 무역 불균형을 겪고 있으며 문화 무역 정책은 여전히 다소 파편화되어 있음으로 중국 문화 상품의 경쟁력과 복합 인재 양성 기제를 강화하고 제고해야 한다.

[Key words] 문화산업, 문화무역, 문화상품 및 서비스, 한국, 중국

투고일 2022. 10. 16 / 심사일 2022. 10. 27 / 심사완료일 2022. 11. 9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 12집 후보 (2022.8 ~ 2022.11)

▣ 2022년 2차 학술대회 개최

- 1) 일시: 2022년 8월 20일(토), 13:00 ~ 19:00
- 2) 장소: 실시간 zoom 활용 + 온라인 게시형 발표(Google Drive)
- 3) 주제: 언박싱(Unboxing) 다문화제도
- 다문화정책 및 법제, 행정 등 제도적 측면 전반 -
- 4) 발표: 총 11편
 - 주제특강: 1편
 - 주제발표: 5편
 - 자유발표: 3편
 - 학문후속세대 발표: 2편
 - 연구윤리교육

▣ 제12집 편집위원 회의 제1차 회의

- 1) 일시: 2022년 9월 7일(수)
- 2) 장소: 온라인
- 3) 참석자 : 황미혜 편집위원장 외 편집위원 6명
- 4) 회의 안건 및 보고
 - ① 논문 모집 계획
 - ② 제12집(11.30) 논문 모집 일정: 10월 16일 마감

■ 한국연구재단 2022년도 ‘신생· 소외 분야 학술지 지원사업’ 선정

- 1) 연구기간: 2022년 10월 1일(토) ~ 2023년 9월 30일(토)
- 2) 연구 개발비: 8,780,000원

■ 제12집 편집위원 회의 제2차 회의

- 1) 일시: 2022년 10월 17일(월)
- 2) 장소: 온라인
- 3) 참석자 : 황미혜 편집위원장 외 편집위원 6명
- 4) 회의 안건 및 보고
 - ① 논문 접수 현황 및 점검(모집 기한 연장)
 - ②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구성

■ JAMS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 교육 및 구축

- 1) 교육 일시
 - ① 2022년 10월 24일(월), 14:00 ~ 18:00
 - ② 2022년 11월 7일(월), 14:00 ~ 18:00
 - ③ 2022년 11월 14일(월), 14:00 ~ 18:00
- 2) 장소: 온라인
- 3) 구축 진행 상황
 - ①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 홈페이지 개설 완료
 - ② 제13집 투고 모집 시,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 도입 예정
 - ③ 2023년 1월 초 온라인 논문투고 시스템(JAMS) 개시 예정

■ 제12집 편집위원 회의 제3차 회의

- 1) 일시: 2022년 10월 31일(월)
- 2) 장소: 온라인
- 3) 참석자 : 황미혜 편집위원장 외 편집위원 6명
- 4) 회의 안건 및 보고
 - ① 논문 접수 현황 및 결과
 - ② 심사위원 의뢰

■ 한국연구재단 2022년도 학술지평가 ‘등재학술지’선정

- 1) 일시: 2022년 11월 1일(화)
- 2) 장소: 온라인
- 3) 회원 및 위원회 대상 등재지 승격 안내
 - ① 등재지 적용 기간 및 대상
 - 2022년 발간 논문집(10집, 11집, 12집)

■ 제12집 편집위원 회의 제4차 회의

- 1) 일시: 2022년 11월 16일(월)
- 2) 장소: 온라인
- 3) 참석자 : 황미혜 편집위원장 외 편집위원 6명
- 4) 회의 안건 및 보고
 - ① 게재 논문 결정 및 윤리위원회 규정 위반 논문 심사
 - ② 편집위원회 세부 일정 최종 점검 및 확인
 - ③ 게재 예정 논문 표절 중복검사 실시
 - ④ 제12집 발간 최종 일정 점검

■ 2022년 3차 학술대회 개최

- 1) 일시: 2022년 11월 26일(토), 13:00 ~ 19:00
- 2) 장소: 온·오프라인 동시(하이브리드) 진행 + 온라인 게시형 발표
(Google Drive)
- 3) 주제: 다문화세계현장과 연구방법론
- 4) 발표: 총 9편
 - 기조강연: 1편
 - 주제발표: 3편
 - 자유발표: 3편
 - 학문후속세대 발표: 2편
 - 연구윤리교육

■ 회원 동정

- 1) 신입회원(2022.8 ~ 2022.11) : 총 19명

연번	이름	소속	비고
1	백아명	부산대학교	
2	김보경	영산대학교	
3	김선희	동의대학교	
4	양근숙	동의대학교	
5	장미선	거제대학교	평생회원
6	임지연	전주대학교	
7	염옥	전주대학교	
8	심퇴	동아대학교	
9	김준표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10	박혜란	건국대학교	
11	이숙진	국립국제교육원	
12	김중수	부산대학교	

13	남은영	인하대학교	
14	손보라	웅상중앙지역아동센터장	
15	김미경	동아대학교	평생회원
16	전혜경	호원대학교	
17	정기영	부산외국어대학교	
18	히라나카 유카리	부산외국어대학교	
19	조희주	부산외국어대학교	

2) 회원 동정

김남희(편집간사) : 동아대학교(소속 변경)

김아미(회원) : 부산외국어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육학 석사학위
취득(다문화교육 전공)

도묘(회원) : 부산외국어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육학 석사학위 취득
(다문화교육 전공)

신용식(기획이사) : 부산장신대학교 연구교수 임용

이채임(회원) : 베트남 하노이 세종학당(소속 변경)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학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학회는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학회(MSES : The Association for Multicultural Society and Education Studies)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학회는 학계와 현장의 전문가간 협력을 통해 다문화사회교육 연구 분야를 선도하고 다문화연구 전문가의 상호교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한국 다문화사회의 건강한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제3조(사업)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학술대회 개최
2. 학술지 발간
3. 위탁 연구사업 수행
4. 해외 및 국내 관련학회와의 교류
5. 기타 본 학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4조(위치) 본 학회의 본부는 회장의 소속기관이나 회장이 지정한 곳에 둔다. 필요에 따라 국내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종류와 자격) 본 학회의 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동의하고 소정의 입회절차를 거친 자로 한다.

1. 일반회원: 다문화사회, 다문화교육 및 한국문화, 한국문화교육, 한국어교육학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과정 이상의 연구자 및 일선학교 교사, 교육전문직의 개인
2. 평생회원: 평생회비를 납부한 일반회원
3. 기관회원: 학교, 연구소, 학술단체, 도서관 등의 기관으로 소정의 입회절차를 거친 단체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학회활동과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단 기관회원은 의결권이 없다.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1. 학회 회칙 준수 및 규정의 이행
2. 입회원서와 입회비, 소정의 회비(연회비, 평생회비) 납부 이행

제7조(자격 상실)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의무를 수행하지 않았거나 학회의 명예를 손상한 경우는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8조(임원) 본 학회 임원의 구성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종류) 회장(1인), 부회장, 이사, 해외이사, 감사
2. (임무)

①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며 학회 업무를 총괄하고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유고 시 회장의 역할을 대행한다.
- ③ 이사는 각 분야별로 아래와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 총무이사: 학회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 및 실무 총괄
 - 편집이사: 학술지 발간 기획 및 편집
 - 연구이사: 학술연구 및 학술대회 개최 기획 및 운영
 - 섭외이사: 학회 활동에 필요한 제반 섭외 업무
 - 출판이사: 학술지 출판 및 배포
 - 정보이사: 학회의 정보망 구축 및 관리
 - 지역이사: 각 지역에서 본 학회를 대표하는 업무
 - 해외이사: 해외 현지에서 본 학회를 대표하는 업무
 - 감사: 학회의 재정운영 감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

제9조(임기) 회장을 비롯한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10조(선출)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외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4장 회의

제11조(총회)

- 1. 총회는 회장이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 2.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임원의 과반수 혹은 재적회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 3.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① 회장, 부회장, 감사 선출
 - ② 회칙 개정

- ③ 기타 회계 및 예산, 결산 승인
- ④ 기타 학회 활동과 관련된 주요 사안

제12조(이사회)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2.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3. 이사회는 본 학회 활동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심의하고 의결한다.

제13조(연구윤리위원회)

1. 연구윤리위원회는 회원의 연구윤리에 대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고 감독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논문의 투고자, 학술지의 편집위원회와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 규정을 제정하고 관장한다.
3. 연구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회와 별도로 운영한다.

제14조(편집위원회)

1.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및 학회 출판물의 편집과 발간에 관련된 주요 사항을 논의하고 의결한다.
2. 편집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편집위원장이 소집한다.

제5장 재정

제15조(재정수입) 본 학회의 재정은 회원의 입회비, 연회비, 평생회비, 찬조금, 외부 지원금,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16조(회비) 본 학회의 입회비 및 연회비, 평생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차기 총회에서 승인 받아야 한다.

제17조(회계기간 및 회계보고)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당해 3월 1일부

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이사회를 편성하여 학회 감사의 감사를 받는다. 감사는 총회에서 이를 보고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부칙]

1. 본 회칙은 이사 2/3 이상 또는 회원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 개정할 수 있다.
2. 본 회칙에서 필요한 세칙은 이사회에서 심의 후 정한다.
3. 본 회칙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를 따른다.
4. 본 회칙은 2017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5. 개정된 회칙은 2018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 편집위원회 운영규칙

제1조(목적)

편집위원회는 다문화연구소의 학술논문집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의 발행을 위해 구성되며,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으로 구성된다.

제2조(구성)

편집위원회는 연구소장 및 운영위원이 관련 전문가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제3조(편집위원장 선출)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여 소장이 임명하며, 편집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관장한다.

제4조(편집위원장 임기)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편집위원회)

위원회는 연 2회 이상의 편집위원회 회의를 가지며, 재적위원의 과반수가 출석할 시 성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6조(편집위원 자격 및 임기)

편집위원의 자격과 임기는 다음의 주요 사항을 기준으로 한다.

- (1) 편집위원의 자격은 대학의 조교수 이상이거나 교육 관련 연구기관의 연구위원, 다문화 관련 기관장으로 한다.
- (2)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7조(편집원칙)

편집위원회에서는 다음의 주요 사항을 논의한다.

- (1) 접수된 투고논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심사과정을 진행한다.
- (2) 위원장은 심사를 마친 논문을 접수받아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한다.
- (3)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이 “학회지 논문제출 및 작성요령”에 합당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심사자의 심사평에 의거하여 수정된 논문의 완성도를 평가한 후에 최종적으로 게재될 논문을 선정한다.
- (4) 동일 필자의 3회 연속 게재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제8조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9조 이 규칙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 연구윤리규정

제1조(목적) 본 연구윤리규정(이하 윤리규정이라 약칭함)은 부산외국어대학교 다문화연구소에서 발행하는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와 각종 출판물에 관계되는 연구결과물에 대한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에 투고한 논문투고자와 편집위원, 심사위원에게 적용된다.

제3조(윤리규정 서약)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 편집위원회는 특집 논문을 접수할 때는 윤리규정을 함께 공시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4조(윤리규정 위반 보고) 논문 투고자나 편집위원, 심사위원의 명백한 윤리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날 경우에는 학회 회장이 윤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위반 여부를 판정하고, 이를 공개한다.

제5조(저자의 책임과 의무)

- ① 논문투고자는 사용하는 자료의 위조, 변조, 표절, 중복투고, 부당한 저자표기 등 제반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 ② 연구자는 다른 연구자와 공동연구를 수행할 경우에 역할과 상호관계를 분명히 하고 저자결정과 순위기준, 연구책임자 선정, 지적 재산권 및 소유권 문제 등에 대하여 상호 합의와 이해가 이루어져야 한다.

제6조 (연구부정행위의 정의)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전 연구과정(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및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에서 발생하는 위조 및 변조행위, 표절행위,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행위, 중복게재 행위 등을 말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과정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타인의 저작, 연구 착상 및 아이디어나 가설, 이론 등 연구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기여가 없는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중복게재”는 편집인이나 독자에게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의 존재를 알리지 않고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과 완전히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한 텍스트의 본인 논문을 다른 학술지에 다시 제출하여 출간하는 것을 말한다.
6. 기타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부당행위를 말한다.

제7조(편집위원회의 윤리규정)

- ① (책임)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심사과정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 ② (공정한 심사의뢰)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제8조(심사위원의 윤리규정)

- ① 심사위원은 위촉된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고 공정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 ②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9조(연구윤리위원회)

-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 위원 5인 내외, 간사 1인을 둔다.
- ② 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편집위원장이 윤리위원장을 호선하여 선출한다.
-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연구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조사하고,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 적절한 제재조치를 의결한다.
- ⑤ 연구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투고자, 편집위원, 심사위원에게 비공개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⑥ 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최종적인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그 내용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 ⑦ 연구윤리위원회가 제재를 결정한 경우,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되기 이전인 경우에는 당해 논문의 게재의 불허,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경우에는 당해 논문의 학술지 게재의 소급적용 무효화, 향후 5년간 본 학술지의 논문 투고를 금지한다.
- ⑧ 연구윤리위원회는 제재를 결정한 이후 그 사실을 공식적 연구업적 관리기관에 통보하며, 기타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대외적으로 공표한다.

제10조

- ①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학계의 관례에 따른다.
- ② 연구윤리규정 수정은 본 연구소 규정개정 절차에 준한다.

부칙

제1조 이 규정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

논문투고규정

1. (게재 원칙 및 논문 종류)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에 게재되는 논문은 다문화사회 및 교육 전반에 걸친 학문분야의 학술논문으로, 미발표된 것이어야 한다.
2. (발간 횟수 및 원고 모집 시기)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 학술지는 **연 3회** 발간을 원칙으로 하며, **발간 시기는 3월 30일, 7월 30일, 11월 30일로 규정**한다. 원고 모집 시기는 논문 발행 **2개월 전**까지로 한다.
3. (투고 자격) 다문화사회, 다문화교육 및 한국문화, 한국문화교육, 한국어교육학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연구자 및 일선학교 교사, 교육전문직이어야 한다.
4. (논문 분량) 투고 논문은 **학술지 논문 규정 분량으로 20매 이내**여야 한다.
5. (논문 심사 방법)
 - ① (논문 접수) 투고된 논문은 반드시 본 학술지 논문 투고 규정에 맞게 작성되어야 한다.
 - ② (심사위원회 구성) 편집위원장은 투고 논문을 전공별로 분류하여 논문의 주제와 관련된 동일 분야 전공자 각 3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심사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으며, 논문 심사와 관련된 모든 내용은 비밀로 지켜져야 한다.
 - ③ (심사 절차 및 결과 통보) 편집위원장은 위촉된 심사위원에게 해당 논문과 심사의견서를 보낸다. 이때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논문투고자의 신원을 알 수 없도록 조치한다. 위촉된 심사위원은 초심 15일 이내, 재심은 7일 이내에 심사의견을 편집위

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그 외 심사에 관한 세부 사항과 절차는 본 학술지 심사규정에 따른다.

6. (논문 심사료 및 게재료)

① 논문 투고 시, **입회비 1만원(최초 1회)과 연 회비(매년 1회) 2만원**을 학술지 통장으로 내어야 한다.

② 논문 투고 시, **논문 심사료 6만원**을 학술지 통장으로 내어야 한다.

③ 게재가 확정되면 **게재료**를 학술지 통장으로 내어야 한다.

-게재료 : 전임 10만원 / 비전임 5만원 / 연구비 지원 논문 20만원

④ 초과 게재료는 **편집 기준(20매 이내) 초과 한 페이지 당 1만원**을 학술지 통장으로 내어야 한다.

⑤ **평생회원은 회비 50만원**을 학술지 통장으로 내어야 한다.

7. (논문 저작권의 양도) 심사 후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부산외국어대학교 다문화연구소에 있으며, 논문을 투고하는 저자는 논문의 게재 신청 시에 저작권 양도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부칙

제1조 이 규정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은 2018년 4월 1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3조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4조 이 규정은 2021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5조 이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6조 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학회 임원 명단 (2022.03.01.~ 2024.02.29.)

회장	권오경(부산외대)
부회장	박형준(부산외대), 신유진(부산외대), 이도경(인제대)
감사	이필숙(사회복지법인 자성), 이리경(동명대)
총무이사	박정미(부산외대)
총무간사	함윤주(양산시 가족센터)
편집이사	황미혜(부산외대)
편집간사	김남희(동아대), 김혜빈(부산외대)
편집위원	황미혜(위원장), 이성순(목원대), 이윤진(안양대), 이진석(동아대), 오지혜(세명대), 정명숙(부산외대), 박형준(부산외대)
연구이사	장니나(부산외대), 명형철(꿈다미인재교육원)
기획이사	기준성(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 신용식(부산장신대)
섭외이사	김현주(진주교대), 김 훈(국방어학원)
출판이사	이재명(부산교대), 이수지(부산외대)
정보이사	정미경(부산 금정초등학교), 강서원(부산 명호고)
지역이사	서울·경기: 곽희정(숙명여대), 차선일(경희대학교)
	충청: 최주열(선문대)
	경남: 박지애(창원대), 이채임(울산대)
	대구, 경북: 최은숙(경북대)
	전남: 박혜경(전남교육정책연구소)
제주: 양영자(제주대)	
해외이사	류영진(일본 기타큐슈시립대학), 한영란(일본 간사이외대), 사정정(중국 길림공정사범학원), 조현지(태국 치앙마이 라차팻대), 김현숙(독일 빌레벨트대)
연구윤리위원회	위원: 황미혜(편집위원장), 조은래, 정명숙(이상 부산외대), 명형철(꿈다미인재교육원) 간사: 김남희(동아대), 김혜빈(부산외대)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학회 회원 명단

번호	성명	소속	이메일
1	권오경	부산외국어대학교	kok7352@hanmail.net
2	이도경	인제대학교	yyidodo@hanmail.net
3	조위수	부산외국어대학교	only0124@bufs.ac.kr
4	박형준	부산외국어대학교	corea@bufs.ac.kr
5	이정아	부산외국어대학교	leejunga@bufs.ac.kr
6	조은래	부산외국어대학교	erj@bufs.ac.kr
7	우형식	부산외국어대학교	woohs@bufs.ac.kr
8	최주열	선문대학교	sunmoon888@hanmail.net
9	조영미	동국대학교	m_cultural@naver.com
10	최은숙	경북대학교	olive7007@hanmail.net
11	양영자	제주대학교	ormyj@hanmail.net
12	김정임	고신대학교	ijk0305@hanmail.net
13	이수경	인제대학교	sklee@inje.ac.kr
14	한영란	일본간사이외대	toqurdi@gmail.com
15	정윤희	베트남 하노이사범대학교	janice0405@naver.com
16	김현숙	독일 빌레벨트대학교	kim-cultural@gmx.net
17	박정미	부산외국어대학교	jmpark4601@hanmail.net
18	최나래	부산외국어대학교	faust9972@naver.com
19	황미혜	부산외국어대학교	mhh1361@bufs.ac.kr
20	두보	신라대학교	tubo110@hotmail.com
21	이리경	동명대학교	vcelloceci@hanmail.net
22	박성옥	동주대학교	minguyoung1@naver.com
23	강보석	한국해양대학교	boseokgang@naver.com
24	박혜경	전남교육정책연구소	acacia333@naver.com
25	김현민	(주)다문화인재양성센터	dkhsdd@hanmail.net
26	이재명	동아대학교	2teacher@naver.com
27	김효정	분포초등학교	mksony@naver.com
28	김현진	동명대학교	victoria925@naver.com
29	박혜인	울산대학교	hi01033599891@gmail.com
30	이재임	베트남 하노이 세종학당	sujar2010@daum.net
31	강서원	부산 명호고등학교	kangsw41@daum.net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학회 회원 명단

32	이경주	부산외국어대학교	lkjyh@hanmail.net
32	이수지	부산외국어대학교	suji0417@hanmail.net
33	윤주원	부산외국어대학교	malika86@hanmail.net
34	이필숙	사회복지법인 자성 대표	compass99@naver.com
36	옥영혜	서인다문화교육연구	yasemin2@naver.com
37	김미희	동해시늘사랑 사회서비스센터장	mihui@daum.net
38	강현주	부산외국어대학교	love200f@nate.com
39	박슬기	신라대학교	bsg8650@naver.com
40	서상희	부산외국어대학교	seo2340@daum.net
41	김윤주	부산외국어대학교	dbsw0616@naver.com
42	한정범	부산외국어대학교	bum282@naver.com
43	권진녀	부산외국어대학교	zhennu@hanmail.net
44	민혜경	울산대학교	min4249@naver.com
45	배정화	경상대학교	ido0124@hanmail.net
46	허경옥	김해대학교	2004hko@hanmail.net
47	이경민	부산외국어대학교	komini78@naver.com
48	노승인	부산외국어대학교	nsi3139@naver.com
49	허훈	동아대학교	hhun09@hanmail.net
50	전수현	동아대학교	kkweck@hanmail.net
51	정세리	부산외국어대학교	cherry6353@naver.com
52	사정정	중국 길림공정사법학원	shitingting@daum.net
53	이선현	세종학당(중국 선양)	junujiwoo@naver.com
54	강남우	부산외국어대학교	jiangnanyu@naver.com
55	류경혜	양산 외국인력지원센터장	helen1141@hanmail.net
56	박진미	부산외국어대학교	onlyjin2y@hanmail.net
57	김혜운	울산대학교	llady27may@naver.com
58	양민철	부산외국어대학교	redbaby486@gmail.com
59	김세진	인제대학교	sejin@inje.ac.kr
60	이정애	한국다문화국제학교	kmis17@hanmail.net
61	정나겸	베트남교류협회	arabypac@daum.net
62	기준성	디지털서울문예대	z3230699@scau.ac.kr
63	윤향희	공주교육대학교	yunhyanghee@naver.com
64	이성순	목원대학교	sslee@mokwon.ac.kr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학회 회원 명단

65	김현주	진주교육대학교	hjkim@cue.ac.kr
66	전은희	순천제일대학교	tanosimini1@gmail.com
67	우시향	단국대학교	wsh4000@hanmail.net
68	김명석	위덕대학교	kimms@uu.ac.kr
69	이명애	경성대학교	kl7319@hanmail.net
70	이진석	동아대학교	jinslee@dau.ac.kr
71	이소라	부산외국어대학교	7623scent@hanmail.net
72	코다야 마유미	부산외국어대학교	mayumilk@daum.net
73	황영이	부산외국어대학교	0202hyy@hanmail.net
74	황리핑	부산광역시교육청	
75	우앤	부산시교육청	wuyan12600@hanmail.net
76	두루가	통번역, 다문화강사	durga80041@naver.com
77	김덕기	팔금산 미술관	site8038@naver.com
78	배경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pretty4y@hanmail.net
79	김태이	부산외국어대학교	6503kyy@naver.com
80	정미경	부산 금정초등학교	ranche3118@hanmail.net
81	신용식	부산외국어대학교	sinysik0292@naver.com
82	조대휘	부산외국어대학교	
83	지영희	부산시다문화교육지원센터	ssjyh32190@hanmail.net
84	김희정	부산외국어대학교	hennyk@naver.com
85	허숙미	신라대학교	miscis@daum.net
86	궁즈제	부산외국어대학교	335479153@qq.com
87	전미숙	부산외국어대학교	losa67@naver.com
88	조연주	부산외국어대학교	joytothelord58@naver.com
89	박현아	부산시교육청	hyuna5584@naver.com
90	권세미	일본류코쿠대학교	ryo3025@gmail.com
91	허지인	KONAN UNIVERSITY	aozora24@gmail.com
92	강현숙	(주)디케이지	gajung333@naver.com
93	신유진	부산외국어대학교	yoojins@bufs.ac.kr
94	어해영	부산외국어대학교	seafish85@hanmail.net
95	이영희	창원대학교	dion82@naver.com
96	안윤지	동아대학교	yunji767@hanmail.net
97	명형철	꿈다미인재교육원	mhc5818@hanmail.net
98	전정미	부산외국어대학교	enaro72@naver.com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학회 회원 명단

99	김정아	부산시어린이회관 교육연구관	edukja@hanmail.net
100	공수영	김해 우암초등학교	kong200078@hanmail.net
101	강혜정	동아대학교	epui0228@hanmail.net
102	김경녀	부산외국어대학교	nyed11@hanmail.net
103	이영선	동아대학교	yungsunshine@naver.com
104	김수진	동아대학교	ksj0@dau.ac.kr
105	박은주	오사카조가쿠인대학교	geheimnis6525@gmail.com
106	윤혜진	부산외국어대학교	happy0304n@naver.com
107	함윤주	양산시 가족센터	funny8203@naver.com
108	김남희	동아대학교	kinegt5@gmail.com
109	김혜빈	부산외국어대학교	hyebin5180@gmail.com
110	원영숙	국제이주교류협회	yswon9@hanmail.net
111	심영택	경북대학교	afreeman@naver.com
112	김채금	청강유치원	corma1177@gmail.com
113	정휘우	부산외국어대학교	gestalt007@naver.com
114	류승의	동명대학교	iris829@hanmail.net
115	신미숙	동아대학교	7023sms@hanmail.net
116	신용일	동아대학교	yongilshin@naver.com
117	오상민	부산외국어대학교	mean8410os@naver.com
118	조완철	부산외국어대학교	20188222@bufs.ac.kr
119	성수나	통합TA연구소	ssa1118@daum.net
120	김송설	광양평생교육관	zhufu217@naver.com
121	정남훈	경주 유림초등학교	arnold730528@hanmail.net
122	정경옥	초록꿈어린이집원장	cjlove-2002@hanmail.net
123	김명자	김해시 가족센터	kmj0025@hanmail.net
124	김민정	동아대학교	antlddl74@hanmail.net
125	한채운	울산남창고등학교	cloud41@hanmail.net
126	송순임	온산고등학교	nanggirl@hanmail.net
127	우효비	동아대학교	liaojinhan@naver.com
128	배재현	보수초등학교	qowogus000@naver.com
129	박지애	창원대학교	japark@changwon.ac.kr
130	정명숙	부산외국어대학교	jms@bufs.ac.kr
131	곽희정	동국대학교	jj3kwak@hanmail.net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학회 회원 명단

132	조현지	태국 치앙마이 라차팻대학교	hyunjee04@naver.com
133	김용미	부산외국어대학교	pingue123@naver.com
134	김태완	동아대학교	tw6874@naver.com
135	황경득	부산 구평초등학교	deug2@naver.com
136	권영은	부산은행	dkxpsp43@hanmail.net
137	장나나	부산외국어대학교	jazzinred@naver.com
138	로문봉	부산외국어대학교	cjzlwf0865@daum.net
139	박하연	한우리독서문화 운동본부	angelahayeon@gmail.com
140	안지현	부산외국어대학교	ahnjihyun@bufs.ac.kr
141	조문균	부산대학교	260903800@qq.com
142	이수자	전남대학교	suja98@hanmail.net
143	이원식	금강대학교	2ws@gg.ac.kr
144	이영설	금강대학교	kakaleeo@nate.com
145	장민희	경희대학교	mhchang0523@gmail.com
146	증덕	신라대학교	karen517666@163.com
147	집천원	중국 운남대학교	1049349249@qq.com
148	최요로	동아대학교	702316229@qq.com
149	안기	전주대학교	382927201@qq.com
150	제혜금	전주대학교	huiqin1997@hanmail.net
151	소혜진	전주대학교	hs6363@gmail.com
152	김연희	대원대학교	liensi@hanmail.net
153	진소영	부산외국어대학교	jsy13907@naver.com
154	신소영	한림대학교	heeje@hallym.ac.kr
155	유승금	한림대학교	ysgeum@hallym.ac.kr
156	권순희	이화여자대학교	shkwonkim@ewha.ac.kr
157	이혜림	서울대학교	hr.lee@snu.ac.kr
158	조윤희	신한대학교	yunhi4423@shinhan.ac.kr
159	고미숙	천안어린이꿈누리터	me2995@hanmail.net
160	안정민	한국외국어대학교	oxygenajm@gmail.com
161	정용균	국립강원대학교	ykchung@kangwon.ac.kr
162	김 훈	국방어학원	kartosika@hotmail.com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학회 회원 명단

163	류영진	기타큐슈시립대학 지역전략연구소	rosemary1095@naver.com
164	차선일	경희대학교	madeinone@naver.com
165	이윤진	안양대학교	smile-yunjin@hanmail.net
166	구지은	고신대학교	kje9176@hanmail.net
167	윤병걸	한림대학교	79neva@naver.com
168	임덕인	ICU국제기독교대학	dukin21go@gmail.com
169	임진숙	부산외국어대학교	limjinsuk@bufs.ac.kr
170	김민수	상명대학교	1013min@naver.com
171	최민지	상명대학교	aaaaaa0113@naver.com
172	김수연	성균관대학교	sooyeon620@gmail.com
173	김지민	CARE(Comfort Women Action for Redress and Education)	jiminkk@gmail.com
174	최대희	전남대학교	ppiraten@naver.com
175	공경	부산외국어대학교	piou8491@naver.com
176	퐁담 시와폰	부산외국어대학교	somz.miso@gmail.com
177	유진숙	부산외국어대학교	lafete1789@hanmail.net
178	정윤희	영남사이버대학교	janice0405@naver.com
179	오미소	상명대학교 /한국이민재단	misso0803@naver.com
180	노미향	대구가톨릭대학교	rmhoo@kakao.com
181	강지인	신라대학교	uhak1@hanmail.net
182	오현석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ohssek@hanmail.net
183	황민철	순천대학교	mchwang@scnu.ac.kr
184	장익현	한신대학교	skking79@hs.ac.kr
185	김안나	대구가톨릭대학교	ankim@cu.ac.kr
186	오지혜	세명대학교	irene927@hanmail.net
187	빈장원	충남 성환초등학교	mrkini80@naver.com
188	김옥녀	숙명여자대학교	doris@hanmail.net
189	배도용	부산외국어대학교	dyb@bufs.ac.kr
190	백아명	부산대학교	baiyaming97@gmail.com
191	김보경	영산대학교	hello4540@nate.com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학회 회원 명단

192	김선희	동의대학교	seon0116@hanmail.net
193	양근숙	동의대학교	ygs0604@naver.com
194	장미선	거제대학교	jmisn@naver.com
195	임지연	전주대학교	limjiyeon@jj.ac.kr
196	염옥	전주대학교	274350188@qq.com
197	심뢰	동아대학교	shenlei6655@naver.com
198	김준표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salira43@gmail.com
199	박혜란	건국대학교	luv317@naver.com
200	이숙진	국립국제교육원	sookjin15@hanmail.net
201	김중수	부산대학교	so@pusan.ac.kr
202	남은영	인하대학교	yolonam@inha.ac.kr
203	손보라	웅상중앙지역아동센터장	bora1126611@hanmail.net
204	김미경	동아대학교	mik6662@nate.com
205	전혜경	호원대학교	lsch4219@naver.com
206	정기영	부산외국어대학교	gyjung@bufs.ac.kr
207	히라나카 유카리	부산외국어대학교	yukari519@hotmail.com
208	조희주	부산외국어대학교	whgmlwn9_17@gmail.com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

Multi-cultural Society and Education Studies

권 수 제12집

발행인 권오경

발행처 부산외국어대학교 다문화연구소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학회

주 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샘로 485번길 65 A동 407호

연락처 051)509-6622

인 쇄 2022년 11월 30일

발행일 2022년 11월 30일

